

건축 · 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the Contemporary Publicness of Architecture & Urban Space

염철호 Youm, Chirl Ho

조준배 Cho, Jun Bae

심경미 Sim, Kyung Mi

(a u r i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the Contemporary Publicness of Architecture & Urban Space

지은이: 엄철호, 조준배, 심경미

펴낸이: 은영태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5호, 인쇄: 2009년 2월 26일, 발행: 2008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0,000원, ISBN: 978-89-93216-20-2

발간물번호: AURI-기본-2008-8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 연구책임 염철호 · 부연구위원
- ▮ 연구진 조준배 · 부연구위원
 심경미 · 연구원
- ▮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서수정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권영상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박소현 · 서울대학교 교수
 박재길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그 증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의 생활공간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공공성에 대한 개념 및 인식이 변화하고 있어 건축·도시공간에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인 공공성이 아닌 변화하는 새로운 공공성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결과 중심의 공공성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공공성 개념의 인식이 변화해야 함을 전제로 공공성 개념변화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국내의 공공성 관련 연구 및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요소와 증진방향을 도출하여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공공성 개념의 변화와 현대적 공공성

먼저 공공성의 어원, 사전적 의미,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공성 개념의 근원에는 공동성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깔려있다. 또한 여러 분야별로 각기 다른 논점의 기저에는 사회구성원 또는 특정분야를 아우르는 공간과 영역이 존재하며 이러한 영역 또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들이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독점되어지지 않고 다수에게 배분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개념을 바탕으로 현대적 contemporary 공공성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성 의미의 재해석을 통한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은 공적, 공정, 공익, 공론적 공공성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공공성을 보면 국가 혹은 정부 등의 공공기관에 의한 행위를 강조한

‘공적’ 측면에서의 공공성, 다수의 일반사람들에게 공통되고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행위로서 ‘공익’ 적 측면에서의 공공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접근이 용이한 성질로서 ‘공정’ 적 측면에서의 공공성이며,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은 문화적 측면의 공론적 자율성을 강조한 ‘공론’ 적 측면에서의 공공성까지 포함하여 구성된다.

현대적 공공성의 특징은 공공성의 확장성과 다층성이다. 공공성 개념의 확장이란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공성을 일컫는다. 이는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이 ‘관리에서 지원과 파트너로서의 역할’ 로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정 불가능한 공공성 정의의 특징은 현대적 공공성 그 자체가 결정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합의과정에 의한 공공성은 끊임없이 협의에 의해 변하고,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며, 동일성과 전체성을 버리고 다양성과 차별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구체적인 현장에서 공공성의 주체와 역할의 변화로 나타나며 이것은 정부주도형 공공성에서 정부·민간 협력형 공공성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정부주도형 공공성은 공·사이분법적 논리를 조건으로 가지며, 공사분리에 따른 국가 또는 정부중심의 활동을 통해 배타적·획일적인 공공성과 수직적·종속적인 근대 행정관리형의 권위적·일원적 공공성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공공성의 영향은 도시계획적 분야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데, 이를 국가주도의 사회인도적(Social guidance) 계획 패러다임이라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정부·민간의 협력적 공공성은 수평적·지역적·협력적인 공(共)의 의미가 기반이 되고 주체가 되며, 공(公)은 이를 지원 또는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공공성의 개념이 개방적·가변적이어야 하며, 경계의 유동성에 의한 열린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생활세계에 기반한 지역적 공공성으로서 합의와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공동체 주도적인 협력적·과정적 공공성을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공공성의 영향은 거버넌스의 합의적 공공계획 그리고 과정으로서 유연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3.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논의 및 인식현황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기초 분석단계로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 및 담론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주요 논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건축·도시관련 분야 실무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성에 대한 인식현황을 파악하였다.

먼저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공공건축물과 오피스빌딩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도시공간과 오피스 빌딩의 저층부 및 실내공간으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공성 및 공공영역에 대한 개념은 ‘모두-함께-열린’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최근에는 공적-사적영역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진다는 개념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공공성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접근성, 개방성 등 공공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설정하여 조성된 공간현황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 왔다.

다음으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담론들은 크게 공간의 개방 및 사유공간의 공공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난개발 지양을 통한 공공성 확보, 주민 참여와 전문가 역할 제고를 통한 공공성 구현, 그리고 공공디자인 측면에서의 공공성 구현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와 함께 현 시점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논점과 과제로 첫째 공공성을 창출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진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공간의 확보만이 아닌 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고려와 기존의 결과중심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계획이나 개발시 그 지역과 장소의 맥락을 고려하고 존중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인식현황분석 결과 공공성을 나타내는 핵심개념으로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오픈 스페이스가 공공성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고 반대로

공개공지가 공공성이 가장 향상되지 못한 부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과 관련한 개념전환에 대해서는 담론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 항목들에 대해 모두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건축, 도시, 경관, 공공디자인 실무자와 행정공무원들이 직종별로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사례 분석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서울숲, 서울광장, 안양예술공원, 홍대앞 놀이터를 대상으로 프로세스중심의 사례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행정과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협력관계는 각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주체 간 비협력체계나 행정의 일방적 추진은 공간의 사용과 관리에서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갈등의 유발과 해소과정 측면에서는 주민과 행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워크숍이나 현장 답사가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의 한 모델로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정과 전문가와의 갈등 해소과정은 사업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과 조성결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표면상 공익, 공공성을 표방한 공공의 일방적 결정은 결과적으로는 공간의 공공성 가치를 저하시키는 단서가 됨을 확인하였다.

기본방향 및 계획내용 측면에서는 모든 사례에서 대상지의 지역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공공성을 위한 공간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측면에서는 서울숲 사례에서와 같은 민관 파트너십이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단일주체의 일방적인 공급자중심의 관리는 상업화와 독점의 문제를 가져옴으로써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증진 방향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건축·도시공간의 프로세스 중심의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적 요소와 증진 방향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이다. 과거의 사적영역에 의존한 공간의 공공화는 결국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선명하게 형성하는 결과를 야기하여왔다. 최근 그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로공간 등 공공영역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적영역 스스로 공공영역과의 경계를 허물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는 행정의 권한 이양과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다. 공공성 구현에서의 앞으로의 행정의 역할은 과거의 주도적 역할이 아닌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거기에는 다주체간 협력관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성 구현 및 증진을 위한 지역전문가로서의 건축가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며, 아울러 공공성 창출의 주체로서의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는 가치공유와 합의형성의 중시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논쟁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의견과 갈등을 해소하며 공공적 담론을 형성하는 공동의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도시공간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기간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는 관리·운영의 중요성 인식과 주체의 다양화이다. 지금까지의 결과 중심의 관점에서 공간의 확보만을 중시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결과 못지않게 형성된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영향을 끼치거나 관련이 있는 관련 주체간의 신뢰 관계의 구축과 지속적인 의사소통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난개발 지양과 지역·장소의 맥락 존중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치유하는 것이 곧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개발지향과 개발위주의 계획에서 지역성과 장소성을 중시한 계획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건축·도시공간과 관련한 건축, 미술, 디자인, 조경 등의 다양한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집합적인 아이덴티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6. 결론 및 과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에 있어 프로세스 중심의 현대적인 공공성에 대한 개념 요소와 증진방향을 제시하면, 조건적 요소로서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 주체적 요소로서 「행정의 권한 이양과 다양한 주체의 협력」, 실천적 요소로서 「가치공유와 합의형성 과정의 중시」, 「관리·운영의 중시와 주체의 다양화」, 「난개발 지양과 지역·장소의 맥락 존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기초 단계의 연구

로, 본 연구의 후속으로 진행될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 정립에 대한 이론적 완결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문사회학 분야의 심층적인 이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현대적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시한 항목들을 좀 더 구체화하여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 건축도시공간, 현대적 공공성, 협력·합의, 관리·운영

차례

I.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3. 연구의 방법 및 흐름	6
II. 공공성 개념의 변화와 현대적 공공성	11
1. 공공성의 기초 개념	12
1) 공공성의 어원적 의미	12
2)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	14
3) 분야별 공공성의 의미	15
2. 현대적 공공성 개념	20
1) 공공성 의미의 재해석 : 공적, 공정, 공익, 공론적 공공성	20
2) 현대적 공공성의 확장성과 다층성 : 결정불가능한 정의	23
3. 정부 주도적 공공성	25
1) 공(公)의 공공성	25
2) 근대적 공공성의 조건으로서 공·사이분법적 공공성	25
4. 정부·민간의 협력적 공공성	28
1) 공(共)의 공공성	28

2) 현대적(contemporary) 공공성의 조건으로서 개방적·가변적 공공성	29
3) 공동체 중심의 협력과 합의의 공공성	30
4) 합의와 협력을 통한 유연적 계획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32

III.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논의 및 인식 현황35

1.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연구 현황	36
1) ‘공공성’ 및 ‘공공영역’의 개념	36
2)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연구의 대상	38
3) 공공성 평가 분석방법	43
2.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담론 동향	45
1) 공간의 개방 및 사유공간의 공공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45
2) 난개발 지양을 통한 공공성 확보	46
3) 주민 참여와 전문가 역할 제고를 통한 공공성 구현	48
4) 공공디자인에서의 공공성 구현	50
3.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논점과 과제	53
1)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전문가 논점	53
2)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주요 과제	57
4.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인식 현황	59

IV.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사례 분석	71
1. 사례 분석 개요	72
2.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관계	79
3. 갈등의 유발과 해소과정	90
4. 계획의 기본방향 및 설계내용	97
5.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103
V.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증진 방향	113
1.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개념 요소	114
2.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증진 방향	115
VI. 결론 및 과제	123
1. 연구의 주요 결론	124
2. 연구의 한계	126
3. 향후 과제	127

- 참고문헌130
- Summary141
- 부록1. 공공성 관련 연구 및 담론 목록148
- 부록2. 전문가 인터뷰 회의록159
- 부록3.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인식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181
- 부록4. 사례 대상지 현장조사188

표차례

〈표 1〉 전통적 계획과 유연적 계획과의 차이	33
〈표 2〉 공공성 및 공공영역에 대한 개념 관련 연구	38
〈표 3〉 오피스 빌딩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 연구 예	41
〈표 4〉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 연구 예	42
〈표 5〉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 연구 예	43
〈표 6〉 공공성 관련 연구의 공공성 평가 지표 예	44
〈표 7〉 ‘공간의 개방 및 사유공간의 공공화와 공공성’ 관련 담론	46
〈표 8〉 ‘난개발과 공공성’ 관련 담론	47
〈표 9〉 ‘주민 참여 및 전문가 역할과 공공성’ 관련 담론	49
〈표 10〉 ‘공공디자인과 공공성’ 관련 담론	51
〈표 11〉 기타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담론	52
〈표 12〉 기타 건축·도시공간 공공성 관련 행사	52
〈표 13〉 사례 분석 대상 개요	73
〈표 14〉 서울숲 사업 개요	74
〈표 15〉 서울숲 조성사업 추진경위	74
〈표 16〉 서울광장 개요	75
〈표 17〉 서울광장 조성 추진경위	76

〈표 18〉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개요	77
〈표 19〉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추진경위	77
〈표 20〉 홍대앞 놀이터 개요	78
〈표 21〉 홍대앞 놀이터 정비사업의 추진경위	78
〈표 22〉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해결 사례	92
〈표 23〉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와의 갈등과 해결 사례	94
〈표 24〉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갈등 사례	96
〈표 25〉 서울숲 일반설계지침에서의 기존 시설관련 지침내용	97
〈표 26〉 서울광장 추진 목표	98
〈표 27〉 서울광장 사용현황	108
〈표 28〉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내용	109
〈표 29〉 놀이터 프로젝트 프로그램 구성	110
〈표 30〉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개념 요소	114

그림차례

〈그림 1〉 사례 대상 선정 과정	8
〈그림 2〉 연구의 흐름	9
〈그림 3〉 상호보완적 · 선순환적 관계	23
〈그림 4〉 공공성 개념의 확장 : 현대적 공공성	23
〈그림 5〉 공공성 개념의 확장	24
〈그림 6〉 공적 공공성 주도에 의한 근대적 공공성	25
〈그림 7〉 공론적 공공성의 주도와 공적 공공성의 지원에 의한 협력적 공공성	28
〈그림 8〉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핵심개념	59
〈그림 9〉 공공성 향상에 관한 인식	60
〈그림 10〉 공공성 향상 공간에 관한 인식	61
〈그림 11〉 공공성 미약 공간에 관한 인식	61
〈그림 12〉 공공성 향상 항목에 관한 인식	62
〈그림 13〉 공공성 미약 항목에 관한 인식	63
〈그림 14〉 공공성 개념전환에 ‘시민주도’ 가 중요하다	64
〈그림 15〉 공공성 개념전환에 ‘과정’ 이 중요하다	64
〈그림 16〉 공공성 개념전환에 ‘관리운영’ 이 중요하다	65
〈그림 17〉 공공성 개념전환에 ‘경계인식 전환’ 이 중요하다	65
〈그림 18〉 공공성 개념전환에 ‘주변과의 조화’ 가 중요하다	66

〈그림 19〉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개념 전환 우선순위	67
〈그림 20〉 조성과정에서 공공성 구현을 위한 필요 사항	67
〈그림 21〉 공적공간 및 사적공간 경계부에서의 공공성 구현 필요 사항	68
〈그림 22〉 공공성 강조 필요 영역	69
〈그림 23〉 서울숲의 모습	74
〈그림 24〉 서울숲 조망도	75
〈그림 25〉 서울광장 전경	75
〈그림 26〉 서울광장 조성 전(좌)과 조성 후(우)	76
〈그림 27〉 오징어정류장(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77
〈그림 28〉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개막식	77
〈그림 29〉 홍대앞 놀이터에서 열리는 프리마켓	78
〈그림 30〉 서울숲 조성사업 참여 주체의 역할 및 관계	81
〈그림 31〉 서울광장 조성사업 참여 주체의 역할 및 관계	84
〈그림 32〉 안양예술공원 프로젝트 참여 주체의 역할 및 관계	86
〈그림 33〉 홍대앞 놀이터 참여 주체의 역할 및 관계	89
〈그림 34〉 지역주민의 민원제기에 따라 위치가 변경된 서울숲 주차장	90
〈그림 35〉 안양공공공원 프로젝트 지역 상인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 모습	91
〈그림 36〉 논란이 된 비토 아콘치의 주차장	93

〈그림 37〉 서울숲 주상복합개발부지	95
〈그림 38〉 시민단체 계획안 : 서울숲 윈터가든	95
〈그림 39〉 주상복합개발계획안	95
〈그림 40〉 홍대앞 놀이터 정비계획 초기 안	99
〈그림 41〉 홍대앞 놀이터 정비계획 확정안	99
〈그림 42〉 주변과 연계를 위한 개념 스케치	100
〈그림 43〉 한강으로 연계를 위해 조성된 보행교	100
〈그림 44〉 부지교환으로 습지 초화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준 성수중학교	100
〈그림 45〉 뚝섬유수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서울숲 습지 초화원과 조류 관찰대	100
〈그림 46〉 '빛의 광장' 계획안	101
〈그림 47〉 안양예술공원 : MVRDV의 전망대	102
〈그림 48〉 안양예술공원 : 1평타워	102
〈그림 49〉 서울숲 사랑모임과 서울시의 공원 운영시스템	103
〈그림 50〉 숲속 작은 도서관(상설도서관)	107
〈그림 51〉 이동도서관 책수레 운영	107
〈그림 52〉 서울광장 공간활용 프로그램	108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흐름

(a u 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증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기존의 도시환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공공성 증진 관련 정책 및 사업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건설위주로 편향 되어있는 국가정책을 건축문화 중심의 체제로 바꾸고 건축문화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디자인을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 실현¹⁾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에 있어서 건축이 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지니는 공공성에 두고, 이 건축의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일상적 생활공간, 사회적 자산, 문화적 유산이라는 세 가지의 공공성이 아울러 실현되어야 함이 강조되어 있다.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에서는 일상 생활공간으로서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안전, 건강, 다양성,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기초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에서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지향성을 바탕으로 하여 충실한 사회적

1) 김광현, 건축과 사회, 2007 겨울

자산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에서는 건축에 대한 창의적 기획과 설계 등을 증진하되 건축이 지역의 풍토, 역사, 환경과 유기적으로 조화되도록 고려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공공성에 대한 개념 및 인식의 변화

신자유주의의 침투와 시민사회론의 대두, 국가 우선 사회에서 개인 우선 사회로의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공성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이분법적 분할체계의 해체, 행정주도에서 시민주도로의 공공성으로의 전환,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성 재구조의 필요성 대두 등 공공성의 개념과 인식이 전환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 변화하는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지금까지 건축·도시공간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사성(私性)과 대립되는 공성(公性)이라는 개념에서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명확한 경계를 바탕으로 공적, 공익, 공정, 공평 등으로 대부분 인식되어 왔다.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연구 또한 ‘모두-함께-열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쾌적성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방식 위주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건축·도시 공간에 있어서 과거의 행정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고, 시민주도의 건축·도시 공간 창출 사례 또한 증가하면서, 과거의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통적 공공성 개념과는 다른 다원화하고 복합화된 새로운 공공성에 관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 결과 중심의 공공성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공공성으로의 전환

다원화하고 복합화된 새로운 공공성에 대해서는 조성된 공간을 중심으로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쾌적성 등의 지표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관점이 아닌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참여주체의 다양성, 커뮤니케이션, 협력적 관계, 합의과정 등의 지표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연구단계인 본 연구에서는 결과 중심의 전통적 공공성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현대적 공공성으로의 공공성 개념의 변화를 전제로, 공공성 개념변화에 대한 이론 고찰, 국내의 공공성 관련 연구 및 담론 파악, 공공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현황 파악, 사례 분석을 통해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요소와 증진방향을 도출하여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1) 연구의 내용

① 공공성 개념 전환과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이론 고찰

사성의 대립적 개념으로의 공성이라는 전통적 공공성에서 시민사회적 공공성, 공동체적 공공성으로의 변화 등 인문학 분야의 이론적 검토를 통한 공공성의 개념 변화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정부 주도형 공공성과 정부·민간 협력형 공공성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다양한 주체의 발의와 협력, 합의형성 등 현대적 공공성과 관련한 특징을 도출한다.

② 건축·도시 분야에서의 공공성 관련 연구 및 인식현황 파악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다룬 건축·도시 관련 연구 및 저널을 중심으로 연구 및 담론을 조사하여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흐름과 현황을 파악한다. 시기별로 주로 다루어진 공공성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건축·도시 관련 연구에서 결과로서의 공공성에 치우쳐 온 동향을 지적하고, 최근에 다루어지고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논점을 살펴본다.

건축학, 도시학, 사회학, 시민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건축·도시 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입장에서 진단한 공공성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한다.

③ 사례연구를 통한 프로세스에서의 현대적 공공성의 실태 파악

최근 조성된 건축·도시공간 중 공공성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았거나 공공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사례들 가운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관계, 갈등의 유발 및 해소, 기본방향 및 계획내용, 관리 및 운영 등 프로세스에서의 공공성 측면을 중심으로 공공성의 실태를 파악한다.

④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증진 방향 제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건축·도시공간의 프로세스 중심의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적 요소를 도출하고 증진 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지금까지의 공공성 관련 연구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보라는 개념에서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건축과 오피스 빌딩의 공개공지 및 복합 용도 건물의 공공공지나 내부광장 등을 주된 대상으로 다루어 왔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통적 개념의 공공성 관련 사례가 아닌 다양하고 확대된 개념의 공공성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프로세스에서의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건축 및 도시학 등 건축·도시 공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야 외에 인문·사회학 분야까지 그 범위를 포함하여 공공성에 대한 이론 및 논의를 살펴본다. 사례 분석에서는 공공성 관련 지표설정을 통해 공간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조성과정에서 각 주체의 역할 및 주체 간 관계, 사회적 합의과정, 조성 후 운영 및 관리 등의 현황분석을 통해 프로세스에서의 공공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가 조성된 공간의 특징을 분석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공간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공간의 공공성을 다루어왔다면,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공간의 조성에 참여한 주체에 주목하여 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 아닌 공간 조성의 당사자로서의 사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분석한다. 또한 현재 조성된 공간이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이 프로세스에서의 논의 및 의사결정과정, 주체의 역할 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고찰한다.

지금까지의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조성된 공간에서의 공공성과 함께,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조성 프로세스와 관리·운영에서의 공공성이 연결되어, 조성 프로세스에서의 공공성-조성된 공간에서의 공공성-관리·운영에서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선순환구조를 갖출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 연구의 방법

① 문헌조사

공공성 개념 및 현대적 공공성과 관련한 이론 고찰을 위해 인문·사회학, 도시학, 건축학 등 공공성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또한 건축·도시 분야의 공공성 연구 동향 및 담론 파악을 위해 건축·도시 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학위논문을 검색²⁾하여 내용을 살펴보았다. 선정된 논문은 총 42편으로 그 중 박사논문이 2편, 석사논문이 25편, 학술발표논문이 15편이었으며, 선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공공성에 대한 해석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1990년 이후에 공공성을 직접 주제로 다루었거나 공공성과 관련이 있는 저널, 신문기사, 토론회 및 심포지엄 등을 조사하여 이와 관련한 담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② 전문가 심층 인터뷰 조사

건축학, 도시학, 사회학, 시민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³⁾를 대상으로 건축·도시 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입장에서 진단한 공공성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였으며, 면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성 개념의 전환에 대하여
-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좋아지고 있다면 어떤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어떤

2) 석·박사 학위 논문 중 논문 제목에 공공성이 포함되는 논문을 검색한 후, 설계를 병행한 석사논문과 같은 저자가 유사한 내용으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설계를 병행한 석사논문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검색은 국회도서관 논문검색 (<http://u-lib.nanet.go.kr:8080/dl/SearchIndex.php>)과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http://www.auric.or.kr>)를 이용하였다.

3) 인터뷰를 실시한 전문가는 정석(경원대 교수-도시계획), 이영철(계원조형예술대 교수-매체예술), 안창모(경기대 교수-건축계획), 홍성태(상지대 교수-생태문화), 김은희(도시연대 사무국장), 고길섭(문화활동가-지역문화), 조경진(서울대 교수-조경계획), 김병수(공공작업소 심심-지역문화), 송도영(한양대 교수-문화인류학),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건축계획)이다.

것인가?

- 공공성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례와 아쉬운 사례는 무엇인가?
- 행정, 건축가 등의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커뮤니티 및 주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 공공성의 증진을 위한 관련 주체(행정, 건축가 등의 전문가, 시민단체, 커뮤니티 및 주민)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가?

③ 전문가 설문조사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건축 및 도시관련 실무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건축, 도시, 조경 및 경관, 공공디자인 관련 실무자(113명)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담당자·도시·경관·디자인 관련 행정공무원(125명) 총 238명이었으며, 조사는 2008년 10월 15일에서 2008년 10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웹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와 이메일, 팩스를 이용한 설문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의견과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 또는 미비에 대한 의견,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개념 전환에 관한 의견 및 공적공간 및 사적공간의 경계부에 관한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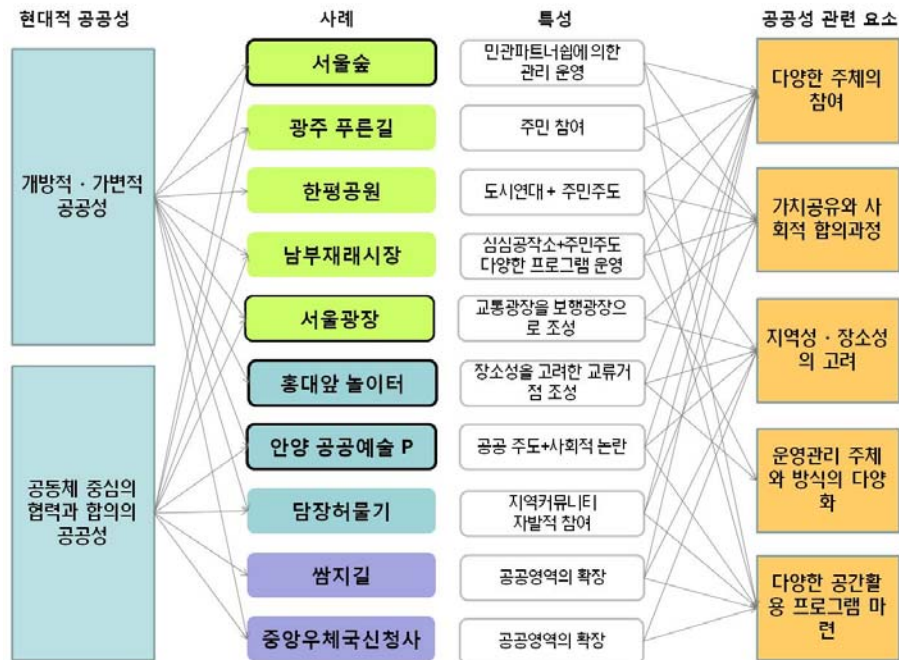
④ 공공성 관련 사례 조사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공공성 관련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 온 공공청사 등의 공공건축과 오피스 빌딩 및 복합용도 건물의 공공공간이나 내부광장 등이 아닌 다양하고 확대된 개념의 공공성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사례의 선정을 위해 우선 서울광장, 한평공원 만들기 등 전통적 의미의 공공성에서 벗어나 현대적으로 확장, 변화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패러다임을 살펴볼 수 있는 최근 진행된 공공성 관련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용산 미군부지 이전적지 활용 등 신문기사 또는 관련 저널 등 주요 매체를 통해 공공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거나 이슈로 대두되었던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 숲, 담장 허물기 사업, 인사동 쌈지길 등과 같이 관련 분야 전문가 면담에서 제시된 주요 사례와 광복로 시범가로(200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최우수상 수상), 광주 푸른길 조성사업(2006 제1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 2007 좋은건설발주자상 수상) 등 건축·도시 분야에서 공공성 확보 또는 증진과 관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주요 사례를 정리하였다.

위의 조사된 다양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조성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주체별 의견 대립 등 갈등구조가 발생하여 대립된 의견의 조정 및 협의과정 속에서 공공성과 관련한 주요한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례 중에서 다양한 공간유형이 포함되고, 공간의 성격과 조성목적에 따른 조성유형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사에 대한 관련 주체의 협조와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네 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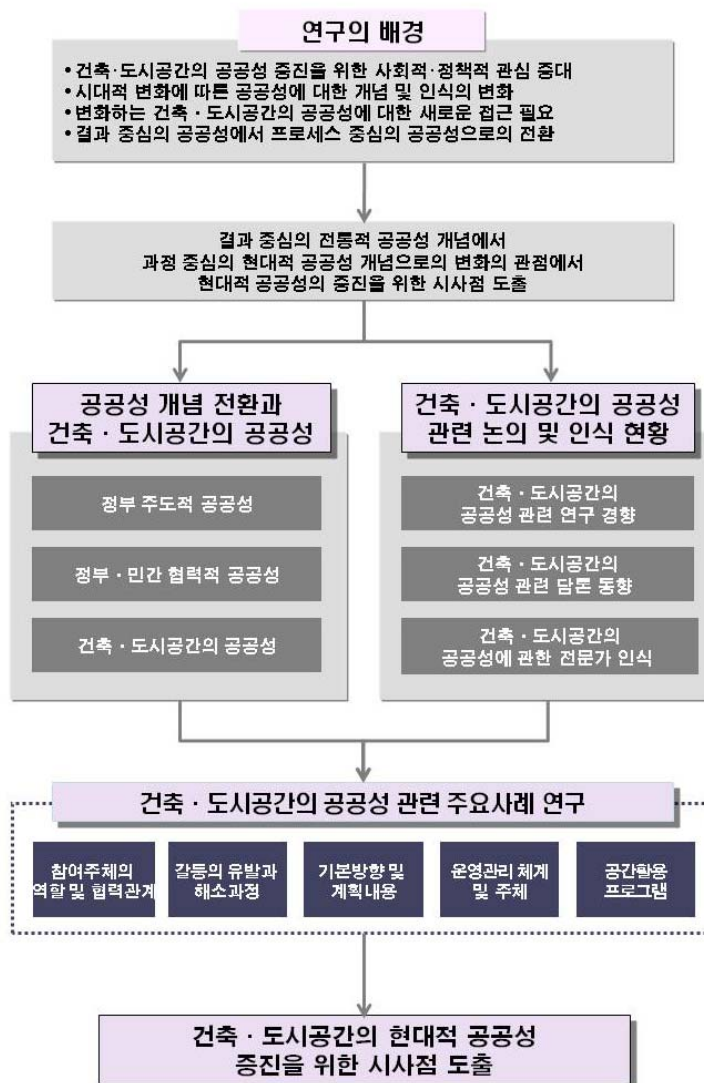
사례조사에서는 프로세스에서의 공공성과 관련한 요소를 중심으로 사례의 조성 과정과 현황을 분석하여 프로세스에서의 공공성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적으로 대상 사례와 관련한 신문기사 및 관련 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고, 조성과정 및 운영 관리에 참여한 관련 주체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행태 조사 및 공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간에 대한 이미지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공간이용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림 1〉 사례 대상 선정 과정

2) 연구의 흐름

제2장에서는 공공성 개념의 변화, 정부 주도형의 공공성 개념과 정부·민간 협력형 공공성 개념을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공공성 관련 연구 경향, 공공성 관련 담론 동향, 공공성에 대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성 관련 논의 및 인식 현황을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공공성 관련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프로세스 중심의 현대적 공공성 증진 방향을 검토한다.



〈그림 2〉 연구의 흐름

II.

공공성 개념의 변화와 현대적 공공성

1. 공공성의 기초 개념
2. 현대적 공공성 개념
3. 정부 주도적 공공성
4. 정부 · 민간의 협력적 공공성

(a u r i

공공성 개념의 변화와 현대적 공공성

1 공공성의 기초 개념

1) 공공성의 어원적 의미

공공성의 어원을 살펴보는 것은 공공성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변화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공공성은 크게 한문의 ‘公’, ‘共’, 영문의 ‘public’ 으로 그 어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한자의 ‘公’은 ‘공평할 공’으로 공평하다, 공변되다(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공평무사하다, 숨김없이 드러내 놓다, 함께 하다, 공적(公的)인 것, 상대를 높이는 말, 벼슬 등의 의미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씨족 공동체의 공동성과 수장성(首長)이 그 의미의 핵심이라 추측된다. 다음으로 ‘共’은 ‘한 가지 공’으로 함께하다, 여럿이 하다, 한가지로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한문의 어원을 살펴보았을 때, 공공이란 ‘여럿이 함께 공평하게 나누는 성질’로 공공성을 해석할 수 있다.

영어의 public은 pubes로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인 성숙성(maturity)을 의미한다. 영어단어로서의 public이 처음 사용된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사회내의 공동선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로마 공화정의 ‘공적인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전쟁을 벌이는 등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 정책 결정을 광장이라는 공간

4) 네이버 한자사전

에서 시민 모두의 참여에 의해 행해지는 넓은 범주로 도시공동체에 관계된 것을 의미한다. 17세기 말 public은 어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와 상반되는 단어인 private은 박탈을 의미하는 라틴어 privatus에서 유래되며 박탈은 부족 혹은 모자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자격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고대의 시민의 자격이 없던 가정영역의 노예, 어린이, 여성, 외국인이 공공영역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으며 인간 개념을 부여받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⁵⁾.

때로는 영어 public의 근원을 서양철학을 바탕으로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찾기도 한다. 우선 그리스어에서 찾아본다면 politeria를 들 수 있다. politeria는 원래 도시국가 구성원의 자격, ‘시민 또는 시민권의 조건이나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서 확장되어 도시국가와 운영되는 제도와 법 즉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형태와 체계를 의미한다.

한편 라틴어의 res publica는 로마 공화정의 철학자 키케로가 그의 책 De republica에서 그리스어 politeria를 res publica로 번역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이다. 이를 직역하면 ‘공공의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더 넓게는 공공재산, 국가, 공화국, 행정기구 공권력 등을 의미한다. res publica로부터 영어의 공화국(the republic), 공중(the public) 개념이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라틴어 civitas는 로마가 팽창하면서 로마에 편입된 다른 종족이 조공을 바치거나 로마법을 수용한 경우 그들에게 수여된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이로부터 시민(citizen), 시민권(civic right)의 개념이 파생되었다⁶⁾.

어원적 흐름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공공성 개념의 기초 혹은 적어도 그 근원에는 공동성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깔려있다. 공공성은 시대와 사상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사고되고 규정되어 왔다. ‘공공성’은 사회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와 국가 조직안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인식에서 부터 발생하였다. 사회구성원들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상응하는 이상적인 사회상에 의해 지금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의 문제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고 시민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그 권한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 임의영(2003),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 제 9권 제1호

6) 최태연(2008), 서양철학에서 본 공공성, 공공신학(Public Theology)세미나 자료집

2)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

공공성의 한문적 어원에 따르면 공(公)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공적, 공공’에서와 같이 국가 및 사회에 관련되는 어떤 현상이며, 둘째는 공적독점, 공적 부조와 같이 국가와 관련된 어떤 성질이며, 셋째는 국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의 자율적 속성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적 의미의 공공성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⁷⁾ 지칭되고 있다.

공공이라는 의미의 ‘public’은 영한사전⁸⁾에서 ‘공중의, 일반 국민의, 공공의, 공공에 속하는’의 의미로 공중(the public)과 같은 맥락을 가지며, ‘공립의, 공설의’라는 측면에서 공공재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또한 ‘공적인, 공무의, 국사의’라는 의미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로 규정되기도 하며 ‘공개적, 공공연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또한 영영사전에서 공공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사람 혹은 국가의 모든 영역의, 모든 사람 혹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 혹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② 정부의 혹은 정부와 관련된, ③ 공동체 혹은 국가의, 공동체 혹은 국가와 관련된, 공동체 혹은 국가에 봉사하는, ④ 인류 일반에 혹은 인류 일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⑤ 일반적인, 대중적인, ⑥ 사적인 일과는 대립되는 것으로서 회사 혹은 공동체의 이익에 관련된 ⑦ 일반적인 혹은 국가적인 복지에 헌신하는, ⑧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접근 가능한 혹은 공유된, ⑨ 일반적인 시야에 노출된, ⑩ 개방된, 잘알려진, 현저한 ⑪ 인지할 수 있는(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1981)⁹⁾

이러한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주체적 측면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모든 사람, 공동체, 사회전반 등에 걸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성질에 의해서도 국가 기관에 관련된, 모두에게 열린, 일반적인, 인지할 수 있는 등의 각기 다른, 여러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공공성이 가진 의미를 바탕으로 볼 때, 공공성이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닌 일정한 사회의 실체 즉 국가나 사회 등의 공공영역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공통점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7)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8) 에센스(Essence) 영한사전, 2000

9) 임의영(2003), 앞의 책, 27쪽

3) 분야별 공공성의 의미

‘공공성’이라는 용어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1) 타 분야의 공공성

① 경제학에서의 공공성

공공성(publicness)이라는 용어는 개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공공성(publicness) 대신 공공재(public goods)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공공성 영역을 경제적 관점에서 편향하여 설정하는 정부역할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비경합성(non-competitiveness)과 비배타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공공재는 재화의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공공재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혼잡이 없는 일반도로의 경우 공공재이지만 혼잡이 발생할 때는 경합성 성격을 가지므로 공유자원(common)이 된다¹⁰⁾.

② 방송에서의 공공성

방송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만족시키는 순수한 공공재임에도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예가 많은 분야이다¹¹⁾. 방송을 시청하면서 시청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공공성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고 볼 때, 결국 방송의 공공성이란 진실성, 공정성, 다양성, 유익성으로 정의 될 것이다. 언론이 단순한 이윤추구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의견의 다양성과 그 수렴을 근거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¹²⁾.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송 규제의 근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③ 교육에서의 공공성

사회구성원은 발달의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태어나며 인간발달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교육은 사회구성원 모두와 관련되는 실천행위¹³⁾를 교육의 공공성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통된 교육 내용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하나로 통합

10) 현진건(2008), 공공성 논리의 허구, 제1차 정책토론회 발제문

11) 현진건(2008), 앞의 발제문

12) 김종서(1999), 방송의 공공성과 그 구현방안,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3) 김상조 외(2007),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국토연구원

하는 것에 교육의 공공성이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이성적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로써 담화를 통해 공동선에 관해 이성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집합체인 공중(公衆)을 길러내어 교육의 혜택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논하기도 한다. 보육의 공공성은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정치학에서의 공공성

정치학에서는 특수한 이익 또는 사익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일반성을 지니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또는 사회구성원의 평균적 이익으로 공익성의 개념과 유사하게 공공성을 정의하고 있다¹⁴⁾.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공공성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조화를 내용으로하는 이념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는 공공성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¹⁵⁾.

⑤ 법학에서의 공공성¹⁶⁾

법학적 시각에서 공(公)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체제 하에서 정부가 국민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하는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한 개념이다. 법학에서의 공공성은 권위적 공공성과 참여적 공공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권위적 공공성’은 공적인 것은 모두 국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지배권을 독점하고 국가에 의해 공적인 것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참여적 공공성’은 사회적 단체들이 국가기관과 함께 정치적 공동체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원리로 정치적 공동체가 달성해야할 목표와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⑥ 의료에서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은 국가(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기관을 통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서비스로서 영리목적의 이윤 추구적 민간성을 지양하고, 사회일반이나 공중의 목적 즉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나 사업을 우선 하는 것¹⁷⁾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나 정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 수익률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14) 최기원(2005),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구민회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이영주(2005), 방송공공성의 구조변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 이영주(2005), 앞의 논문, 재인용

17) 김향자(2004), 공공성의 개념과 의료의 공공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정책학 교실 세미나 자료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의료라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재로 여겨질 수 있다.

⑦ 역사학에서의 공공성¹⁸⁾

역사학에서 공공성은 국가권력의 사사화(私事化)를 견제하는 과정을 통해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고자 하는 경향과 시민사회 내에서 합리적 소통을 정립하고자 하는 경향을 바탕으로 공공성이 정립되었다. 따라서 사적 국가에 대응하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자기구성적 권력을 강조하는 성격을 갖는다.

⑧ 환경학에서의 공공성

환경학에서의 공공성은 누구라도 환경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느 개인이 이익을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통해 나오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¹⁹⁾.

⑨ 윤리학적 공공성²⁰⁾

윤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공공성이란 사회정의(social justice), 공익을 의미한다.

⑩ 행정학에서의 공공성

행정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정부와 시장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행정학에서의 공공성은 정부와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이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투입만하면 공공성이 있는 것처럼 한정하는 등 공공성 영역을 경제적 관점에 편향하여 설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공과 사의 부문이 희미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공공성에 대한 정의들을 모두 포괄하는 추상적인 정의보다는 다양한 층위의 공공성 개념들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층위의 관계에 의해 새롭게 변화는 공공성의 의미가 더 주요할 것이다.

(2) 건축·도시 분야의 공공성

① 건축의 공공성

건축의 공공성이란 첫째, 모두(公)에 대한 건축의 태도(公性)와 둘째 함께

18) 정은희, 문화와 사회운동 : 시장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공공성 운동, 문화과학 60호

19) 김상조 외(2007),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국토연구원

20) 이영주(2005), 방송공공성의 구조변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함(共)에 대한 건축의 태도(共性)라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의 공공성은 ‘나만을 생각하고 따로따로 닫힌 건축이 아닌 모두를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²¹⁾’에서 나타나며 이를 보여주는 예로써 공개공지를 들 수 있다. 공개공지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미흡함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개공지가 가지는 의미는 건축의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건축의 공공성은 구체적인 건축공간을 통해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 쾌적성을 높여 체류성을 획득함으로써 사적인 개인들이 긍정적이고 원활한 하나의 ‘공공’을 형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공집단이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이전에 올바른 관계를 통해 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체간의 최적의 의사소통상태를 이루도록 하는데 초점²²⁾이 있음을 나타낸다.

②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공공성²³⁾

도시계획에서 공공성은 도시공간 즉 토지와 건축물의 공익적 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이 건전하고 안전한 도시활동을 위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공재로의 성격을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도시민들이 인간다운 도시생활을 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소비재들은 크게 사적소비재와 공적소비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공적소비재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즐길 수 있는 재화로서 공원, 등대와 같이 어떤 사람이 재화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사용하는데 있어 그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③ 건축기본법에 나타난 공공성 개념 :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은 건축의 공공성 가치의 구현이며, 기본이념은 건전한 일상 생활공간을 위한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자산의 충실성을 위한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그리고 문화와 지역성의 존중을 위한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의 실현에 있다. 이는 건축의 모든 사회적 역할을 공공성에 기반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세가지 공공성을 갖춘 건축이란 건축물과 이들의 집합체가 이루는 공간환경 및 이를 만드는 과정의 창의적 행위로 정의한다. 하지만 현 건축법에서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건축을 개별 건축물로 인식하고 단순히 시공하는 성능적인 정의이다.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공간 환경을

21) 정석(1997), 건축의 공공성과 도시건축가의 역할, 건축

22) 최기원(2005), 앞의 논문, 재인용

23) 김상조 외(2007),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국토연구원

포함한 도시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경계를 함께 공유하고 개방하는 것으로서 공공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건축의 공공성과 도시의 공공성이 별개가 아닌 것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논점으로 공공성’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논점의 기저에는 사회구성원 또는 특정분야를 아우르는 공간과 영역이 존재하며, 이러한 영역 또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들이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독점되어지지 않고 다수에게 배분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현대적 공공성 개념

1) 공공성 의미의 재해석 : 공적, 공정, 공익, 공론적 공공성

오늘날의 ‘공공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논의되면서 그만큼 다양한 의미로 해석²⁴⁾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성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적인 이익을 전제로 하는 ‘국가 혹은 정부 등의 공공기관에 의한 행위’이며, 둘째는 공익을 전제로 하는 공적인 영역, 공적인 대상, 소유물, 행위, 공동소유, 공통적인 접근성을 고려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일반사람들에게 공통되고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행위’이며, 셋째는 공개성, 공시성, 가시성의 양호함을 의미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접근이 용이한 성질’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적’ 측면에서의 공공성 : 국가 혹은 정부 등의 공공기관에 의한 행위

이는 대체로 행위의 주체에 관계된 것으로 정부와 시장을 각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짓는 행정학과 관련 깊은 개념이다. 여기서 공적인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즉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일체로 규정되며 이는 법적이

24) 예를 들면 이영주는 본인의 연구(방송공공성의 구조변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에서 임의영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공성을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재해석하자면, 공공성은 우선 행위의 주체와 관련된 개념이다. 즉 국가 혹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 일체를 공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공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갖는다.

두 번째 정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공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다수의 낮은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동시에 관계하는 경우를 공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은 공중(the public)이다.

세 번째 개념은 정부나 국가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활동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친밀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공식성(officiality)을 의미한다.

네 번째 개념은 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공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공공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공익성의 실체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공익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토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이 규범적이며 가치추구적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성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만 견지될 수 있는 윤리적인 내용이나 가치를 말한다.

다섯 번째 개념은 접근가능성(accessibility)과 공유성의 의미를 갖는다. 공공성은 공공재(public good)와 관련되며, 모든 사람들의 접근가능성과 공유성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성은 개방성과 공시성(publicity),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이영주, 2005: 76-77쪽)

고 제도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것에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는 공권력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공권력은 단순히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권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은행이나 대기업과 같은 믿을 수 있는 민간기업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의 의미는 공과 사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의미는 점차 흐려지고 있다.

② ‘공익’적 측면에서의 공공성 : 다수의 일반사람들에게 공통·보편적으로 관련되는 행위

이는 행위의 주체와 목적에 관련된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우선 행위의 주체로 보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the public), 정부와 국가만의 전제가 아닌 사회전반에 적용되는 경우(officiality)의 개념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영진(2003)²⁵⁾은 공공성을 ‘전체 또는 다수에 관한 일(public as group affairs)’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공통’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행위의 목적에 관련된 개념으로 보면 공공성은 다수의 일반사람들의 이익을

25) 소영진(2003)은 본인의 연구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5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전체 또는 다수에 관한 일(public as group affairs) : 이는 개인 또는 가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회학이나 매스커뮤니케이션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공영역(public sphere)의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의 공공영역은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모두를 포괄할 수 있다.

둘째, 권위(public as authority) : 공공성을 권위와 관련시키는 개념이다. 예컨대,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하면 정부 뿐 아니라 은행이나 대기업과 같이 믿을 수 있는 민간조직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공’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공권력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권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셋째, 정부(public as government) : 행정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정부와 시장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공과 사 부문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넷째, 전유불가능성(public as non-exclusiveness) : 경제학에서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non-competitiveness)을 가진 재화를 의미한다. 즉 전유가 불가능하여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에서의 공공성은 비전유성이란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이타성(public as altruistic interest) : 교육이나 언론, 의료 등의 공공성을 논할 때, 이들 부문이 전적으로 이익추구와 이윤동기에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익추구에 맡길 경우 지불능력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 서비스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공공성이란 곧 비이익성을 의미하고 사회성을 이기적 욕구충족 활동이라 한다면 공공성은 이타성 또는 공익성이라 할 수 있다.

위한 즉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공공성을 갖는다고 개념 짓는다. 심광영(2000)²⁶⁾은 공공성의 공익적 측면을 특정 집단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임의영(2003)은 공익 측면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지속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며 토론의 내용은 규범적이며 가치추구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말한다.

③ ‘공정’적 측면에서의 공공성 :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접근이 용이한 성질

공공재는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접근이 용이한 성질을 가진다. 공공성은 공공재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며 임의영(2003)의 연구에서 공공성은 접근가능성(accessibility)과 공지성(publicity)의 의미를 가지며 정보의 접근성도 이에 포함된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소영진(2003)은 전유불가능성(public as non-exclusiveness)과 이타성(public as altruistic interest)의 개념을 통해 공공성의 ‘공정’적 측면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성은 공정성과 형평성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는 이익,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규명되고 있다.

④ ‘공론’적 측면에서의 공공성 : 문화적 측면의 공론적 자율성

기준에 정의된 공적, 공익, 공정의 개념에 심광현은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나 단체에서 두루 관계되거나 이용되는 성질’, 또는 ‘공설의’, ‘국사나 공무와 관련된’, ‘공공연하고 공개적인’, ‘소문난, 모르는 사람이 없는’이라는 뜻에 주목하여 공공성의 ‘사회적 평등성’과 ‘공론적 자율성’에 그 가치를 두었다.²⁷⁾ 그 중에서도 후자, 공론적 자율성에 더 무게를 두어 공공성에 문화적 관점으로 공론의 측면을 추가하고 있다.

심광현은 현대적 공공성이 정치적으로는 공정성, 경제적으로는 공익성, 문화적으로는 공론성을 가진다고 해석하며 정보의 공개, 자유로운 접근,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권위나 음모가 아닌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한 지식·담론 생산과 소통의 장²⁸⁾이라고 표현한다.

26) 심광영(2000), 노동운동과 공공성, 문화과학 23호, 78쪽

27) 심광현(2007), 공교육 재개념화와 교육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제6회 전국참교육실천보고대회 정책마당 자료집

28) 심광현(2007),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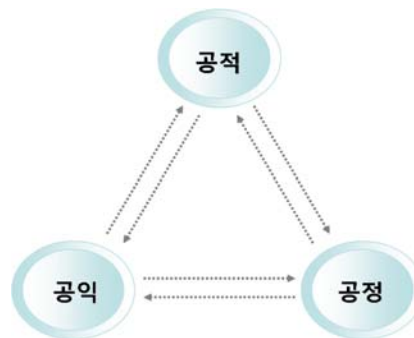
2) 현대적 공공성의 확장성과 다층성 : 결정불가능한 정의

① 현대적 공공성의 특징 : 공공성 개념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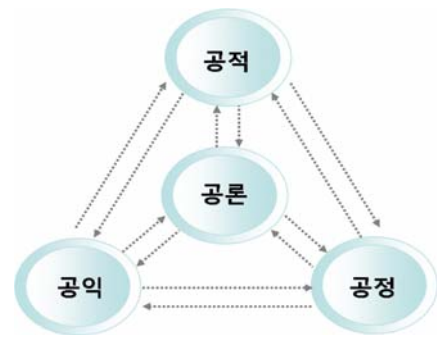
오늘날의 공공성은 공적, 공익, 공정의 개념에 공론의 개념이 더해지고 그 비중이 커지면서 공공성을 향유하는 주체인 시민의 요구와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공공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공성으로 개념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론적 공공성의 주체는 곧 새로운 공공성의 주체가 되며 다른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시민들과 함께 공공성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공공성의 주체인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이 아주 미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또는 정부는 여전히 공공성 증진에 매우 중요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므로 공공성 증진에 있어 국가 또는 정부는 ‘관리에서 지원과 파트너로서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성을 현대적 공공성이라 하고, 시대적 배경과 새로운 형태의 공공재의 등장으로 인해 ‘소유와 재정’에서 점차 ‘운영과 구체적 결과’까지의 공공성 구현과정²⁹⁾이 점점 중시되고 있으며 이는 참여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⁹⁾. 이는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퇴색된 공공부분의 공공성을 복원하고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운영과정의 공공성 등 공공부분의 실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접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공론적 공공성의 협력적 성격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는 지원적 공공성이라 하며 공/사가 함께 하는 다양한 주체로, 결과에서 과정으로, 고정에서 개방으로 확장된 것이 현대적 공공성의 특징이다.



〈그림 3〉 상호보완적·선순환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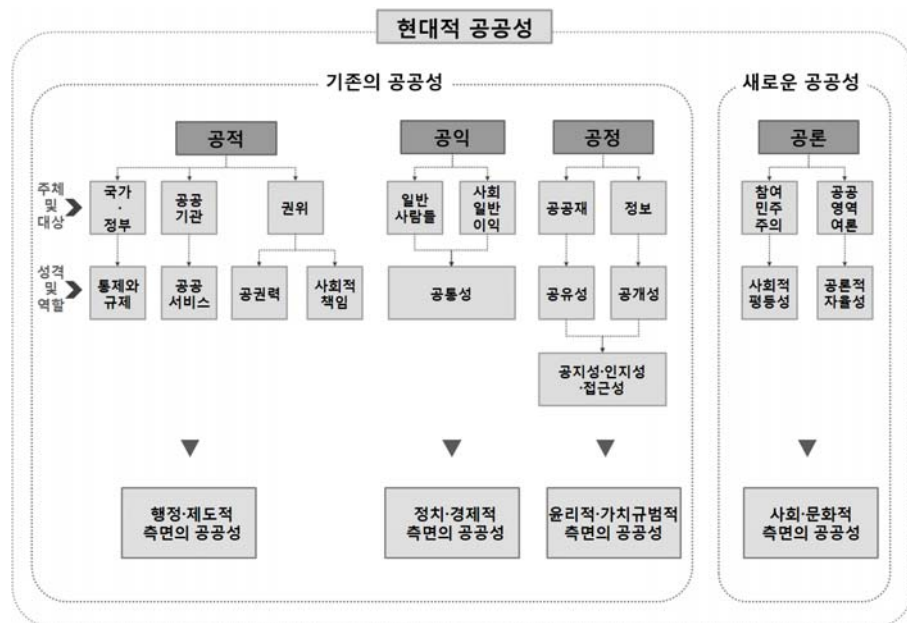
〈그림 4〉 공공성 개념의 확장 : 현대적 공공성

29) 이는 고길섭(2000,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로지르기 :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정치, 문화/과학 23호), 신광영(앞의 논문), 오건호(2006,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 확대전략 : 공공성과 한국 사회의 진로, 참여사회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참여사회연구소) 송유나(2005, 에너지 사회공공성, 진보평론 25호) 등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② 결정 불가능한 공공성의 정의

공공성은 사회 일반의 공공선을 담지하는 주체, 가치, 규범, 법률, 정책 등에 의해 분류될 수 있지만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개념상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의미의 중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 또한 고정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추가·분할·재배치되며 시대적 상황과 평가주체 및 여러 주변상황에 의해 달라진다.

하지만 현대적 공공성의 특징은 그 자체로 결정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협력 과정에 의한 공공성은 끊임없이 협의에 의해 변하고, 다양한 주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공공성이란 무엇이다’ 라는 식의 정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즉 보편타당한 공공선이란 불가능하며, 같은 상황이라도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와 과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측이 불가능하고 고정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대적 공공성은 동일성과 전체성을 버리고 다양성과 차별성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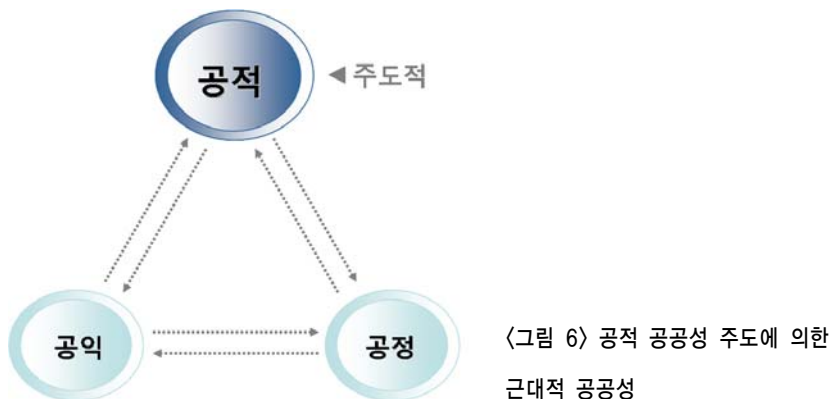
〈그림 5〉 공공성 개념의 확장

정부 주도적 공공성 3

1) 공(公)의 공공성

① 공공(公共)성에서 공(公)의 헤게모니로

공(公)은 사사롭지 않고 정당하며 치우침이 없고 공평한 것을 의미하고 국가 및 사회와 관련된 현상과 국가와 직접 관계없는 사회의 자율적 속성을 모두 지칭한다. 하지만 근대는 사회운영 주도원리로 관리장치를 사회전반에 확대하여 공공성이 획일화 되어 버린다. 이것은 성과를 지향한 행정관리형 공공성으로 정부 주도적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대적 공공성은 공공(公共)의 의미 가운데 공(公)이 주체가 되고 강조되며, 공(共)은 결과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2) 근대적 공공성의 조건으로서 공·사이분법적 공공성

① 공사분리에 따른 국가 중심활동의 공공성 : 배타적·획일적 공공성과 수직적·종속적 공공성

공공영역과 사적, 공적이라는 개념은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과정에서 공과 사의 영역분리를 통해서 확립된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등장과 계약적 관계가 사회의 주요 영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시장영역은 공적 영역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기적이며 비인격적인 관계가 지배하는 공간으로서 공적 영역이 된다. 이와 함께 가족애, 사랑, 우정 등과 같은 친밀성의 영역이 사적영역으로 자리매김 된다.

이러한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은 가시성과 비가시성, 접근의 개방성, 행위자의 지위, 개인과 집단 등 네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³⁰⁾.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은 공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숨겨져야 할 것은 사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둘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이 개방되면 공적인 것이고, 소수에게 접근이 제한되면 사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셋째는 공동체나 국가를 위해 행동하면 공적인 것이고, 행위자 자신을 위하면 사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넷째는 집단이나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은 공적인 것이고, 개인적이거나 개인과 관련된 것은 사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공과 사의 이분법은 특히 남성을 공적주체, 여성을 사적주체, 즉 정치 및 경제 활동을 공적영역으로 가사의 영역을 사적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분류함으로써 각각의 활동 영역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적 상황의 공공성은 보편적인 전제하에 “확일적이고 배타적인 공공성”을 만들어 남녀 불평등적 공공성까지 산출해 낸다.

또한 공과 사를 구분한 세 번째의 경우를 공식적인 것과 같은 의미의 공공성으로 이해될 때, 국가 또는 정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권력과 권위의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된 범주의 활동으로 국한된다. 이의 경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명확한 구분 속에서 공적 영역을 국가로 사적 영역을 사회로 구분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가 또는 정부가 행하는 활동은 곧 공식적·공공적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비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적인 것으로 이해된다.³¹⁾

그러므로 공과 사의 이분법적 공공성은 항상 불평등적 관계와 지배 종속의 관계를 고착화시킴으로서 생기는 “종속적 또는 수직적 공공성”으로 상호 동반적 관계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노출한다.

② 근대 행정관리형의 권위적·일원적 공공성

행정관리형 공공성은 공공의 복지를 목적으로 한 공공사업이나 사회자본의 정비 등에서 보여지는 사권의 제한 같은 것으로 공권력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의 공공성이다.

30) 이승훈(2008 상반기),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도시출판 한울, 15~17쪽

31) 백승현(2002), 방송 공공성의 구조변동 연구, 97쪽 재인용

국가 또는 정부가 행하는 활동이 곧 공식적인 것 공공적인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국가주도 행정관리형 공공성’이라 한다, 이는 근대사회를 이끌어온 성과지향적인 기능주의적 이성에서 유래한 통제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전체화를 위한 공공성이다. 그래서 이는 합의형성에 의한 동일성을 추구로 이어지며, 이러한 시스템이 확산되면 공공성이 획일화·일원화 된다.

③ 국가주도의 사회인도적(Social guidance) 계획 패러다임³²⁾

1960년대는 국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경제개발을 경주하는 “공리주의 가치관의 시대”로 경제정책, 사회복지사업 토지이용과 지역개발 환경관리 도시기반시설 등 시장과 시민사회에서의 공동의 목적과 공공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분야에 국가가 개입하던 시기이다.

1960년대이후 8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은 본격화된 근대화 또는 경제개발 추진과정이다.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개발계획에 기반하는 사회인도적 공공계획은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특히 국가(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인도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계획³³⁾을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하기위한 활동 또는 수단으로 보는 입장에서의 계획영역은 전체적인 공공의 영역과 일치한다. 우리나라 공공계획은 강력한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의 권위를 위임받은 기술관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영역을 구축하여 진행 되었다.

그러므로 계획은 과학적 지식을 공공업무에 적용하는 전문적 책임이며 집행적 기능이다. 따라서 국가가 조정과 권위적 역할을 보유한다고 이해하고 국가의 강한 역할을 옹호했다. 하지만 그 수단적 합리성과 방법론의 추상화로 현실과 유리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제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경제성장 우선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중앙집권(하향식)적 공공계획이라는 현상설명이 가능하며, 사회인도적 패러다임은 관료적 권위주의로 불리는 억압적인 정치체계 하에서 공공계획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32) 문정호외(2006),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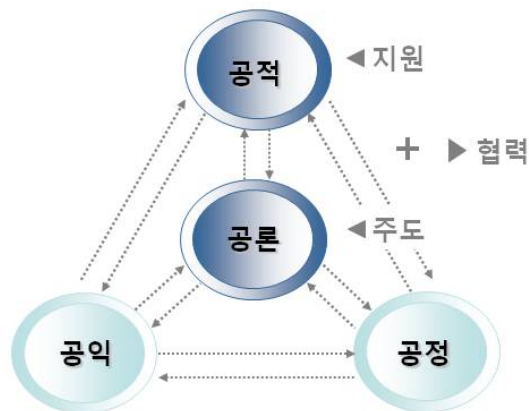
33) 계획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모든 계획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결정하고 그런 행동에 따라 미래를 변화시키고자하는 목표를 가진다는 점인데 여기서 1. 미래 예측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과정적 수단적 요소와 2. 결과가 공공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의 규범적 사회 정의적 요소가 묵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정환용, 2001, 14쪽)

4 정부·민간의 협력적 공공성

1) 공(共)의 공공성

공공(公共)이라는 개념에서 공(共)은 ‘여럿이 함께’라는 의미와 ‘공동(com-mon)’이라는 특정인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것 또는 공통되는 일’이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공통(common)이라는 단어에는 ‘둘 이상의 사람이 평등하게 가지는, 공유의, 공동의’라는 의미와 ‘협력의 협동’의 의미가 연결된다.

그래서 우선 공(共)이라는 개념에는 공통성과 공유성, 평등성 그리고 공동성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com-이라는 의미계보를 고려해 보면 공동체(communit)와 또한 어원을 함께 한다. 한 공동체 안에서 모두 함께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만드는 합의적, 협력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가진 공(共)의 의미가 강조되는 공공성을 현대적contemporary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공(共)이 내포하는 모두 함께 만드는 참여적 공공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민간의 협력적 공공성이란 추상적인 민간과의 협력관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민간으로서 지역시민과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의미한다. 현대적 공공성의 특징은 수평적·지역적·협력적인 공(共)의 의미가 기반이 되고 주체가 되며, 공(公)은 이를 지원 또는 확산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한다.



〈그림 7〉 공론적 공공성의 주도와 공적 공공성의 지원에 의한 협력적 공공성

2) 현대적(contemporary) 공공성의 조건으로서 개방적·가변적 공공성

① 각 영역의 폐쇄성을 “사회로 개방”하는 열린 공공성

공공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이고 독일어로 “Offentlichkeit” 라 하며 어원은 “열려있는” 으로 개방성을 의미하며 현대적 공공성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거의 해체되어 있는 현대사회처럼 공과 사의 구분이 사라지면 공공성은 국가나 정부의 전유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전환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이 전화되는 공공성은 기존의 정부나 그 권위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공공성의 주체는 국가나 정부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모든 사회적인 행위의 주체를 포함하게 된다. 즉,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닌 모두 함께 하는 공공성의 개념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모두 함께하는 공공성은 우선 공과 사의 구분이 해체됨으로서 시작되고 모두에게 개방적인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 시민, NPO, 기업 등 모든 주체가 “사회로 개방” 하여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사회적 자본(공공시설, 열린 네트워크,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전문지식 등)이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는 것이 새로운 공공성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② 경계의 유동성에 의한 열린 관계와 수평적 관계

공과 사의 구분을 해체한다는 것은 공과 사를 동일시한다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공공영역을 사적 이해관계로 도구화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선과 관계망을 새롭게 확정하고 구축하는 것이라고 고길섭은 지적한다.

새로운 관계망의 구축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고정된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작용하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경계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과 사의 관계는 불평등한 지배종속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첫째, 수평적 관계란 모두에게 열린 공공성이며 이는 누구나 상황에 따라 공공성을 실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모두 함께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공성의 개념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열린·수평적 공공성이란 미리 주어진 것이 없는 만드는 공공성으로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특징을 가진다. 둘째로 수평적 관계는 공공성을 규정하는 관계의 절대성이나 획

일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대적, 지역적 또는 공동체적 공공성의 의미와 실행의 주체들이 다양하다는 의미로서 이는 공공성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3) 공동체 중심의 협력과 합의의 공공성

① 생활세계에 기반한 지역적 공공성으로서 합의의 공공성

세계화는 근대성의 현재적 전개과정으로 일상적 사회생활의 시·공간적 축이 지구적 규모로 재편되어 가는 변화과정을 의미한다³⁴⁾. 세계화 과정은 이와 함께 지방화(localization) 과정을 촉진시킨다. 또한 세계화는 전세계의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일화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지역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차별화 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방화는 세계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상황을 강조하고 지역내 역량을 총 동원하는 과정이다.

지역은 곧 지역·장소의 일상생활이 전세계의 경제적·정치적 체계에 그대로 중첩되는 공간이며 이로써 지역의 새로운 장소의 가치는 이러한 중층적 상황을 통합화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지역은 이제 단순히 발전/저개발의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계화와 직접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에 따라 다원화되고 유동적인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지역은 현대의 공공성을 형성하는 실현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은 공통의 이해감정에 기초한 문화적 요소와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성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의 사회적 수요를 함께 담아내는 지역의 공공성이며 합의의 공공성이다.

②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공동체 주도적 공공성 : 협력적·과정적 공공성

지역의 새로운 변화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반면 지자체의 역량은 강화된다. 그러므로 국가 주도의 이념적인 관리시스템과 생활세계라는 사회의 이중구조 위에 세워진 중앙행정 관리적 차원의 권위적 공공성은 이제 지원체계로서의 공공성으로 그리고 공동체 주도의 주민 협력적 공공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34) 최병두(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196쪽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변화는 과거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역할에서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정치 체계에서의 지방정부와 더불어 자본 영역에서의 기업과 시민사회 구성원인 시민집단간의 관계 또는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공적·사적 영역의 구분 없이 협력과 참여라는 상호관계를 통해 도시 및 지역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추진해 나아가는 방식을 지칭³⁵⁾한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관계변화는 공·사 이분법적 논리로써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새롭게 전개되는 관계의 변화는 1990년대 이후로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협력과 합의를 토대로 하여 기존의 정부 중심 또는 시장 중심의 정책결정 과정의 틀을 뛰어넘는 대안적 통치 및 관리체계로 부각된다.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개인과 NPO/NGO, 기업, 행정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고 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이 대부분의 공공을 담당하고 민간이 보완하는 과거의 관계에서 행정과 NPO/NGO, 기업 등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며, 특히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의 역할이 어느 한 주체에 의해서만 주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주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나 일상성 회복을 통해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게 되고 이러한 인정은 지역성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공동체적 공공성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공공성은 여가, 문화, 정치, 경제, 복지 등에 걸쳐 삶의 생활양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이와 다양한 공동체적 공공성³⁶⁾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 또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다양한 지역문화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중심의 공공성은 이제 주어진 영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진 사회적 공공공간으로 인식하고, 주민들이 상호관련성을 자각하고 이러한 자의식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공공성을 형성하는 협력적 공공성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는 합의에 의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5) 최병두(2002), 앞의 책, 146쪽

36)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서 활동적인 삶이란 공공영역을 동일성·보편성에서가 아니라 차이·다양성에 기초하는 공공성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고길철,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정치 :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로지르기)

4) 합의와 협력을 통한 유연적 계획 패러다임³⁷⁾으로의 전환

① 쌍방향적 의사소통과 거버넌스의 합의적 공공계획

사회를 보는 관점도 과거의 공리주의적 관점을 보완하여 각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사회계약론적 가치관”³⁸⁾을 중요시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 경제적 풍요, 정보화, 세계화·지방화의 과정 속에서 권위주위에 대한 저항으로 이루어진 민주화의 진전으로 합의와 협력 지향적이며 균형과 환경보전 그리고 복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공공계획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기술적·전문적인 공공계획으로부터 정치·경제적·지역적·사회적인 이해관계나 사회적 합의 등을 반영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 시기 공공계획의 핵심은 시스템 분석과 예측에 의한 통제가 아닌 의사소통과 협상에 의한 합의이며 전통적인 계획적 합리성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이해와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력과 참여가 우선한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이제 중앙정부의 하향식 관계에서 상향적 또는 쌍방향적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던 지역의 문제들을 민간 부문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파트너십으로서 주민참여는 주민에게 참여권만 부여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주민이 계획과정에 참여함과 동시에 계획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지할 때 보다 효과적인 상향식 계획실천이 전개된다.

이러한 의사소통(참여 혹은 협력)행위는 공공계획의 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서 계획가, 정치가, 개발자 그리고 공중이 참여하여 다양한 대화와 논쟁과 협상을 거치는 실제적인 심의 과정이다. 이때의 계획가는 타당공론적 분석가가 아니라 공공적 담론과 사회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실행가로 이해된다³⁹⁾.

② 과정으로서 유연적 계획 패러다임

유연적 계획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지역주민 주도적 계획에 정당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력적 계획은 장기적이고 고정된 결과로서의 계획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합의과정의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유연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

37) 임서환외 5인(2006),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모색, 주택도시연구원, 83쪽

38) 박재길(2006), 한국도시계획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방향, 국토연구원, 14쪽

39) 문전호 외(2006),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37쪽

르므로 유기적 계획은 유기체처럼 계속 변화하고 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전략적이어야 하며 선순환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근대의 계획 패러다임은 전문가 집단이나 권력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일방적인 틀을 마련하고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제 계획은 하나의 거버넌스 활동이며, 지역의 문제와 관심사항을 협력해서 다루는 전략적 접근으로서 사회적 관계 및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결국 유연적 계획 패러다임에서 합리성은 계획가와 주민이 함께 상호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표 1〉 전통적 계획과 유연적 계획과의 차이

구분	전통적 계획	유연적 계획
이념	국부론 국가발전이 곧 지역발전	향부론 지역발전이 곧 국가 발전
계획과정	정부주도 하향식	커뮤니티 주도 쌍방향, 상향식
계획구역	행정구역 등 대규모 단위	커뮤니티 의회에서 정한 구역 또는 마을단위 등 소규모 단위
계획범위	부서별 계획토지이용, 교통, 인구, 산업 등	커뮤니티 특성에 따른 구분 경제개발 공공안전 서비스 여가 공지 주택 역사 예술 문화 등 다양
계획주체	1회적 계획만 수립하는 계획가	지속적으로 사업까지 추진하는 계획가
참여범위	계획가 또는 전문용역업체	계획과정에 커뮤니티 구성원 참여
계획내용	도시계획 토목시설계획 위주	커뮤니티계획 콘텐츠계획 위주

출처 : 임서환 외(2006),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모색, 84쪽,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소

③ 참여형 공공계획의 문제점 및 시사점

의사소통적 참여형 공공계획에서는 계획과정에서 계획가의 의사소통적 행위가 부분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⁴⁰⁾. 또한 협력 및 합의의 결정은

40) 계획의 실제집행과정에서 비판되어지는 참여형 공공계획이론의 문제점

1. 계획과정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행위의 부분적 역할
2. 의사소통적 이론 시민들의 가치와 선호들을 본질적으로 보다 고귀하게 본다는 측면에서 다소 간 낭만적 경향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것과는 별개라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계획에서 상호 의사소통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계획에 실제로 유용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합의구축과 같은 절차상의 방법과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참여형 공공계획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3. 합의한 결과이외의 대안에 대한 고려 부재
 4. 중재 협상과 합의구축과정과 실제합의에 도달하는 성공과정의 별개성
 5. 도출된 합의 이후에도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영향력
 6. 합의의 내용적 측면보다 지나친 절차적 측면의 강조
 7. 문정호 외(2006),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39쪽

III.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논의 및 인식 현황

1.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연구 현황
2.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담론 동향
3.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논점과 과제
4.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성 인식 현황

(a u r i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논의 및 인식 현황

1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연구 현황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도시브랜드 시대를 맞아 공간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서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연구들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측면의 연구는 2000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현황을 공공성 개념, 공공성 연구의 대상, 공공성 평가 방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공공성’ 및 ‘공공영역’의 개념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연구에서, ‘공공성’ 개념에 대한 해석은 연구마다 새롭게 정의하기 보다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건축·도시 분야의 공공성에 대한 초기 연구라 볼 수 있는 정석의 연구⁴¹⁾에서 정의한 내용이 이후 연구에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정석의 연구에

41) 정 석(1994),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 방안 : 서울시 고층 오피스 빌딩의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서는 건축의 공공성을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와 결부시켜 ‘모두-함께-열린’에 대한 건축의 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⁴²⁾.

최근에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가 모호하며 공간의 소유주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따라서 ‘공(公)’과 ‘사(私)’의 구분이 변화한다고 하는 ‘공공성의 경계 모호성’을 전제로 하는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임상진(1997)과 김진욱(2003), 이윤희(2005), 이창훈(2006) 등의 연구가 있다⁴³⁾.

임상진은 공공성을 ‘공간을 매개로 인간의 생활과 의식이 서로 만나고 의사소통하는 관계이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과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김진욱은 ‘도시공간 안에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소유한 사적건물의 도시와의 관계가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공간에서의 행위와 관계에 따라 공공성이 규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윤희 역시 공공성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관계이며 공간적으로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떠나서 그들 간의 경험과 공간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창훈도 사(私) 또는 공(公)이라 이름 지어진 경계를 만들기 보다는 존재하는 공간에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맞추어 영역을 형성해 나가, 행위가 개인적인 것이면 사적 영역이 되고 공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공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공적영역, 사적영역이라는 것이 소유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간에서의 행위와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 공공영역의 경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건축·도시공간 관련 연구에서 공공성을 언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공공영역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공간의 소유주체가 공(公)이나 사(私)이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공간에서의 행위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해짐으로써 공적-사적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42) 정석이 정의하고 있는 ‘건축의 공공성’은 엄밀하게 ‘건축 외부공간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의미하고 있다.

43) 임상진(1997), 「‘건축적 공공성’의 구현에 관한 연구 -H.Hertzberger와 F.Maki 건축 이론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진욱(2003), 「도시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업참여 건축물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이윤희(2005), 「현대도시에서 공공성을 반영하는 인지도와 이를 토대로 한 디자인에 관한 연구 -미디어, 속도, 움직이는 신체를 반영하는 인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이창훈(2006), 「건축물의 오픈 스페이스를 통한 ‘공공성’ 증진에 관한 연구 -건축물 주변 공개공지와 내부 공개공간을 중심으로-」

〈표 2〉 공공성 및 공공영역에 대한 개념 관련 연구

개념 구분	저자(년도)	논문명	공공성 개념 정의
모두-함께-열린에 대한 건축의 태도	정석 (1994)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 방안:서울시 고층 오피스 빌딩의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 함께에 대한 건축의 태도 열린에 대한 건축의 태도
	한상운 (2000)	도심형 사무소 건축의 저층부 공간분석에 따른 공공접근성과 개방감에 관한 연구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 함께에 대한 건축의 태도 열린에 대한 건축의 태도
	최희원 (2000)	설계자의 의식에 근거한 공개공지 평가지표설정에 관한 연구:도시의 공공성 측면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계된 열린 마음이나 태도로서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것
	임명구 (2002)	건축 외관 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자신의 이익을 줄이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두레나 품앗이와 같이 서로의 가치를 나눔으로서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생산적 개념
	장은영 (2002)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나와 타자가 비물리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되는 연합, 개인에게 속한 내밀한 감각, 경험 등의 공유를 통한 연합
공적영역과 사적영역과의 관계	임상진 (1997)	‘건축적 공공성’의 구현에 관한 연구:H.Hertzberger와 F.Maki 건축 이론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공간을 매개로 인간의 생활과 의식이 서로 만나고 의사소통하는 관계이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과의 관계
	서정숙 (2001)	건축외부공간의 공공공지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험을 제공하며 실제적으로 인간과 타인의 관계를 체험하게 되는 장소성

2)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연구의 대상

건축·도시공간에서 공공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오피스빌딩, 주거용 건축물, 공공건축물 등의 개별 건축물과 공공영역으로서의 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오피스빌딩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개공지⁴⁴⁾는 사유 대지 안에 소규모 휴게시설 등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방된 장소로서 사유지이면서 동시에 공유지의 성격을 갖고 있

44) 1991년 개정된 건축법 제67조에서 처음으로 명시된 공개공지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지면적의 10%범위 이내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유 대지 안에 시민대중의 보행, 휴식 등을 위해 상시 개방된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이다.(정석, 1994)

다. 이처럼 공개공지는 사유공간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연구에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오피스빌딩과 주거용 건축물은 공개공지 외에도 최근 저층부나 지하층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 내부공간 역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할 또 다른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에 의해 공급·설립되는 공공건축물과 도시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영역으로써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간으로 ‘공공성’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① 오피스빌딩 공개공지

앞서 언급했듯이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연구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빌딩의 공개공지에 대한 공공성 연구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건축·도시분야에서 ‘공공성’을 다룬 초기 연구인 정석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정석은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지면적이나 공지율, 조경면적이나 조경비율, 공개공지면적 또는 공개공지율 등이 있으나, 이 중 공개공지가 건축의 공공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개공지를 통한 건축(외부공간)의 공공성을 분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성을 조성하게 된 요인을 추출하여 오피스 빌딩의 공개공지의 유형을 분류하고,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해 협력적 도시설계의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건축물 외부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은비(1998), 최희원(2000), 박병주(2003), 정창구(2008)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설문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성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실제적인 배경과 과정을 경험한 건축설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개공지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공개공지 계획 및 활성화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단순히 이용의 공공화만이 아닌 유지관리의 공공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⁴⁵⁾.

건축·도시분야의 공공성 관련 연구는 이처럼 오피스 빌딩의 공개공지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다가 2000년대 들어서 오피스 빌딩의 저층부 또는 지하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보로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상운

45) 최희원(2000), 설계자의 의식에 근거한 공개공지 평가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도시의 공공성 측면을 중심으로

(2000), 차홍녕(2005), 윤지혜(2005)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사무소 건축물 저층부 개방사례를 대상으로 공공의 접근성과 개방성 등 공공성 관련 디자인 요소 중심의 분석을 통해 저층부 공간의 공공성을 고찰하고 확보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대부분 옥외에 위치하는 현재의 공개공지가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상 일 년 중 절반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비경제적인 점을 들어 실내 공개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소 건축물의 실내 공공공간의 현황 및 특성, 공공성 구현요소를 분석하여 공공성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오피스 빌딩은 주로 도심에 위치하고 개발 규모 또한 점차 커져 도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축·도시공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빌딩은 꾸준히 공공성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으며 연구의 범위는 외부의 공개공지에서 1층 로비나 홀 등의 저층부 전이공간 및 지하공간과 같은 사적공간으로 그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사적 실내공간의 공개공지를 제도화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②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시민(구민)회관 및 문예회관, 자치구청사 등과 같은 지역문화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성에 관한 사례조사 및 공공성 관련 계획요소를 분석하여 공공시설에서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거나, 답장 개방을 통한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최기원(2005), 김왕식(2006)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지역문화시설을 입지, 배치, 외부공간요소, 내부공용요소, 내부기능공간 등으로 분리하여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 쾌적성, 체류성 등의 공공성 구현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공공성과 관계되는 요소를 도출하여 앞으로의 계획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수혜지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지역의 공공재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공공성의 논의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만들어진 결과물 위주의 공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한 계획요소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시설을 직접 이용할 시민의 참여 등을 고려한 공공성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표 3〉 오피스 빌딩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 연구 예

연구 대상	저자(년도)	논문명	연구목적	비고
공개공지	정석 (1994)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 공간설계 접근방안 : 서울시 고층 오피스빌딩의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공개공지의 조성요인에 따른 질적·양적 분석을 통해 협력적 도시설계의 접근방향 모색	이용자 인식 분석
	이은비 (1998)	도시건축공간을 통한 도시 건축 공공성 확보방안:서울시 서초구 사무건축을 중심으로	공개공지의 현황조사 및 이용자설문을 통한 공공성 확보방안 모색	
	박병주 (2003)	공개공지 공공성 평가에 관한 연구:대구시 소재 사무소건축을 대상으로	기존의 공개공지의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공개공지 조성을 위한 계획적 요소 제시	
	정창구 외(2008)	조성위치에 따른 도시 고층사무소건축물 공개공지의 공공성에 대한 이용만족도 연구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여 공공성 확보를 통한 일반 도시민의 이용활성화 방안 검토	
	최희원 (2000)	설계자의 의식에 근거한 공개공지 평가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도시의 공공성 측면을 중심으로	성능평가 지표를 이용한 건축도시 설계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공개공지 확보 및 활용방안 제시	설계자 의식 조사
저층부 및 지하공간	한상운 (2000)	도심형 사무소 건축의 저층부 공간분석에 따른 공공접근성과 개방감에 관한 연구	공공성증진을 위한 저층부 공간 설계요소 에 관한 자료 구축	-
	차홍녕 (2005)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층 오피스빌딩 저층부의 전이 공간에 관한 연구	공공환경으로서 오피스 건축물의 전이공간에 대한 공공성 고찰 및 공공성 확보 방안 제시	-
실내 공개공지	윤지혜 (2005)	도시공간에서의 실내공개공지의 필요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도시공간속에서 실내공개공지의 공공성 기여도 평가, 실내공개 공지의 필요성 강조	-

〈표 4〉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 연구 예

연구대상	저자(년도)	논문명	연구목적
구민회관	최기원(2005)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구민회관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성 구현과 관계되는 건축 계획요소 도출
시민회관 문예회관	김왕식(2006)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을 반영하기 위한 건축계획 요소 연구 - 경기 지역 문화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성 구현을 위한 지역문화시설의 계획요소 도출

③ 도시공간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연구대상으로 건축물이나 공개공지와 같이 한정된 공간이 아닌 이태원 도시 공간, 광화문 거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과 같이 도시공간으로 확장하여 인간과 도시공간과의 관계성에서 공공성을 바라보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종욱(2003), 이윤희(2005) 등과 같이 기존의 도시공간에 대한 공공성 연구와 송영석(2004), 장석준(2005), 정우인(2006) 등에 의한 도시개발에서의 공공성 연구가 있다.

이종욱(2003)과 이윤희(2005)는 이태원과 광화문이라는 각기 다른 공간을 대상으로 vitality(생명력), identity(독자성), sense of place(장소성), sense of occasion(경우성), fit(적합성), access(접근성), control(조절능력)등을 바탕으로 도시의 구역, 그 중에서도 가로에 담긴 공공성을 분석하고 실태 파악을 통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떠나서 경험과 공간과의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한 공공성을 반영하는 인지도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한편 한영석(2004), 장석준(2005), 정우인(2006)은 일반상업지역의 개발과 도심지 획지개발 등과 같이 대규모 슈퍼블록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에서의 공공성과 공공이익을 위한 통제수단으로의 도시개발을 논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개발에서의 공공성은 지역 내 개별건물의 공개공지나 외부 공공공간만이 아니라 생활권 내에서 도시계획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표 5〉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 연구 예

연구대상	저자(년도)	논문명	연구목적
기존의 도시공간	이종욱 (2003)	Kevin Lynch의 이론을 통한 한국 도시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연구: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Kevin Lynch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공공성 현황파악과 공공성 확보 방안 제시
	이윤희 (2005)	현대도시에서 공공성을 반영하는 인지도와 이를 토대로 한 디자인에 관한 연구 : 미디어, 속도, 움직이는 신체를 반영하는 인지도체계를 중심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가 아닌 경험을 통한 공공성을 반영하는 인지도에 대한 고찰
도시 개발사업	송영석 (2004)	일반상업지역의 개발에서 공공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일곽의 1990년대의 개발 경험에 기반하여	도시개발에서의 상업지역의 역할 제시
	장석준 (2005)	상업지역의 개발과 공공성의 원칙	슈퍼블록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공공성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한 개발에 대한 원칙 제안
	정우인 (2006)	도심지 획지 공동개발 계획시 공공용지 공공성 증진 방안 연구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공공공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기부채납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3) 공공성 평가 분석방법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건축·도시공간에서의 공공성을 증진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설계기법이나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현황분석단계로 조성된 공간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때 공공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설정하여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를 거쳐 설정된 공공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가지고 조성된 공간의 물리적인 현황을 평가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설정한 항목들은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항상 모두에게 열려있는지에 대한 개방성’과 ‘제공된 공간에 접근하기 편리한가에 대한 접근성’, ‘환경적 측면의 정신적·감각적 욕구의 충족에 대한 쾌적성’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변의 보행로 및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 ‘심미성’, ‘장소성’ 등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다.

최근까지 이러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평가방법은 공공성을 조성된 공간이나 건물의 결과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표 6〉 공공성 관련 연구의 공공성 평가 지표 예

저자(년도)	논문명	평가 및 분석항목	조사대상지
이은비 (1998)	도시건축공간을 통한 도시건축 공공성 확보방안 : 서울시 서초구 사무건축을 중심으로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어메니티, 이용률	서울시 서초구 공개공지
김도형 (1998)	을지로 제5지구 도심재개발 현상설계안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어메니티	을지로 제5지구 도심재개발 현상설계 수상작
신중진 (2002)	대규모 복합용도개발의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접근성, 개방성, 쾌적성	복합용도개발지역 외부공간
김세용 (2002)	사무소건축물 공개공지의 쾌적성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쾌적성, 접근성, 편의성, 개방성, 심미성, 관리성	서울시 테헤란로 공개공지
이상호 (2002)	복합용도 건물 내부광장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어메니티	서울시 서초구 센트럴 시티
이훈길 (2003)	서울 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접근성, 연속성, 장소성, 위계성, 공간 구성	서울시 교보빌딩 광화문 우체국 제일은행 공개공지
윤종국 (2003)	도시건축 경관의 구성요소가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역성(접근성, 위계성, 연속성), 지각성(시각질, 구성적 특성, 지원성), 인지성(이미지, 정체성, 장소성)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중심 가로변
최기원 (2004)	지역문화시설의 '건축적 공공성'을 구현하는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 쾌적성, 체류성	서울시 구민회관
신중진 (2004)	초고층건축물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정체성, 지역성, 쾌적성, 거주성, 안전성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장성준 (2005)	상업지역의 개발과 공공성의 원칙	접근성, 개방성, 어메니티, 심미성, 편의성, 연계성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일반상업지역 슈퍼블록
이정형 (2005)	AHP분석기법을 이용한 기업참여 문화시설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식별성, 접근성, 편의성, 어메니티	기업참여 문화기반시설
손광호 (2005)	지역미술관 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투명성), 쾌적성, 체류성	일본 카나자와 현대미술관
윤지혜 (2006)	실내공적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개방성, 접근성, 쾌적성	서울 사무소 건축물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담론 동향

2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담론들은 관련 연구 자료들과 함께 이에 대한 국내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그 증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전술했듯이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서 건축의 공공성 또는 도시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논의와 담론은 경제위주의 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역사도시와 공공성, 건축가·계획가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등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전개되어 왔던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담론들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간의 개방 및 사유공간의 공공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건축·도시분야에서는 공공청사나 대학의 담장 허물기를 통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단순히 닫힌 공간을 연다는 의미 외에도 삭막하고 비좁은 도시공간을 밝고 여유 있게 가꾸게 되고 가로공원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쉼터, 대화 장소, 놀이공간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이웃간 다양한 만남과 공유를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공공성 확보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대학이나 주택과 같은 공간에서의 담장허물기 사업은 사유공간을 공공화함으로써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좁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공공성에 기여했다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청사 일부를 갤러리나 예식장, 혹은 지역특산물 매장, 독서실과 헬스장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수용하고 이를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향상되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공간의 공공화와 반대로, 공공공간의 사유화에 대한 각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한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오고 있다. 24시간 동안 행인에게 개방될 의무를 지는 공공의 공간인 민자역사의 공용통로에서의 상업 행위나 서울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을 서울시가 공간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관

리와 이용을 독점화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이외에도 건축선 후퇴공간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의 주차공간이나 상업 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점유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건축선 후퇴공간과 공개공지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면 도시 환경도 쾌적해지고 도시경쟁력도 높아져 공공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표 7〉 '공간의 개방 및 사유공간의 공공화와 공공성' 관련 담론

구분	기사 제목	공공성 관련 사항
2002	[아침을 열며] '환경보다 개발이익' 안될 말 / 이지순	사유지 개발에서의 공공성 고려
2003	[캠퍼스] '담'없는 대학	열린 대학을 통한 공공성 회복
2004	번드르한데 왕짜증이 난다	공공공간의 사유화 문제
2005	[좋은도시 만들기] (8)서유럽 건축물의 공공성	사유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보
	이명박 측 '김진애, 이번엔 못 참아'	공공공간의 사유화 문제
	[시론]도시의 공개공지(公開空地) / 양상호	중간영역을 통한 공공성 증진
	노원구청엔 예술향기 솔~솔~	공공청사의 공간활용과 개방
2006	고급 주상복합 '公開空地' 일반인 접근 차단땀 제재	공개공지의 사유화 문제
	공공기관의 '아름다운 변신'	공공청사의 공간활용과 개방
	도심 담장 허물기사업 녹지, 휴식공간 확충된다	담장허물기로 열린공간 조성
2008	건축은 땅과의 감응...분배·공유 가능해야 / 정기용	분배와 공유가 가능한 건축의 공공성
	건물 앞 '공공공간' 시민에게 돌려주자	공공공간의 사유화 문제

2) 난개발 지양을 통한 공공성 확보

건축·도시 분야에서는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오랜 도시흔적을 무시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난개발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규제를 통해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건축공간의 '생산 방식'에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도시를 지금까지의 경제적 과정으로만 파악하는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를 공공적, 문화적, 미학적 으로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국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2000년에 있었다⁴⁶⁾.

일부에서는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건물들로 나타나는 난개발의 문제점과 건축이 아닌 건설의 대상이 되어버린 아파트로 대표되는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건축을 위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공공성과 직결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홍성태⁴⁷⁾ 등). 또한 대부분의 주민이나 계획가, 건축가들은 공공성이 높으면 사업성이 저하되고 사업성이 높으면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공성과 사업성이 상호 상충되는 요소라는 인식이 건축·도시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더 나은 도시 생활환경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승주⁴⁸⁾ 등).

〈표 8〉 ‘난개발과 공공성’ 관련 담론

구분	기사 제목 및 토론회 주제	공공성 관련 사항
1995	주택의 공공성 / 하성규	주택의 사회적 소유권 확보와 공공성 유지
1999	[기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보고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2000	〈한국도시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토론회〉 난개발, 해법은 없는가? :한국 도시, 건축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위한 토론회(문화연대 주최)	난개발 지양과 공공성 확보
2001	[파주] 출판도시 건설 초읽기	환경친화적 건축과 공공성
2002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 개선과 인식의 전환 필요"	주거지 정비에서의 공공성 확보
	서울시, 건물설계 문제 없어도 경관 해칠땐 신축 不許	주변환경과의 조화, 지역 공동체의 보호
2003	수리산개발 갈등만 증폭	자연보전과 공공성
	기고/광화문일대 시민에게 돌려줘야/황평우	난개발 지양과 시민의 공공성 확보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대학이 되길	대학의 역사와 문화의 간직과 공유
2004	도심의 역사성, 공공성 그리고 문화성 : 서울의 도심 4대문 안 / 이윤임	역사성과 장소성의 보전
	주민 자긍심 살려야 복촌이 산다	전통주거지 보존과 공공성
	규제개혁과 공공성 / 서유석	규제개혁에 의한 공공성 저하
2006	⑥공공성을 높이자	개발과 환경 보전에서의 공공성
	‘답답한 서울’ 이유 있었다.	재개발에서의 공공공간 확보
2007	구청장이 재개발 정비계획 세운다-사업방식 확 바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1)아파트공화국, 도시는 오 늘도 성형수술중 / 김민수	역사성과 장소성의 보전
	서울의 '심장부'를 자본의 손에 넘기려나 [열려라, 광화문광장!③]시민과 문화가 주인되는 광장으로	난개발 지양과 시민의 공공성 확보

46) 문화연대, 난개발, 해법은 없는가?(2000.12) : 한국 도시·건축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위한 토론회,

47) 홍성태(2007.03), 좋은 건축을 찾아서, 건축가

48) 이승주(2007.03), 뉴타운 사업에 있어서의 공공성 :제1차 건축의 공공성 포럼

3) 주민 참여와 전문가 역할 제고를 통한 공공성 구현

생활 속에 문화공간의 필요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가 주목을 받으면서, 행정주도형에서 탈피하여 유기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도시분야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건축의 공공성을 위한 NGO의 역할에서 옹고 그룹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새로운 이견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공론화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함으로써⁴⁹⁾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주체인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주민 사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세 주체가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⁰⁾.

또한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자율성과 창조성이 필요한데,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해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⁵¹⁾. 이 때 전문가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건축·도시분야의 공공성을 위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도시에서 나고 자란 지역전문가의 필요성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건축·도시공간에서의 공공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과 (지역)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논의와 함께 전문가로서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많은 담론이 펼쳐졌다. 도시에서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도시건축가의 역할은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어야 하며, 담을 걷고 울 밖을 향해 도시를 품는 건축을 생각해야 하며, 좀 더 자상하고 따뜻한 건축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⁵²⁾.

국내에서는 건축이라는 것이 개별건축주를 위한 사적인 행위차원에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건축의 공공적 가치나 이를 위한 건축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은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건축의 공공성

49) 김은희(2007.01), 건축의 공공성을 위한 NGO의 역할, 건축가

50) 우신구(2008.03),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누가?, 건축과 사회

51) 오마이뉴스(2007.10.18), 그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전문가다

52) 정석(1997.01), 건축의 공공성과 도시건축가의 역할, 건축

과 건축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많은 논의가 펼쳐졌다.

국내와 달리 보스턴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는 공공 건축가들이 도시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개발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때로는 시행업체와 지역주민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⁵³⁾. 그리고 공동체 만들기 등의 사업에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배타적인 작가중심의 태도에서 벗어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일상적 삶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일상 공간 안에 담긴 사회적 담론에 소통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대안공간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언어로서의 디자인을 건축가들이 수행해야 함을 제기하였다⁵⁴⁾.

2003년에 이와 같은 논의에 이어 2007년에는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건축의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건축의 공공성 포럼’을 주최하여 건축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여기서 건축의 공공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건축가들이 이제까지 견지해온 자기중심적 건축관과 건축철학을 바꾸어야 하며, 주변을 배제시키고 자신의 건물을 주변과 차별화하려고만 했던 기존의 건축 자세를 바꾸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⁵⁵⁾.

이처럼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개방이나 공개공지 등 공적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물리적 측면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함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주민이나 지역전문가, 건축가 등이 공공성의 향상을 위해 참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참여와 이에 대한 의사결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표 9〉 ‘주민 참여 및 전문가 역할과 공공성’ 관련 담론

구분	기사 제목 및 토론회 주제	공공성 관련 사항
1997	건축의 공공성과 도시건축가의 역할 / 정석	전문가의 역할
2003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가의 공동체 디자인의 참여 / 이영범	사회적 언어로서의 디자인을 통한 공간의 사회성과 공공성 창출
	도시공동체를 일구는 사람을 찾아서	공동체가 만드는 도시
	건축가의 공공적 역할 / 주대관	미학적 자율성과 계량적 공학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대의 건축가의 공공적 역할

53) 주정준(2003), 보스턴 도시재개발과정에서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하여

54) 이영범(2003.04),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가의 공동체 디자인의 참여, 건축

55) 이필훈(2007.01), 건축의 공공성 그 어려운 논의를 위해, 건축가

구분	기사 제목 및 토론회 주제	공공성 관련 사항
	보스턴 도시재개발과정에서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하여 / 주정준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지역주민의 참여
2003.04 (토론회)	〈특집기사 :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가의 공공적 역할 • 보스턴 도시재개발과정에서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하여 • 프랑스의 공공건축가 제도와 공공건축 사례 • 안양 도시 비전과 건축사의 역할 •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가의 공동체 디자인의 참여 	건축가의 공공적 역할
2005	건축제도와 건축의 공공성/김광현	공공성에 입각한 건축사의 역할 재정립
2007.03-09	〈건축의 공공성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공공성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도시구조의 모색 • 2차:공공기관 발주의 건축 및 도시설계 • 3차:도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법규 • 4차:도시의 공공성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 (주체 : 한국건축가협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 공공성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
2008	[인터뷰] 대구도시디자인위원회 김철수 위원장 “대구 정체성 · 아름다움 형상화 밑그림 완성” /김철수	도시디자인과 시민함의
	공공영역과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 이상현	공공건축, 공공디자인의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공론장의 필요성
	건축의 공공성, 건축가의 공공성 / 강인호	건축가의 공공적 역할과 기여
	그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전문가다	주민의 참여와 관심유도자로서 전문가의 역량

4) 공공디자인에서의 공공성 구현

최근 들어 공공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옥외 광고물 등의 규제와 함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디자인 및 디자인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한편, 관 주도로 개별적으로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공성 개념과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를 들어 그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탈맥락성, 통합성의 결여, 공동성의 결여, 차별성의 결여, 관료성을 들고, 이것들이 공공디자인의 핵심적 가치인 공공성의 발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디자인의 해석적·민주적 과정, 디자인 요소간의 대화와 통합, 활용을 통한 공공성의 구현이 공공디자인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⁵⁶⁾.

또한, 살던 자를 떠나게 하고 있는 장소를 없애는 파괴일변도의 공공디자인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새로운 공공성의 개념은 우리의 자연과 인습, 그리고 오랜 역사의 틀의 지속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도시적 맥락이나 거시적 도시 틀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논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진정한 시민을 위한 개발방식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⁵⁷⁾.

〈표 10〉 ‘공공디자인과 공공성’ 관련 담론

구분	기사 제목	공공성 관련 사항
2004	"문화수도' 디자인 통합, 관리해야"	통합 디자인을 통한 가로 디자인의 공공성 증진
2006	예술, 건축, 디자인의 공공성-도시개발에서의 한 실험 / 이영철	복합예술을 통한 공공성 구현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공성 구현
2007	〈200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소통의 문화, 우리들의 공간 공공디자인 컨퍼런스 주제 (주최 : 문화관광부,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국회공공디자인문화포럼)	-
	[월요인터뷰] "쾌적한 삶의 공간 만드는 게 바로 국가경쟁력" / 권영걸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공성 구현
	[부산 꽃피다] "행정주도형서 탈피 유기적 협력 도모를"	
2008	[부일시론] 도시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공성 구현
	〈부산시, 올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원년〉	
	공공디자인, 공공영역을 디자인하라 / 조명래	디자인의 해석적·민주적 과정, 디자인 요소간의 대화와 통합, 활용을 통한 공공성의 구현의 필요성
	공공디자인의 정체성 탐구 / 전인호	도시경관에서 접근하는 디자인 통합화로서의 공공디자인
	〈특집기사 : 공공디자인과 건축〉 공공디자인과 공공성 공공디자인과 건축 건축가들의 공공디자인 등 (주최 : 새건설)	-

56) 조명래(2008.03), 공공디자인, 공공영역을 디자인하라!, 건축과 사회

57) 전인호(2008.03), 공공디자인의 정체성 탐구, 건축과 사회

〈표 11〉 기타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담론

구분	기사 제목	공공성 관련 사항
1995	주택의 공공성 / 하성규	주택의 사회적 소유권 확보와 공공성 유지
1996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4:공공성 증진방안 / 최찬환	-
1997	일상,공간,라이프스타일의 정치학 :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반공공성 : 공간의 새로운 기획을 위하여 / 조명래	-
2001	박물관과 공공성 / 김승용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2002	문화주의 도시건축 디자인론 :후기근대 도시건축경관 읽기와 '공공성' 논의를 중심으로 / 김민수	-
2003	공공성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문화도시를 찾아서 :문화도시의 외국사례 / 임옥상	-
2004	반역을 꿈꾸는 현대건축의 시도들 :도시 공공성 회복을 위한 현대건축의 사회적 실험/이영범	-
	공공성 담보장치 강구해야 :기업도시, 바람직한 추진 방안은?/조명래	-
2005	서울·평양 건축 비교해보니 “도시 공공기능 극과 극”	문화시설 증대와 시대 상황 반영
	〈사람과 사람〉안양시 아트시티기획단 이정호 주사	도시경관의 한 요소로서의 건축물
	거꾸로 읽는 도시, 뒤집어 보는 건축/양상현 지음	인간과 사회적 공공성의 구현
2006	제3의 공공개발방식을 기대하며 / 여흥구	공익과 사익의 성공적인 절충을 통한 제3의 공공개발 방식
	영국 도시개발에서 제도와 참여를 통한 도시 공공성 확보방안 :영국의 공공건축/이영범	-
2007	특집 : 건축의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필훈	-
	건축의 공공성 / 온영태	도시공간으로서의 건축의 공공성 확대
	포럼:공공성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도시구조의 모색/김석환 외	-
	"창조도시 부산위해 공간적 전략 필요"	문화자원으로서의 건축
2008	"디자인"이라는 단어의 함정 / 김소라	공공건축이 구현해야 하는 공공성

〈표 12〉 기타 건축·도시공간 공공성 관련 행사

구분	주 제	주 최
2007.06	〈공간문화아카데미〉 6개의 주름-City and Cityscape	문화우리
2007.12	〈공공건축 정책토론회〉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논점과 과제

3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제까지 공공성과 관련한 논의와 담론은 여러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으나,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에 대한 논점과 접근방법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국내의 현황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공공성에 대한 논점과 과제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현대적인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건축·도시·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논점과 과제⁵⁸⁾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전문가 논점

(1) 공공성 창출의 주체에 대한 인식 전환

① 공공성 주체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지방자치화에 따라 구 행정타운이 생기면서 구청과 구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중심”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공공의 역할이 중앙집중식에서 지역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중심의 공공공간에서 지자체중심의 공공공간으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지역의 중심이 지역 공공의 대표성을 띄는 것도 공공성의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 주민에 의한 마을만들기의 경우 사후관리까지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관리는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해관계의 결함’이 제대로 진행된 과제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사후관리에 있어 행정의 역할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은 행정대로 공공성의 실현에 있어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주체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② 공공성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및 사회적 관심 필요

우리나라 건축이 훌륭하지 못한 이유는 건축물 설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축문화를 선진화하지 못하는 사회구조 등 건축 외적인 부분에 더 큰 요인이

58) 본 내용은 도시, 건축, 조경, 인문사회, 디자인,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직접 면담을 통한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있다. 즉, 예술작품과 같은 훌륭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이 정신없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는 그 가치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국내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고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건축주로부터 일을 받는 ‘을’의 처지에만 머물러 있어 사회적 공공성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지키고 만들어 가려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가들은 건축가가 건축물 생산과 함께 공간환경을 변형하고 형성해가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건축물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구조나 사회구조 등 건축 외적인 부분에 관심이 가져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③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가치 공유 필요

한편 ‘공공성’이라는 것은 건축가 개인만으로 실현하기에는 불가능한 대상으로 이에 따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체계가 중요하며,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곧 공공성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은 여러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공유/공감’을 통해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북촌이나 인사동 프로젝트는 공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이끌어 낸 일종의 실험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는 현대의 건축·도시공간에서 공공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의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대적 공공성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2)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 모호성

①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에 대한 개념 전환 필요

‘사적 영역(private space)’은 어떠한 의미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논함에 있어서 사적인 영역의 희생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이러한 전제 속에서 ‘공적 영역(public space)’를 논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사(私)’의 반대 개념으로 ‘공(公)’을 보는 것은 왜곡된 개념이며, 공공성은 어느 한쪽에 취

우친 것이 아니라 공과 사의 근원적인 균형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수준 높은 다양한 공공영역의 조성과 같이 사유공간을 통한 공공성 확보는 ‘사적영역’ 과 ‘공적영역’ 의 경계를 오히려 지나치게 구분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제까지는 이처럼 사적영역에 의존한 공간의 공공화가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이 가로공간과 같은 공공영역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오히려 담의 경계가 사라지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② 경계로서의 담에 대한 개념 전환 필요

한편 ‘담’ 이라는 것이 아파트 단지과 같은 곳에서는 영역 간 ‘경계’ 의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나, 전통적인 우리나라 도시에서의 담은 가로에서 남향으로 자리한 주택의 거실을 골목길로부터 한 단계 가려줌으로써 거실-마당-대문-골목길이라는 우리나라 주거공간의 특징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이러한 점에서 ‘담을 허물다’ 는 것은 우리의 주거공간특성을 변화하게 만듦으로서 사적영역이 파괴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성 확보’ 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거지에 있어서 담장 허물기 사업에 전문가가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으며, ‘담’ 으로 인해 마치 지역공동체가 깨지게 된 것처럼 보는 시각 즉, 담을 공동체 형성의 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심의 공공성

① 공간 확보만이 아닌 공간의 운영에 대한 고민 필요

1980년대 공공문화시설의 물량공급은 공간의 운영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순히 하드웨어에 치중한 것으로 문화공공시설의 양적인 지역의 편차를 가시적으로 해결해주었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제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에는 양적 공급위주의 정책도 지역 간 물적 균형에 의한 심리적 위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공급에 의한 가시적인 행위자체에서 실제적인 이용행위가 중요시됨으로써 공공문화시설에 의한 공공성은 프로그램 등 시설의 운영적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졌다.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도 현재는 지나치게 물

리적인 측면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있으나, 형성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이용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고민이 공간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위해 더욱 필요할 것이다.

② 결과 중심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시민단체에서 해온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소요기간이 길고 결과물 위주보다는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공공성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오늘날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 공공성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각종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들은 결과물 위주의 성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성급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많으나, 이러한 경우 공공성을 향상시키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추진 주체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자세로 사업을 진행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디자인 분야는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시 건축과 조경, 토목, 도시계획 등이 완료된 후 마지막 단계에 참여함으로써 환경미화차원의 작업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디자인(예술)이 시각적인 장식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모든 분야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큰 목표와 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4) 개발지향이 아닌 지역과 장소의 맥락 고려-존중

①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방식에 대한 비판과 절제가 필요

크기 측면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록 공공성이 크다고 볼 때 물, 산, 지형과 같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공공성을 가장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를 치유하는 것이 곧 공공성을 증진하고 회복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토목과 조경 중심의 개발 주도적 사업이 도시전체의 경관과 풍경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토목중심의 획일적인 지역개발에서 문화적 차원의 지역개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차원의 지역개발은 공공영역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지역성을 고려한 정비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사업 등의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

자원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개발로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공공성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 이처럼 공공성과 효율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공간

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방식에 대해 반성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절제가 필요하다.

② 지역과 장소의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

문화적 사고가 약한 상태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과 같이 공공디자인을 빙자한 표준화는 그 지역의 고유성을 사라지게 한다. 기능적이고 시각적인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그 장소의 공간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디자인’ 이 아닌 ‘예술’ 로 접근해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역사적·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문화예술의 개념이 들어 가야 하며,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지역주민의 생각이 프로젝트에 스며들어야만 지역경제와 문화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공공디자인과 공공미술을 환경미화 내지는 공간의 환경정화 차원으로 보거나 단순히 공공이 만든 것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으로 보는 인식으로는 공공성이 발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개념의 공유가 시급한 실정이며 그 이상의 캠페인 같은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떠한 단체에게 공공미술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나 공공공간에 대한 기부(donation) 요구, 운동추진 등 공공미술 설치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주요 과제

이상으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주요 논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반문하여 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성 창출의 주도적인 주체는 행정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공공이 주체가 되어 하는 일련의 작업·행위들이 곧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 인식의 오해로부터 나온 반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중심의 공공성 역할과 사후관리에서의 공공의 역할 등 「주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하다는 점과 건축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공공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 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관주도에서 탈피하고 건축가 개인이 아닌 주민, 행정,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가치공유의 필요성」 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공공성은 사적영역과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증진되는 것인가?』라는 영역의 경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이것은 공(公)이라는 개념을 사(私)의 반대개념으로 보는 왜곡된 개념으로부터 나온 반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단지내 공공공간과 가로와의 관계와 같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에 대한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과 주택의 담장허물기가 공공청사, 대학의 담장허물기 등으로 영향을 준 일련의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 경계로서의 담에 대한 개념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새로운 과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공공성은 시설공급과 공간확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문화시설의 공급 등 단순히 물적인 시설의 공급만으로도 공공성이 향상될 수 있었던 지난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시설의 양적공급보다는 실제적인 공간 및 시설의 이용행위가 중요시되면서 대두된 반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공간이나 시설의 공급 또는 확보만이 아닌 실제 이용을 위한 「공간의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과 보여주기식의 「결과중심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넷째, 『깨끗하고 보기 좋은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공공성 증진인가?』

이것은 최근 공간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간디자인과 공공미술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 요소위주의 시각적인 치장에 치우치고 있는 문제인식에 따른 반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자연훼손 및 개발위주의 공간계획으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발위주의 방식에 대한 비판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역과 장소의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성 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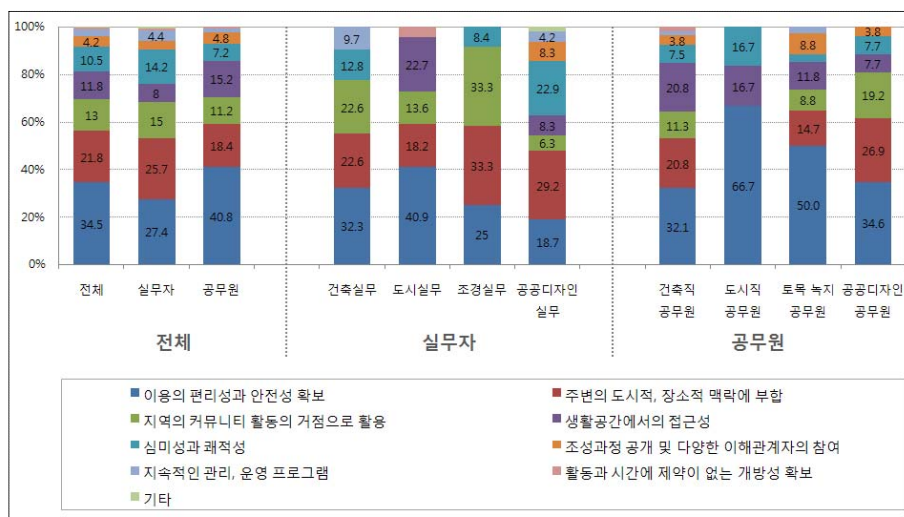
4

앞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연구 및 담론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면담을 통해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측면의 의견은 실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이나 계획들을 실행하는 실무차원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실무자와 공무원들의 인식 현황은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1)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핵심개념

건축·도시 관련 공무원과 실무자들은 공공성을 나타내는 핵심개념으로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변의 도시적·장소적 맥락에 부합’해야 함을 꼽고 있다. 특히 도시직과 토목직 공무원은 공공성의 핵심개념으로서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도시 관련 실무자들은 분야별로 공공성을 나타내는 핵심개념에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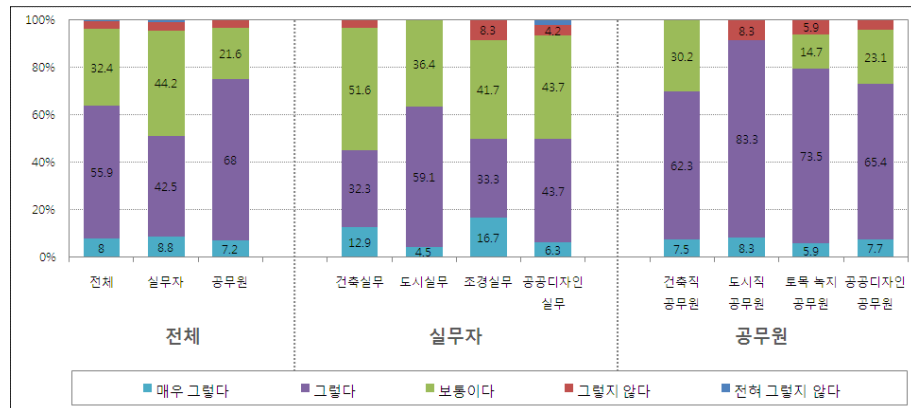
〈그림 8〉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핵심개념

이를 보이고 있다. 조경실무자의 경우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달리 ‘주변의 도시적·장소적 맥락에 부합해야 한다’는 항목과 함께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항목을 공공성의 핵심개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공공디자인실무자는 다른 분야 전문가들에 비해 ‘심미성과 쾌적성’을 공공성의 핵심개념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 정도

① 공공성 향상에 대한 의견

공공성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55.9%, 매우 그렇다가 8%로 전체의 68%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실무자들보다는 공무원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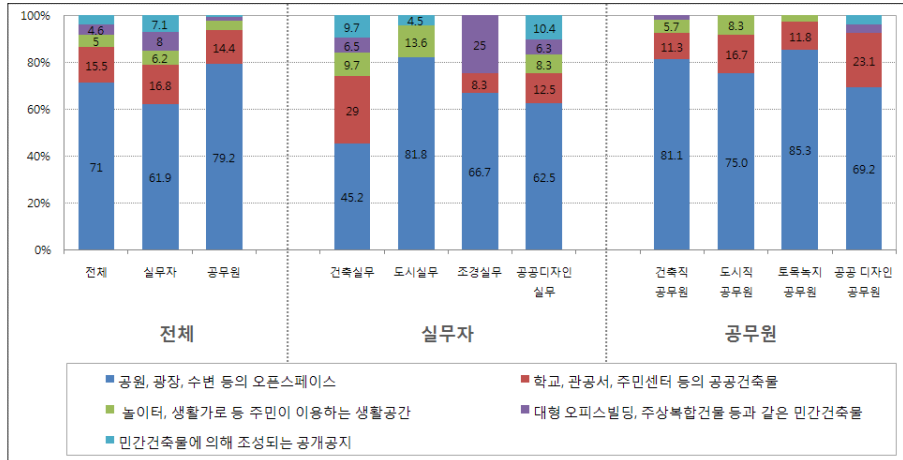
〈그림 9〉 공공성 향상에 관한 인식

② 공공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공간

공공성이 가장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오픈스페이스, 생활공간, 공개공지,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가운데 실무자와 공무원 모두 ‘공원, 광장, 수변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공공건축물’을 꼽았다. 이에 비해 생활공간과 민간건축물, 공개공지 등은 공공성이 향상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

분야별로 특이한 사항을 살펴보면, 건축실무자와 공공디자인 공무원은 공공건축물의 공공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른 분야 전문가들보다 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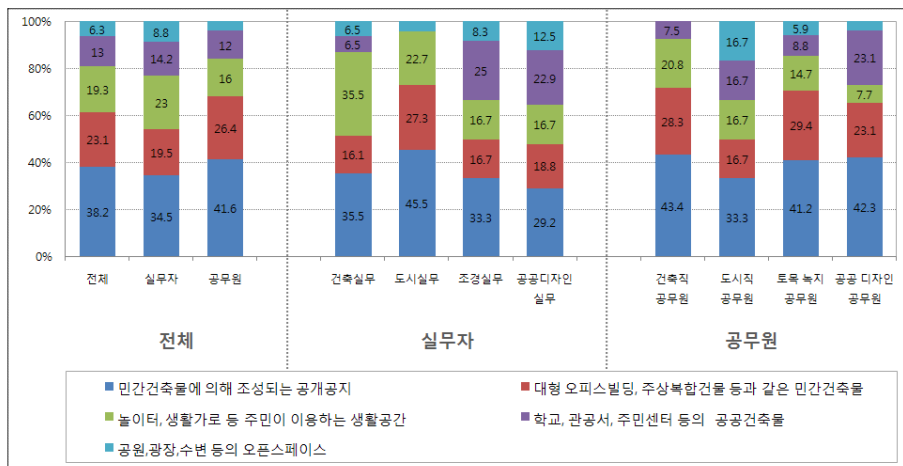
더 많았으며, 조경실무자들은 민간건축물의 공공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른 분야 전문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 공공성 향상 공간에 관한 인식

③ 공공성이 여전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같은 항목에 대해 공공성이 여전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민간건축물에 의해 조성되는 공개공지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38%), 다음으로 민간건축물(23%), 생활공간(19.3%)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축물에 대해 실무자들보다는 공무원들이 공공성이 미약한 공간으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로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 실무자들이 공공성이 미약한 공간으로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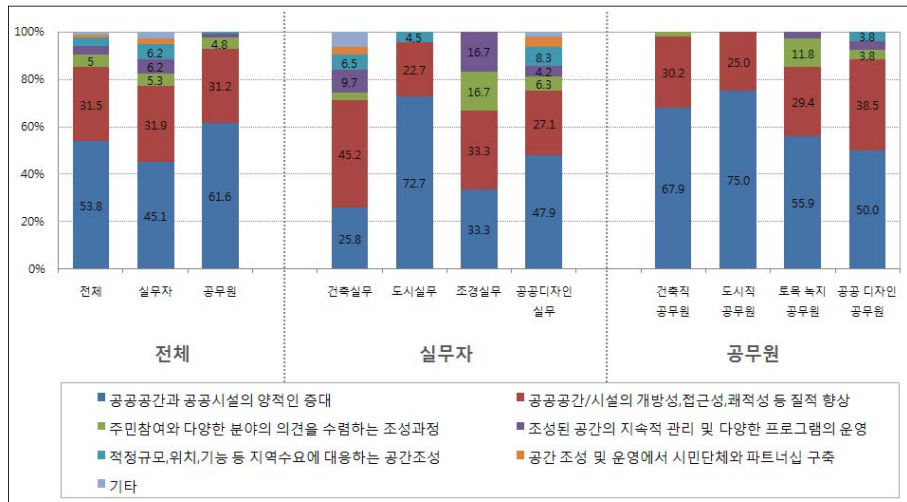
〈그림 11〉 공공성 미약 공간에 관한 인식

한편 분야별로는 건축실무자는 다른 분야 실무자에 비해 ‘생활공간’의 공공성이 미약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조경과 공공디자인실무자는 다른 분야 실무자에 비해 ‘공공건축물’의 공공성이 미약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④ 공공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항목

공공성이 가장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실무자 모두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양적인 증대’라는 항목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항목은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질적 향상’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은 분야별로 공공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실무자는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양적인 증대’를 다른 분야 실무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건축실무자는 양적 증대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다른 분야 실무자들과 달리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질적 향상’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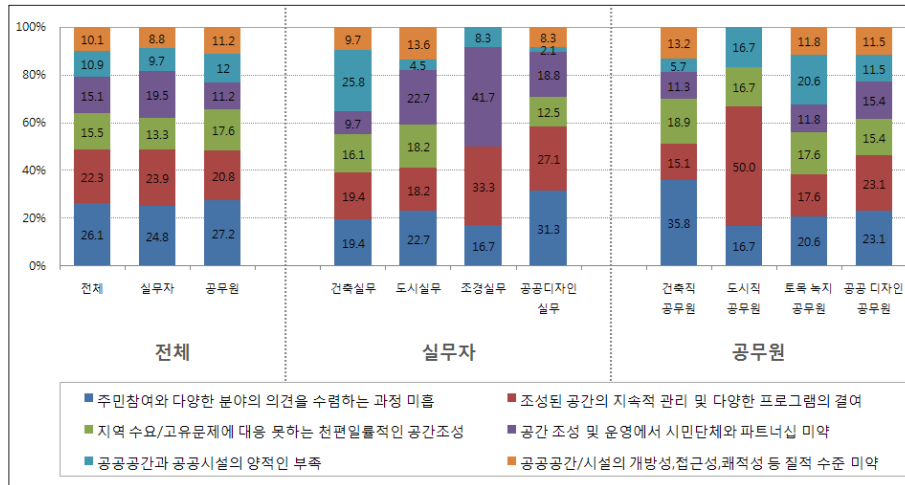
〈그림 12〉 공공성 향상 항목에 관한 인식

⑤ 공공성이 여전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공공성이 여전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시한 여러 항목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골고루 나타난 가운데, ‘주민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조성된 공간의 지속적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결여’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실무자들은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의 양적인 부

족’을, 조경실무자들은 ‘조성 및 운영에서의 파트너십 부족’을, 도시직공무원은 ‘지속적 관리 및 프로그램의 결여’를 공공성이 미약하다는 항목으로 선택하고 있어 분야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3〉 공공성 미약 항목에 관한 인식

④와 ⑤에 대한 응답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건축실무자들은 특징적으로 공공성이 향상되거나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다른 분야 실무자나 공무원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양적인 증대 측면에서 공공성이 가장 향상되었다고 보는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달리 양적인 증대는 가장 미약하다고 보았고,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가장 미약하다고 나타난 질적인 향상 측면은 반대로 공공성이 가장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건축·도시공간의 현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할 때 분야간 전문가들의 협의과정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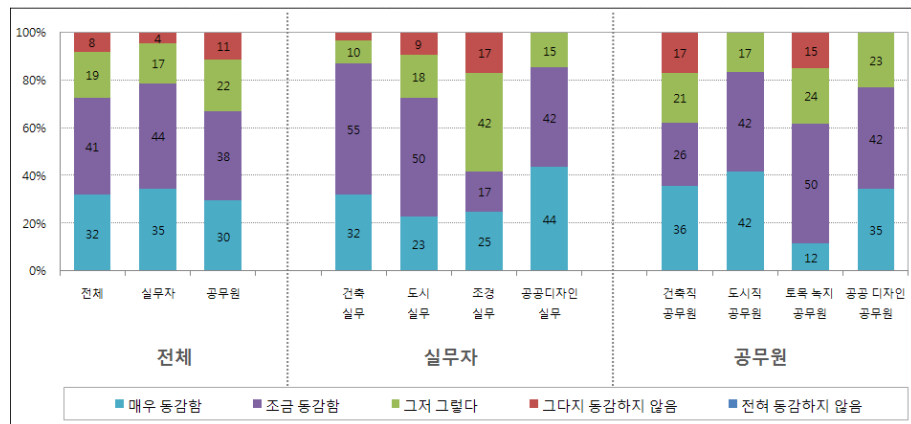
3)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개념 전환

① 공공성과 관련한 개념 전환에 대한 공감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위해 인식을 전환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해 ‘시민이 주도하여야 한다, 과정을 중시하여야 한다, 관리·운영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공과 사의 경계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주변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를 제시하고 각각 이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살펴보았다.

□ 시민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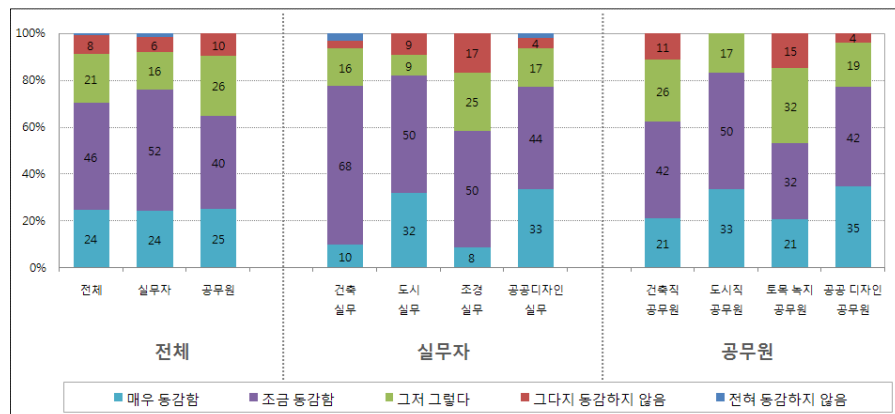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여야 한다’ 고 공공성 개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전체의 72%(조금 동감 41%, 매우 동감 32%)가 동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공무원보다는 실무자의 공감대가 다소 높으며, 건축 및 공공디자인 실무자와 도시 행정공무원이 다른 분야에 비해 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공공성 개념전환에 ‘시민주도’가 중요하다

□ 과정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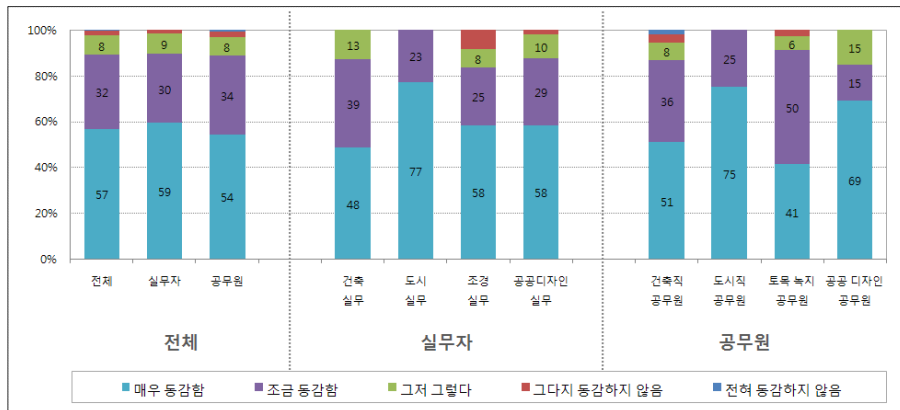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과정이 중요하다’ 고 공공성 개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70%(조금 동감 46%, 매우 동감 24%)로 공감대가 높게 나타났다. 행정공무원(64%)보다는 실무자의 공감대(76%)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조경실무자들과 건축직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공감대가 다소 적게 나타났다.



〈그림 15〉 공공성 개념전환에 ‘과정’이 중요하다

□ 관리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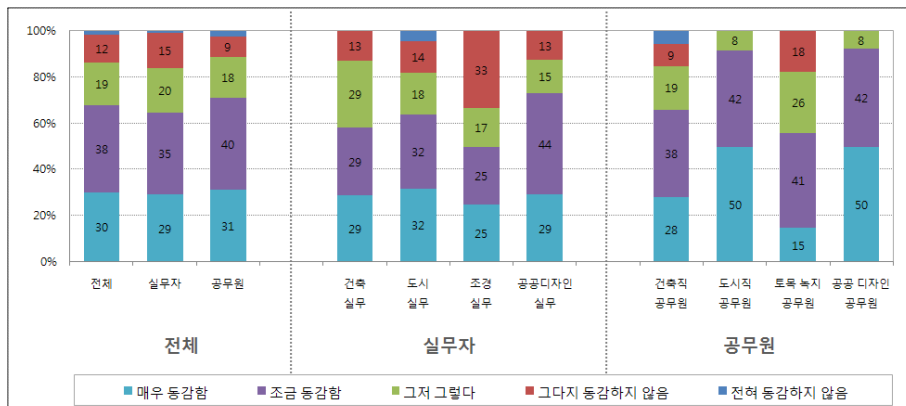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관리·운영이 중요하다’고 공공성 개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88%(조금 동감 32%, 매우 동감 56%)로 공감대가 높게 나타났다. 행정공무원과 실무자 모두 ‘관리·운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특히 도시실무자와 도시직공무원의 공감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16〉 공공성 개념전환에 ‘관리운영’이 중요하다

□ 경계인식 전환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개념전환에 ‘경계인식에 대한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전체의 68%(조금 동감 38%, 매우 동감 30%)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조경실무자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공감대가 다소 낮았으며, 도시직과 공공디자인 공무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공감대가 매우 높게 나타나 도시직과 공공디자인 공무원들이 특히 경계인식에 대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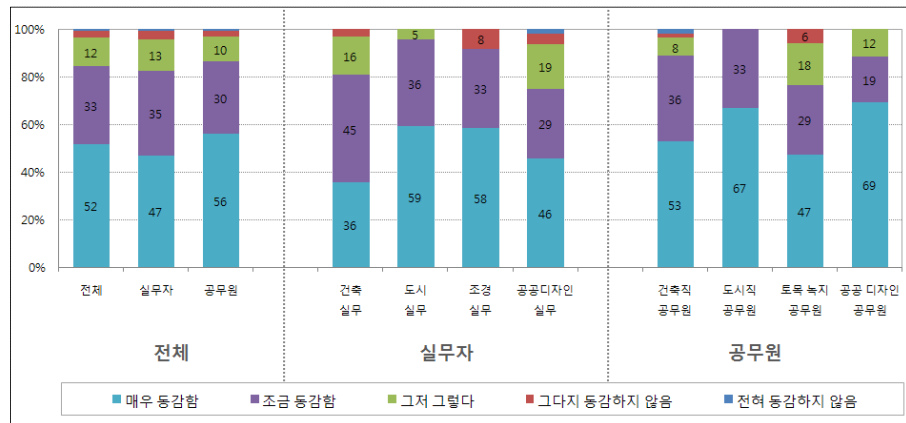


〈그림 17〉 공공성 개념전환에 ‘경계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 주변과의 조화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개념전환에 ‘주변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전체의 85%(조금 동감 33%, 매우 동감 5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과의 조화가 공공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공무원(86%)과 실무자들(82%) 모두 ‘주변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특히 도시실무자와 조경실무자, 도시직공무원의 공감대가 90% 이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높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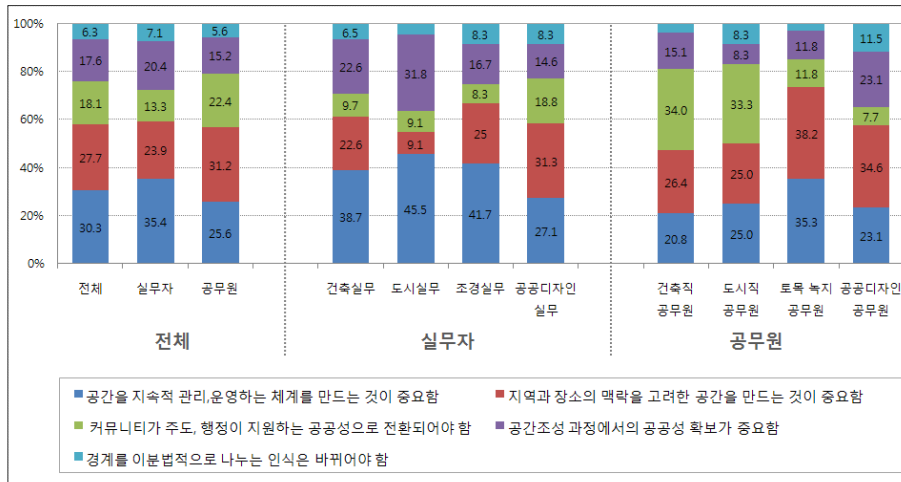


〈그림 18〉 공공성 개념전환에 ‘주변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② 우선순위 비교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위해 인식을 달리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 항목 중에 ‘관리·운영이 중요하다’는 항목(30%)과 ‘주변과의 조화·맥락이 중요하다’는 항목(28%)이 높게 나타났다. 즉,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관리·운영에 대한 고려와 주변과의 조화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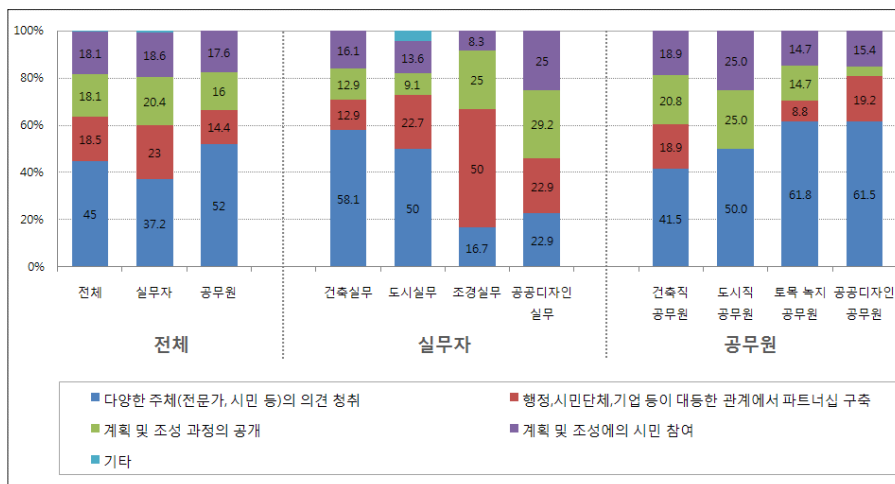
분야별로 살펴보면, 실무자들은 ‘관리·운영’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행정공무원들은 ‘주변과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건축직 공무원과 도시직 공무원은 ‘커뮤니티 주도’를 가장 높게 꼽고 있으며, 토목직 공무원은 ‘지역과 장소의 맥락을 고려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림 19〉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개념 전환 우선순위

③ 공공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음으로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 청취’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머지 항목인 ‘계획 및 조성 과정의 공개, 시민참여,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 다양한 주체의 의견청취를 가장 많이 선택한 가운데 조정실무자만이 ‘행정과 시민단체, 기업 등이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을 가장 높게 선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공공디자인 실무자는 ‘계획 및 조성과정의 공개’를 가장 높게 선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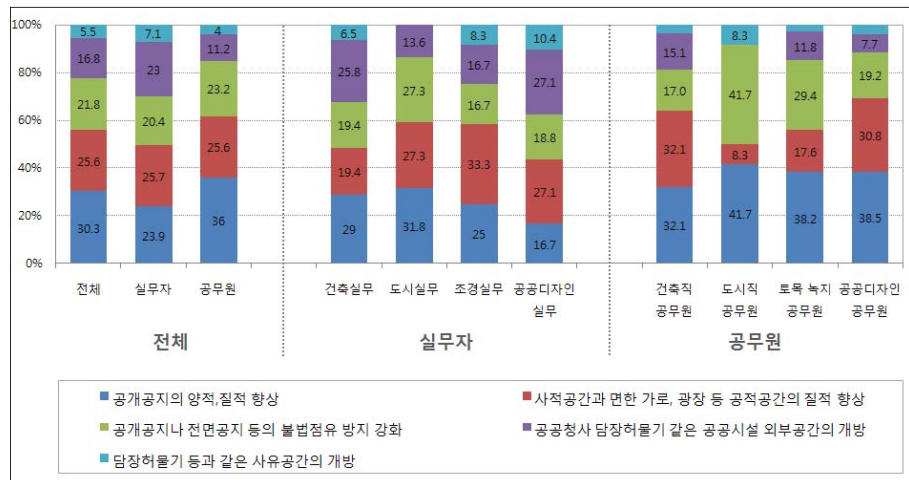


〈그림 20〉 조성과정에서 공공성 구현을 위한 필요 사항

4)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부에서의 공공성 구현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부에서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개공지의 양적·질적 향상(3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적공간과 면한 공적공간의 질적 향상(26%)’, ‘공개공지나 전면공지 등의 불법점유 방지 강화(2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장허물기 등과 같은 사유공간의 개방’에 대한 필요성은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도시직공무원의 경우, 2순위로 ‘공적공간의 질적 향상’ 보다는 ‘공개공지나 전면공지 등의 불법점유 방지 강화’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어, 다른 분야 실무자·공무원들보다 공개공지나 전면공지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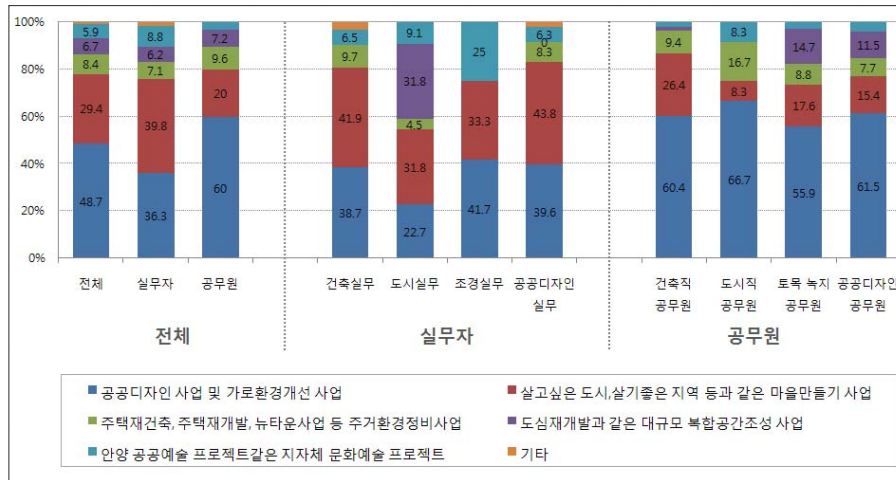


〈그림 21〉 공적공간 및 사적공간 경계부에서의 공공성 구현 필요 사항

5)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영역

마지막으로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영역으로는 ‘공공디자인 사업 및 가로환경개선 사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들고 있다. 행정공무원들은 ‘공공디자인 사업 및 가로환경개선 사업’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실무자들은 가로환경개선 사업보다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공공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실무자는 ‘도심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복합 공간 조성사업’을, 조경실무자는 ‘지자체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다른 분야 실무자에 비해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22〉 공공성 강조 필요 영역

IV.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개요
2.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관계
3. 갈등의 유발과 해소과정
4. 계획의 기본방향 및 설계내용
5.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a u r i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개요

1) 사례 분석 대상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개념의 확대에 따라, 본 사례분석에서는 공공성 관련 지표설정을 통해 공간조성결과 위주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조성과정에서의 공공성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정에서의 공공성은 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조성과정에서의 다양한 주체 참여, 기본계획 및 설계, 논의 조정과정, 시공까지는 물론, 시공이후 사용과 이용에 대한 관리·운영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즉, 과정에서의 공공성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간 또는 시설이 조성된 이후 관리·운영까지 일련의 흐름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분석들은 설계내용측면 또는 완성된 공간의 물리적 측면 또는 완성된 공간에서의 이용실태 측면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정에서의 공공성은 기획단계 혹은 참여·조정단계 혹은 기본계획·설계단계 혹은 관리·운영단계 전체 또는 하나가 우수하다고 하여 ‘공공성’이 높다고 보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일 주체의 일방향적인 진행보다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논의, 조정, 합의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례 대상은 기획에서부터 관리·운영단계까지 ‘공공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나 이슈, 쟁점 사항이 있었던 사례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크게는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 프로젝트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경우 공공건축물은 공공에 의해 일방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다수이고, 민간건축물은 ‘공공성’을 이슈로 진행된 사례가 많지 않고⁵⁹⁾ 관리·운영 측면에서 특별히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어 제외하였다.

과정에서의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살펴보기 위한 주요 사례연구 대상으로 한평공원, 담장허물기, 광주 푸른길, 남부재래시장 등이 있으나, 현대적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증진하는데 주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서울숲, 서울광장, 홍대앞 놀이터,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표 13〉 사례 분석 대상 개요

사 례	조성시기	면 적(m ²)	공공성 관련 주요사항	주요 관련 주체
서울숲	2003.03 ~ 2005.06	1,156,498	파트너십을 통한 공간조성과 관리운영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과 서울 숲 관리사무소 서울 숲 사랑모임 등
서울 광장	2003.7 ~ 현재	13,207	교통광장을 보행광장으로 변경	서울시 시민광장조성위원회 시정개발연구원 등
안양 예술공원	2003.10 ~ 2005.11	209,000	복합예술을 통한 공공공간 개선	안양시 공공예술 추진위원회 안양시 공공예술팀 안양시 공공예술재단 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등
홍대앞 놀이터	2003 ~ 현재	2,230	장소성을 고려한 지역의 문화거점 조성	공간문화센터 홍익상인회 시정개발연구원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마포구청 문화체육과 등

59)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표적인 건축물로 인사동의 ‘쌈지길’이 있으나, 역사지구인 인사동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에 따른 사회적 이슈와 쟁점들로 일반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부적합한 사례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2) 사례 대상 개요

(1) 서울숲



〈그림 23〉 서울숲의 모습

서울숲은 서울시 민선3기의 공약인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개발계획이 검토·추진 되어온 뚝섬에 생태공원을 조성한 프로젝트이다. 서울숲은 조성과정에서부터 조성 후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참여하고 행정과 시민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된 사례로, 조성과정에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를 통한 시민참여를 통해 기금조성과 식재가 이루어졌으며, 조성 후에도 서울숲 사랑모임(서울그린트러스트의 산하조직)과 서울시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소프트웨어분야(프로그램 운영)와 하드웨어분야(시설관리)의 역할분담을 통해 관리·운영하고 있다.

〈표 14〉 서울숲 사업 개요(2005년 6월 18일 개정)

- 면적 : 1,156,498㎡
- 조성비 : 2,300억원 (공사비 610억원)
- 주요시설 : 5개 테마 공원
 - 문화예술공원(220,000㎡) : 잔디광장과 야외무대, 다양한 스포츠 공간
 - 생태숲(165,000㎡) : 사슴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자연공간과 보행가도
 - 자연체험학습원(85,000㎡) : 곤충식물원, 갤러리정원, 시민의 숲 등
 - 습지생태원(70,000㎡) : 유수지 및 습지생태원, 환경놀이터 등
 - 한강수변공원(66,000㎡) : 한강과 연계된 수변공원

〈표 15〉 서울숲 조성사업 추진경위

시 기	추진경위	비고
2002. 12	서울 그린비전 2020 제안	
2003. 01	서울숲 조성계획 발표	
2003. 03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협약 체결	
2003. 06	주민설명회	
2003. 07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2003. 12	서울숲 조성공사 착공	
2003. 05 ~ 2005. 04	시민 기금 조성	
2005. 05	서울숲 사랑모임 발족	
2005. 06	서울숲 개장 서울숲 숲속 작은 도서관 개관	



〈그림 24〉 서울숲 조망도

(2) 서울광장

서울광장 조성사업은 교통광장이었던 시청 앞 광장을 보행광장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 광장으로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2002년에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2004년 완공되기까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사이의 갈등, 서울시와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 등으로 조성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으나 2004년 5월 1일 ‘잔디 광장’ 으로서 시민들에게 공개된 이후 매년 하이서울페스티벌 등의 축제와 각종 행사가 열리고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으로 사용되는 문화·휴식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표 16〉 서울광장 개요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 면적 : 총면적 13,207㎡, 잔디광장 6,283㎡
- 개장시기 : 2004년 5월 1일
- 도시계획현황 : 일반상업지역
- 소유 및 관리 : 서울시청 청사운영팀
- 조성비 : 40억 원
- 시설 정비비 : 개장 후 3년간 유지보수비 약 5억 원
- 주요 시설 : 바닥분수, 잔디광장 둘레 48개의 조명등



〈그림 25〉 서울광장 전경

〈표 17〉 서울광장 조성 추진경위

시기	추진경위	비고
2002. 07	서울광장 조성계획 발표 기본계획 연구 의뢰	
2002. 08	서울광장조성 추진위원회 출범	시민광장조성위원회 로 명칭 변경
2002. 11	시민광장 기본계획안 발표 및 디자인 설계 현상공모	
2003. 01	서울광장 설계 당선예정작 ‘빛의 광장’ 선정	
2004. 02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이 아닌 잔디광장으로 조성계획 발표	
2004. 03	잔디광장 조성사업 착공, 광장 이름 공모	서울광장으로 확정
2004. 04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상정	
2004. 05	1일 ‘서울광장’ 개장, 조례안 통과	
2004. 12	서울광장 용도변경 안건심의 보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2005. 01	서울시 청사운영팀 신설(광장운영팀, 청사관리반 통합)	
2005. 02	서울광장 용도변경안 재상정, 시의회 심의에서 보류됨	



〈그림 26〉 서울광장 조성 전(좌)과 조성 후(우)

(3) 안양예술공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Anyang Public Art Project)는 ‘안양아트시티21’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예술 도입 프로젝트로서 일정 주제에 따른 퍼포먼스와 환경조형물, 건축물 등의 예술 작품을 안양 시내 특정장소에 설치 전시하여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2005년부터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의 안양예술공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제1회 안양공공예

술프로젝트(2005)는 낙후된 안양유원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예술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이다. 제1회의 성공을 통해 공공예술프로젝트의 개념을 도시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07년 제2회는 평촌 신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3회는 공간적 범위를 전체 도시 환경 영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표 18〉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개요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개요
 - 1단계(2005) : 안양유원지의 안양예술공원화
 - 2단계(2007) : 도심 내부의 공공예술 확대
 - 3단계(2010) : 공공 및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전체 도시 환경 영역으로 공공예술 확대
-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2005)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안양유원지
 - 면적 : 209,000㎡
 - 사업내용 : 낙후된 안양 유원지를 예술공원으로 조성
 - 전시일정 : 2005년 10월 21일 ~ 12월 15일
 - 전시프로그램 : ‘역동적 균형’을 주제로 이와 어울리는 퍼포먼스와 영상, 인공폭포를 비롯한 무대, 광장, 산책로, 전시관, 전망대 등 총 90여점(52점 영구보존)의 건축물, 환경조형물 작품이 전시됨



〈그림 27〉 오징어정류장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그림 28〉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개막식(출처 :
오마이뉴스, 최병렬)

〈표 19〉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추진경위

시 기		추진경위
2002	04	AAC21 관련 사례지 답사
	07	AAC21 건축자문단 구성
2004	02	「안양아트시티21」 기본계획 수립
	08	공공예술추진기획단 구성
	12	안양시 공공예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5	01	APAP 2005 예술감독 선정(이영철)
	02	사무국 개설
	11	APAP 2005 개최
2006	04	APAP 2007 예술감독 선정(김성원) 및 예술도시기획단 신설
	11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2007	02	안양공공예술재단 공공디자인팀 신설
	03	공공디자인감독 선임(최정심)
	07	비토 아론치 안양시에 이의제기, 안양지역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0	APAP 2007 개최

(4) 홍대앞 놀이터



〈그림 29〉 홍대앞
놀이터에서 열리는
프리마켓

서울시는 문화관광부의 추진아래 2002년 월드컵 장소마케팅의 일환으로 문화 활성화를 사업을 진행하였다. 홍대앞 놀이터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은 이러한 문화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계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마포구청, 홍익상인회(지역상인단체), 문화예술집단,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등의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된 사례이다. 이 사업은 두 차례에 걸친 놀이터 시설 정비와 함께 ‘놀이터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내외국인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놀이터 공간을 홍대문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현재 홍대앞 놀이터는 공간문화센터, 일상예술창작센터, 홍익상인회 등 지역 내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행사,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클럽데이 추진위원회의 전시회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홍대의 자생적인 문화공간 성격을 부여해주면서, 단지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본격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20〉 홍대앞 놀이터 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제1종 일반주거지역)
- 면적 : 2,230.1㎡
- 정비시기 : 2002년 3월~12월
- 소유 및 관리 : 서울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 행사진행 사업비: 1,000만원 (2002년 놀이터 프로젝트)

〈표 21〉 홍대앞 놀이터 정비사업의 추진경위

시기	추진경위	비고
2002	02	홍대신문문화포럼(NGO)발족
	03	홍대앞 놀이터 조성계획 발표 제1회 놀이터 워크숍 개최
	04	제2회 놀이터 워크숍 개최
	05	제3회 놀이터 워크숍 개최
		‘홍대앞 놀이터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마포구에 제출
	06	2002 놀이터프로젝트 개최(프리마켓, 공연, 전시, 투어버스)
	07	놀이터 정비 관련 주민설명회
	10	제4회 놀이터 워크숍 개최 놀이터 정비 공사
2004	05	프리마켓 불허통보
2005	01	청소와 관리를 경로당 어르신들께 맡김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관계

2

과정에서의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별로 기획단계에서의 공론화 과정, 조성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 조성과정에서 가치공유와 사회적 합의과정, 계획 기본방향 및 설계내용, 운영 및 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한다⁶⁰⁾.

먼저 공간조성과정에서 어떠한 주체들이 어느 단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참여 주체의 역할 및 주체 간 갈등 또는 협력관계를 살펴본다. 이것은 과거 행정이 독점하고 있던 공공역역에 새로운 공공으로서의 NGO의 참여 가능성과 그들의 역할, 혹은 새로운 주체의 범위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1) 서울숲

서울숲 조성과정의 참여 주체로는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시민단체인 서울그린트러스트를 들 수 있다. 서울시는 숲을 조성할 것을 결정하고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사업을 추진한 주체로, 조성 후 현재 시설관리를 맡고 있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매칭펀드 협약체결로 조성과정 초기에서부터 서울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참여를 해왔으며 조성 후 관리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현상공모에 의해 당선한 설계전문가의 참여와 식수행사 등 숲 시공과정과 숲 운영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있었다. 서울숲 조성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숲 조성과정에서 서울시는 우선 뚝섬을 개발할 경우 4조원 이상의 커다란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상주의적인 도시개발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문화 인프라로서의 도시공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자연친화적 대규모 공원녹지 조성계획’을 결정하였다. 이후 공원녹지 조성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협의과정을 통해 동북부 지역에 대표적인 거점공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뚝섬을 최종 공원부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부지현황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공간의 범위를 결정

60) 기획단계에서의 공론화 과정은 공공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슈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생략한다.

하고 기본방향을 구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조경전문가와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주변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선유도공원과 월드컵공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중심이 아닌 녹지중심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조성 후 서울시는 서울숲 공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하드웨어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칭펀드 체결에 따라 공원을 공동 관리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서울숲 운영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서울숲 사랑모임 운영활동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그린트러스트는 그린트러스트 운동 협약체결을 통하여 매칭펀드를 조성하였다. 시정부는 35만평의 토지(토지가격 약 3조원)를 제공하고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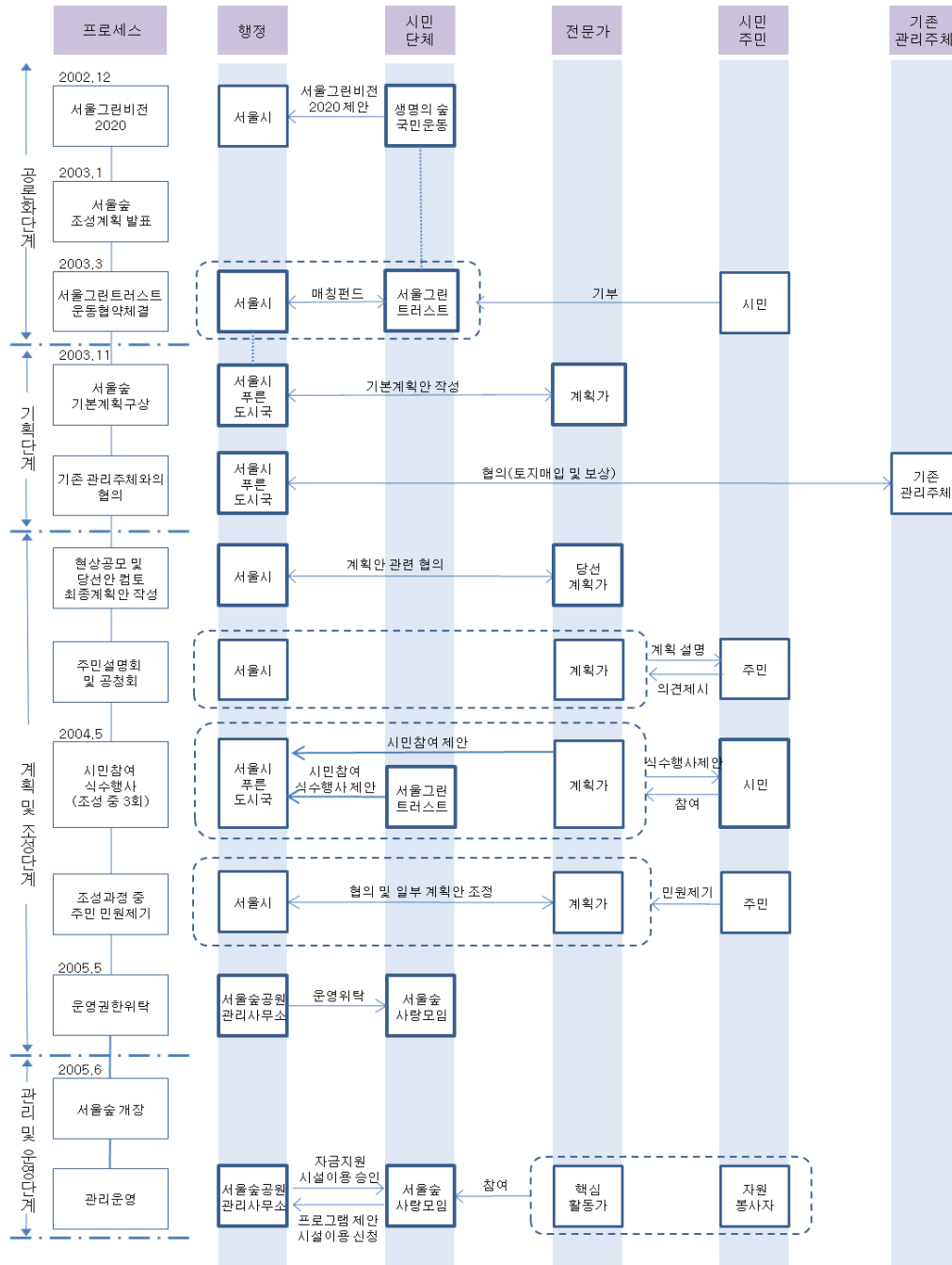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조성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성될 서울숲에 시민들의 애착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시민이 참여하는 숲의 조성은 서울시의 사업추진 목적인 동시에 서울그린트러스트가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상설계 당선안에서도 주요 개념 가운데 하나로 ‘참여의 숲’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시민이 직접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⁶¹⁾.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조성과정 뿐만 아니라 조성 후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5년 5월에 산하기구로 서울숲 사랑모임을 두어 서울시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을 공동 운영 관리하고 있다. 서울숲 사랑모임은 방문자 안내 및 모든 계층이 다양한 생태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이 서울숲을 가꾸는 자원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숲 조성과정에서 계획가(조경전문가)는 자연친화적인 대규모 공원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시 결정의 초기 기획단계에 참여하여⁶²⁾, 개발계획의 타당성과 기본방향 구상을 통해 그 대상지로 독점이 최종 결정되는데 일조하였다. 초기 기획단계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은 이후 서울숲 현상공모지침과 계획안 작성에 큰 틀로 작용하였다. 한편 현상공모로 당선된 설계사무소는 독점이라는 대상지의 역사와 특성, 서울숲의 취지를 바탕으로 ‘생명의 숲, 기쁨의 숲, 참여의 숲’을 기본개념으로 ‘진화-네트워크-재생’의 실천전략으로 계

61) 기업은 면적단위로, 개인은 한 그루씩 식수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설계과정에서 2회, 시공사 선정 후 2회 총 4회에 걸쳐 4만8천주의 나무를 시민들이 직접 심어 공원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62) 서울숲 조성과정에서 기획단계에서의 전문가 참여는 공식적인 과정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며 서울시 내부적인 진행과정에 전문가의 참여가 있었다.(관련자 심층인터뷰 내용 참고)

획을 진행하였고, 서울숲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30〉 서울숲 조성사업 참여 주체의 역할 및 관계

전술했듯이 서울숲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의 숲’을 기본개념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성과정에서는 기금조성과 식수행사에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조성 후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숲 사랑모임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서울숲은 공원 조성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함께하고 있다.

2) 서울광장

서울광장은 조성결정까지 시민과 경찰청 등 다양한 주체들과 갈등이 있었다. 조성이 결정된 이후 서울시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성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서울광장은 현상설계 당선안에 대한 논란이 붙어지면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지 못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는 1995년 ‘서울시청사 건립과 연계한 공간구상’을 비롯하여 시청 앞 광장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진행해오다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시민광장·보행광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자 도심 교통흐름에 큰 장애를 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 광장을 보행광장으로 조성할 것을 결정한다. 서울시는 시청 앞 광장뿐만 아니라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보행공간 및 광장 조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장 조성을 위해 도시·건축·조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광장 조성위원회⁶³⁾’를 조직하였다.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광장 조성위원회’는 서울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 요구사항을 주문하고 자문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다⁶⁴⁾.

또한 서울시는 광장조성 기본방향 구상을 위해 2002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연구’를 의뢰하였다⁶⁵⁾. 이를 통해 서울시는

63) 초기 서울시에서 설립한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 추진위원회”였으나, 1차 전체회의에서 ‘추진위원회’명칭을 ‘조성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위원장이 건의하여 받아들여졌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는 “시민광장 조성위원회”로 기록되어 있다. 당초 목적에 따라 초기 위원회의 활동기한, 대상지 광역적 분석 등에 대해 초기 논의가 있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인 시청 앞 광장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으며, 시청 앞 광장이 잔디광장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성위원회의 활동 역시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64) 도시·건축·조경·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28명으로 구성되어 역사문화분과, 도시계획조경분과, 교통분과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65) 연구에서는 서울도심부를 보행중심도시로 전환하고자 시청 앞과 함께 광화문, 숭례문 광장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성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할 것인가 기획단계에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연구’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성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시청앞 광장조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연구진행과정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시민광장 조성에 대한 찬반여부, 향후 이용여부, 광장활용 프로그램 및 조성방향, 광장수요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⁶⁶⁾.

이처럼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시민광장 조성위원회는 조성과정에서 광장조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현상공모를 진행하는 협력적인 과정을 가졌다. 그러나 현상설계 당선안이 실현가능한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공사비, 시공가능성,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이유로 최종안을 변경하고 지명설계로 잔디광장을 추진, 조성하는 등 일방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시민광장 조성위원회는 당선안에 대해 당선자 및 관련분야 기술전문가 등과 함께 당선안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당선안에 대한 의견과 기술적인 검토를 하여 몇 가지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당선안으로 최종 확정 발표하라는 위원회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충분한 조율과정 없이 단독으로 최종안을 변경한 것이다.

한편 시청앞 광장 조성에서 시민의 역할을 살펴보면, 2002 월드컵경기의 거리응원으로 시청앞 광장조성의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며, 기본방향 구상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참여를 하였다. 또한 개장 직전 시청앞 잔디광장의 이름공모에 시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서울광장’이 공식명칭으로 선정되는데 일조를 하였다.

한편으로 시민단체는 시민광장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서울시의 잔디광장 계획안 결정과 광장이 용·관리와 관련한 조례제정 및 용도변경에 대해 시위와 성명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장에서 서울시청사 공용부지로 용도변경하려는 계획을 무산시키는데 일조하였다.

66) 2002년 7월과 8월에 각각 시민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광장조성 찬반에 대해 1차는 78.9%, 2차는 8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안양예술공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안양시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집행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실제 사업을 추진한 예술감독으로서의 전문가, 추진위원회의 행정지원과 관리감독을 위한 안양시 공원예술과 공공예술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또한 2회 프로젝트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공공예술재단과 예술도시기획단이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 5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추진이 결정된 후, 특별조례의 제정과 시의회 예산을 거쳐 기존의 조각공원 조성을 위해 구성되었던 자문위원단은 ‘안양시 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조각공원 자문위원에 일부 보강된 추진위원회를 2005년 1월에 구성하였다.⁶⁷⁾

2005년 1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공원예술화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영철교수가 예술감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2월에 사무국 조직이 갖추어졌다. 작가의 선정 및 작품의 선정을 위해 일본 니가타현의 에즈코 츠마리 트리엔날레의 키타카와 프람 감독을 커미셔너로 선임하였으며, 예술감독이 커미셔너와 구상,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감독이 작가를 선정·연락하고 이후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004년 11월 문화예술과 내에 공공예술팀 직제가 신설되어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민간위탁금의 관리·감독과 함께 계약 및 서류 업무 등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였다. 한편 제1회 공공예술프로젝트의 무대인 안양예술공원의 관리는 공원관리팀이 관리하고 있으며, 알바로시자의 전시관만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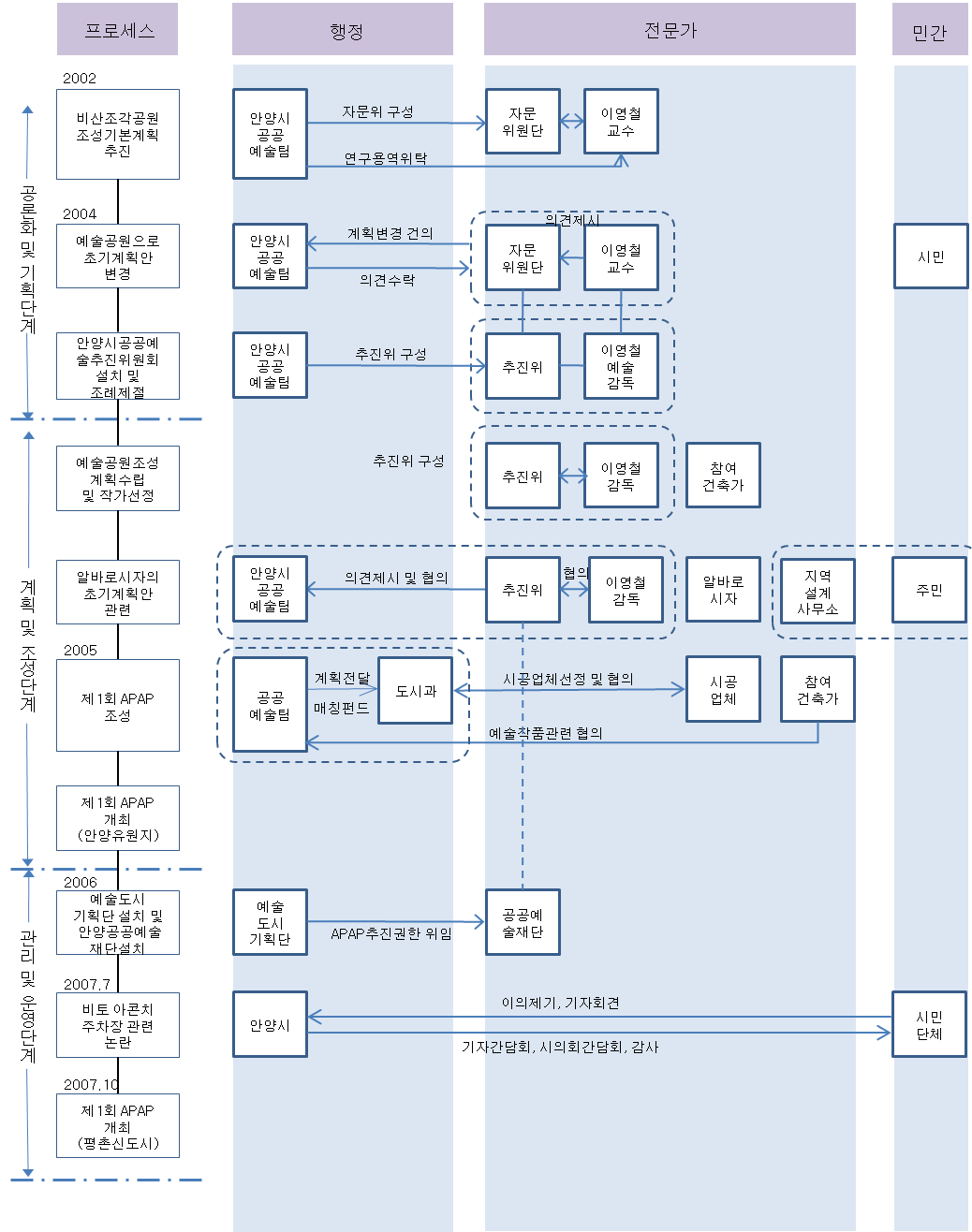
제1회 공공예술프로젝트 개최 후 공공예술프로젝트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의 추진위원회가 폐지되고 공공예술재단이 2007년 1월에 출범되었다. 공공예술재단은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시가 위탁하는 공공예술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무대인 신도시 일대의 관리를 맡고 있다.

공공예술재단에 앞서 2006년 4월에 예술도시기획단⁶⁸⁾이 신설되어 공공예술

67) 사업비용으로 확보된 29억 1400만원의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조성하여 추진위의 집행위원회에서 주로 소규모의 예술품 설치비용과 작가에 대한 작품비로 집행되었으며, 건축물의 시공비와 조성비용은 도시개발과의 안양유원지 재개발예산에서 집행하였다.

68) 예술도시기획단의 단장은 공공예술재단의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다.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및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2〉 안양예술공원 프로젝트 참여 주체의 역할 및 관계

4) 홍대앞 놀이터

홍대앞 놀이터는 다른 사례들과 달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공간문화센터라는 전문가의 주체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지역상인들로 구성된 홍익상인회와 마포구청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관파트너십에 의해 진행된 사례이다.

2001년 12월에 월드컵 관련 장소마케팅을 검토 중이던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공간문화센터는 홍대와 신촌 지역에서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서울의 문화적 특성으로 마케팅하는 지역만들기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그동안 고립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개별 활동을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는 휴먼인프라로서 홍대·신촌 월드컵 문화포럼을 결성하기로 한다.

2002년 2월에 홍대·신촌 월드컵 문화포럼이 개최되고 그 동안 발족을 준비해 온 준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전환되고, 공간문화센터가 간사단체로 실무를 집행하면서, 공간문화센터의 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하게 된다. 공간문화센터는 월드컵 행사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던 홍대앞 놀이터를 야외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놀이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놀이터 정비를 위한 논의에 다양한 지역의 주체가 참여하는 놀이터워크숍을 개최하게 된다.

공간문화센터의 주도로 홍익상인회와 클럽연합이 참여하여 홍대·신촌 월드컵 문화포럼이 결성되었으며, 이들은 놀이터워크숍, 놀이터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월드컵 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벤트의 기획과 추진, 실행에 참여하게 되었다. 신촌문화포럼은 월드컵이후 지원이 끊기면서 자연해산하였고, 현재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공연은 승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모가 있는 공연의 허가는 실질적으로 마포구청이 아닌 민원권리를 가지고 있는 홍익상인회가 가지고 있다.

2002년 6월 놀이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프리마켓사무국을 조직하고 예술시장 프리마켓이 시작되었으며, 프리마켓 행사는 월드컵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7월에 프리마켓 1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고, 7월에 프리마켓사무국을 발전시킨 일상예술창작센터가 창립되어 현재까지 프리마켓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일상예술창작센터는 창작자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집단으로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예술시장 프리마켓’을 홍대앞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열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월드컵을 지향한 장소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홍대·신촌지역 장소마케팅 전략을 공간문화센터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수립하였으며, 장소마케팅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민관파트너십 조직 구성, 클럽문화육성 시범지구 구성, 공공공간의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행사 지원, 지역문화 홍보매체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민관파트너십 조직 구성’은 홍대·신촌 월드컵 문화포럼의 결성으로, ‘공공공간의 문화공간 조성’은 놀이터 정비와 놀이터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월드컵지원연구단은 홍대·신촌 월드컵 문화포럼의 결성을 지원하면서 홍대·신촌 월드컵 문화포럼 대표자회의에도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지역단체간의 의견전달 및 의견조율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울시가 추진한 문화활성화의 일환으로 놀이터의 정비에 참여한 마포구청 놀이터 워크숍 참여, 계획안 설명회 개최 등 민관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월드컵 행사가 종료 후 마포구청은 행정의 입장으로 되돌아가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의 용도로 되어있는 놀이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활동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공연·문화 활동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과는 공원녹지과와의 마찰로 놀이터에 대한 관리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3 갈등의 유발과 해소과정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공공성과 관련한 갈등 내용과 구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한 과정을 파악한다. 이것은 결정된 계획안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나 의견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종래의 사업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관계있는 주체간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1) 행정과 지역주민(상인)과의 갈등 유발과 해결

최근 사업진행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등 여러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어떠한 공간이나 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특정 주민들의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서울숲 조성과정에서도 최종계획안이 확정된 후 세 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가졌으나 시공과정 중에 주변 아파트주민과 체육동호회 등 개인적·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다. 공청회 당시에는 지역에 대규모의 공원이 조성된다는 사실 자체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져 특별한 마찰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 관련시설들이 시공되는 것을 보면서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매연 등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그림 34〉 지역주민의 민원제기에 따라 위치가 변경된 서울숲 주차장

주차장 위치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체육관련 동호회에서는 운동시설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축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을 이유로 축구장과의 이격거리를 15m에서 30m로 넓힐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였다.

한편 안양예술공원 프로젝트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유원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주차장, 공공화장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가 중단되고 조각공원에서 예술공원으로 조성계획이 변경되자, 유원지 정비를 진행해온 공사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 조각공원을 기대했던 지역 예술인들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숲 조성과정에서의 민원제기는 지역 또는 서울시민의 이용이나 공공성보다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안양예술공원의 경우 역시 유원지의 특성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성보다는 관련된 사업주체로서 사업 중단 또는 변경에 대한 손실에 따른 갈등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숲의 경우 제기된 주민과의 갈등사항에 대해 대화와 협력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사업전체의 취지가 몇 가지 사소한 민원으로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서울사에서 일방적으로 민원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였다.

반면 안양예술공원 프로젝트에서는 설명회와 현지 견학을 통해 관련자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해결하였다. 즉, 안양시는 2003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였고 동경 다치가와시 및 에치고-즈마리 트리엔날레 시찰 등의 해외 견학으로 사례를 연구했고, 주민과 지역예술인들에게 수차례의 설명은 물론 직접 서울의 쌈지길부터 일본의 니이가타현까지 견학을 통해 공공프로젝트를 이해시키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문화적 인식의 향상을 도모하였다.⁶⁹⁾



〈그림 35〉 안양공공공원 프로젝트 지역 상인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 모습 (출처 :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69) 지역개발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건축문화, 2005.10

한편 홍대놀이터의 경우 놀이터의 정비와 문제해결, 마포구와의 의견 조정을 위해 위의 사례들과는 다른 ‘워크숍’이라는 형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홍대놀이터 워크숍은 놀이터의 정비 및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홍대신촌문화포럼, 공간문화센터, 홍익상인회 등 지역 내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네 차례(3월, 4월, 5월, 10월)에 걸친 놀이터 워크숍에서는 마포구의 입장과 계획안을 각 지역단체의 회원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놀이터 정비 방향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홍대앞 놀이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홍대놀이터 워크숍은 일차적으로 구청의 일방적인 놀이터 정비계획과 추진에 제동을 걸고 놀이터 정비에 주민, 상인, 시민 및 문화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차적으로는 주민 주도 및 민관 의사소통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내 단체들의 놀이터 문화행사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인 문화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표 22〉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해결 사례

구분	주요 갈등사안	해결방법	결과
서울숲	주차장 위치 변경 운동시설 위치 조정 등 민원제기	서울시의 일방적 민원수용	주민들이 요구한 위치로 주차장, 운동시설 위치 변경
안양 예술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공공시설의 설치 중단 및 조각공원에서 예술공원으로 계획 변경	기획단을 구성해 주민들과 지역예술인들에게 설명회 개최 및 현지견학 시행	문화적 인식 향상 도모 예술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홍대앞 놀이터	놀이터 정비 및 이용전반	4차에 걸친 워크숍 진행	놀이터 정비에 다양한 의견 반영 일상적 문화프로그램 운영

안양예술공원과 홍대앞 놀이터에서 행정과 주민의 갈등은 사업의 성격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거나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워크숍이나 현장 답사 등은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행정과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와의 갈등 및 해결

사업진행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한 자문의 역할에서부터 사업의 실제적인 추진주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자로서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행정주체로서 공공과 사업추진자로서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숲 조성과정에서는 시민단체인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서울시가 생태숲을 조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로 갈등이 있었다. 외형적 결과물을 중시하는 서울시는 2년 내 완성된 숲으로서의 준공을 목표로 서울숲을 조성하려고 한 반면, 서울그린트러스트는 20년 후를 완성된 숲으로 보고 장기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연도의 설정 차이로 식수에 있어 갈등이 빚어졌는데, 결국 이에 대한 의견조율은 실패하여 식수방법에서는 부분별 쪼개갓기 식으로 큰 나무와 어린 나무를 영역별로 심고, 초기에는 중간정도 크기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서울광장의 경우, 전문가와 행정사이의 갈등사례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설계안 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상공모에 의해 당선된 ‘빛의 광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재정과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2003년 12월 당선자와 조성위원들의 참여 없이 시장보좌관회의를 열어 당선안을 최종안에서 취소하고, ‘2004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 일정에 맞추어 임시로 잔디광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당선자는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범설치 등 많은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서울광장의 설계안 변경 갈등문제는 당선자의 사전양해와 이해나 전문가 자문역할을 수행하였던 시민광장조성위원회의 의견조율 없이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안양예술공원 프로젝트에서도 참여 작가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갈등사례가 있었다. 2007년 7월 제1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 비토 아콘치의 주차장문제인데, 시공 후 작자가 작품의 완성 여부, 작품 명칭의 변경, 설계시공 과정 등에서 작가의 양해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에



〈그림 36〉 논란이 된 비토 아콘치의 주차장

대해 작가가 정식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안양시민 단체에서 사업과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작품 조성에 투입된 23억원의 비용에 대해서도 예산낭비를 이유로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비토 아콘치와의 갈등사례는 사업추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와 예산 집행상의 문제 등으로 야기된 것으로 문제해결방식을 떠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의 논의와 합의과정의 중요함을 일깨워준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23〉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와의 갈등과 해결 사례

구분	주요 갈등사안	해결방법	결과
서울 숲	생태숲 조성방식	협의	중간정도 크기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합의
서울광장	'빛의 광장' 에서 '잔디 광장' 으로 설계안 변경	논의과정을 가졌으나 최종 결정은 행정 일방적으로 결정	잔디광장으로 설계안 변경, 잔디광장으로 개장
안양 예술공원	비토아콘치 작품 문제	추진과정 해명	-

이처럼 행정과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간의 갈등 및 해소과정은 사업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과 조성결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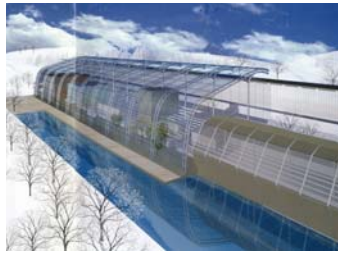
3) 행정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갈등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사업 조성과정에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최종 의사결정시 행정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공공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숲의 경우, 초기 기획단계에서 조성부지의 일부를 역세권 개발부지로 계획하여 사업소요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려고 하였다. 이 부지를 초고층의 주상복합빌딩이 들어서는 부지로 매각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서울숲이 주상복합빌딩 입주자의 소수 정원으로 전락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옛 경마장 스탠드의 흔적을 남기면서 시민들을 위한 전망대와 쉼터를 제공하는 ‘서울숲 윈터가든’ 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 서울시는 1조원 이상의 토지매각 수익을 얻게 된다.



〈그림 37〉 서울숲 주상복합개발부지



〈그림 38〉 시민단체 계획안 : 서울숲 윈터가든



〈그림 39〉 주상복합개발계획안

행정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갈등 사례는 서울광장 조성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권리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광장’에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이 있다.

기존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의해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만으로 집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광장이 시위장소로 전락하면서 광장 훼손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서울광장의 사용과 권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광장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허가를 금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와 광장 훼손 시 원상회복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설관리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와 대부분의 항목이 광장조성취지에 어긋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시민단체 간 의견이 대립되었다. 시민단체는 조례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징수, 원상 회복 등과 관련한 대부분의 항목이 광장 조성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광장이 가지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의 조례가 상위법인 집시법보다 엄격한 규정을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건축연대, 도시연대, 경실련,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례안 통과반대시위 및 성명서를 제출하여 서울시장의 사용허가와 광장

사용의 유료화 등 일부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⁷⁰⁾ 그러나 결국 2004년 5월 4일 서울시의회의 찬성(찬성 54, 반대 1)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권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공공재산인 ‘광장’에서 공용재산인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여⁷¹⁾ 또 다시 시민단체와 갈등이 발생하였다. 서울시는 청사와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시민 단체는 공공공간의 합리적 관리 는 필요하지만 용도변경의 추진은 잔디보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니 법적으로 시청사 일부로 포함시켜 광장을 확실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용도변경 문제는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지만 법적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의 심의가 보류되어 무산되었다.

〈표 24〉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갈등 사례

구분	주요 갈등사안	해결방법	결과
서울 숲	역세권 개발부지 매각	시민단체 ‘원터가든’ 제안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제안한 ‘서울숲 원터가든’ 무시 토지매각으로 1조원 이상의 수익얻음
서울광장	조례제정	시민단체 조례안 통화반대시위 및 성명서 제출	서울시의회의 찬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권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2004. 5. 4)
	용도변경 추진	시민단체에서 철회요구	시의회의 심의 보류로 무산

이처럼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에 따른 갈등 사례는 행정이 지역주민이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 성과주의위주에서 비롯되고 있다. 서울광장에서와 같이 관련 주체들과 의견조율과정이 미비한 공공의 일방적인 결정은 표면상으로 공익, 공공성을 표방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을 발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공간의 공공성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70) 시민단체의 의견 : “시가 광장 이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단체 등의 행사를 통제하려 할 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광장을 채워나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청앞 광장은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소통하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시민주권의 공간 이어야 한다”(한겨레신문, 2004년 5월 3일자)

71) 시청 앞 광장이 국유재산법상 공공재산에서 공용재산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면 시청사의 부속부지로 일반인들은 광장 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경찰 역시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신고를 받을 때 반드시 시와 협의해야 한다.

계획의 기본방향 및 설계내용 4

계획의 기본방향과 설계내용이 ‘공공성’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건축·도시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담론을 형성해온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 지역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개발이라는 측면에 한정하여 계획과정에서 지역성·장소성의 구현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인 사안들을 파악한다. 이것은 공공성이 구현되어야 할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에서 개발지향적이고 환경미화적인 지역개발의 현주소를 인식함으로써 문화적 차원의 지역개발로 인식 전환이 될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1) 장소성·지역성을 고려한 기획의도

서울숲 조성에서는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크게 ‘네트워크’, ‘진화’와 ‘재생’을 설계의 주요전략으로 설정했다.

네트워크 개념은 도로로 인해 주변과 단절되어 있는 부지를 주변지역과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도로로 단절된 부지를 사람의 길과 숲으로 연결하고, 주변의 한강, 중랑천, 응봉과의 연계를 통해 단절된 수상-육상 생태계를 연결하여 서울시 녹지축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는 설계 주요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숲 현상설계지침에 딱도 정수장, 딱섬유수지 등 기존 시설과 부지현황을 고려한 계획을 지침으로 제시함으로써 재생의 개념을 반영하였다.

〈표 25〉 서울숲 일반설계지침에서의 기존 시설관련 지침내용

-
- 딱도 정수장의 경우, 단계별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할 예정이므로 전체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설계하되, 정수장의 특성을 살려 물을 주제로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제안하고 정수장내에 있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72호 “열린공간” (우리나라 최초의 상수도 시설, 현재 수도박물관)의 연계 방안 및 1단계 폐쇄 예정인 1공장과 폐천부지 및 공원 주변과의 연계성(동선·연결방법 등), 활용방안을 검토·제시
 - 딱섬 유수지의 경우, 방재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유수·저수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친자연적인 생태유수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대중골프장의 경우, 지장물의 철거 및 보완 식재 등을 통해 피크닉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계획
 - 운동장의 경우, 테니스장, 축구장 및 주말농장 등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모 축소, 폐쇄 또는 위치 변경 등을 제안하되 최소 1개소 축구장은 잔디구장 또는 초지구장으로 계획하고 위치적으로 가능하다면 야구장도 함께 제안하여야 함
 - 승마장은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
-

서울숲 부지에는 조성전에 골프장과 경마장, 정수장, 레미콘부지 등 여러 시설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상설계지침의 의도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숲과 이질적인 요소로 보고 없애버리기 보다 이러한 흔적을 충분히 고려하려는 기획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적 상징성과 역사성을 지닌 대표적인 장소인 서울광장은 장소성과 역사성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에는 서울시의 장소성과 역사성 그리고 사회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중심공간이자 상징공간으로서, 동시에 비워진 공간으로서 조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설계지침에서도 광장조성의 기본방향으로 “시청앞 광장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 지리적 특수성 및 시민 문화공간으로의 특성을 최대한 발굴”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표 26〉 서울광장 추진 목표

목표	세부목표
보행자 중심도시로 전환	도시문화벨트 형성 보행중심·인간중심 도시 공간 추진 ➡ 장소성 강화
서울의 도시이미지 구현	역사적 상징성을 문화인프라로 구축 랜드마크로써 도심광장 조성 ➡ 장소성 강화 역사성 강화
도시 활력 증진, 삶의 매력 증진	도로로 고립·단절되었던 문화자원 연계 시민중심의 보행광장·문화광장 조성 다양한 문화행사 및 교류·휴식의 공간 ➡ 사회성 강화

출처 : 서울특별시,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연구,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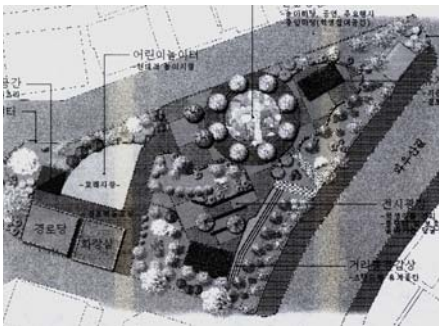
한편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는 초기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가 기존의 조각공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의 기본방향을 수정하였다.

안양시는 이전에도 안양유원지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서 공원조성계획으로 변경, 조각공원 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질서한 상업시설과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이미 황폐화된 유원지의 문제를 몇몇의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존의 조각공원은 유명 조각품을 모아 놓은 예술품의 단순한 야외전시장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조각공원에서 예술공원으로 계획방향을 변경하였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유원지의 지형과 역사적 흔적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감상자의 측면에서 예술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접촉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안양공

공예술프로젝트는 같은 예술품이라도 단순히 감상만 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흔적을 함께 고려하고 느낄 수 있는 예술공원의 조성을 통해 지역의 장소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같이 특정 지역의 공간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을 형성하려는 또 다른 사례로 홍대앞 놀이터가 있다. 홍대앞 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인 홍대앞 놀이터 계획은 당시 홍대전철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상업화되고 있는 흐름에 대응하고 클럽문화, 고급카페 문화, 전시·예술·공연문화라는 홍대의 이미지를 놀이터공간에 담아내어 홍대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공공공간으로서 놀이터 본연의 기능은 축소된 계획이라 할 수도 있으나, 놀이터가 상업화되는 것을 막고 지역의 장소성을 고려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마포구청은 서울시가 추진한 문화활성화의 일환으로 놀이터 정비에 참여하면서 놀이터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마포구청이 제시한 안은 각종 시설물과 나무로 채우고 있었는데, 이러한 계획안은 어린이 공원이라는 형식에 구속되어 녹지 조성과 공간디자인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실제 이용수요와 괴리된 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⁷²⁾



〈그림 40〉 홍대앞 놀이터 정비계획 초기 안



〈그림 41〉 홍대앞 놀이터 정비계획 확정안

당시 홍대신촌문화포럼은 놀이터가 어린이공원으로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놀이터 정비는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하며,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녹지 비율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놀이터워크숍에서의 논의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급적 미니멀하게 공간을 조정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로 채워갈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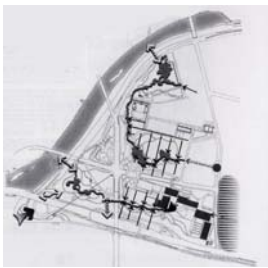
마포구청이 제시한 놀이터 정비안은 기존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소적 특

72) 홍대신촌문화포럼이 놀이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마포구청에 제시한 ‘홍대앞 놀이터 정비에 관한 포럼의 의견’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성과 이미지보다는 형식적인 기능에 충실한 계획으로 계획의도에 따라 공간의 물리적 성격과 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대앞 놀이터의 경우 마포구청의 안은 공간의 특성과 이용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였으나 그 외의 사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지의 지역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소성·지역성을 고려한 설계(안)



〈그림 42〉 주변과 연계를 위한 개념 스케치



〈그림 43〉 한강으로 연계를 위해 조성된 보행교



〈그림 44〉 부지교환으로 습지 초화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준 성수중학교

현상설계에 의해 당선된 서울숲 설계안은 도로에 의해 공원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도로에 의해 단절된 한강과의 생태적 연결을 위해 일부는 도로를 복개하고 일부는 하부를 뚫어 수상으로 생태통로를 조성하였다. 생태숲을 지나는 보행로는 공중으로 띄워 간섭을 줄이고 조망효과도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성수중학교 건물 일부를 축소하고 부지교환을 제안하여 성수중학교에 의해 습지 초화원으로의 접근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이 제안은 조성과정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조가 이루어져 서울숲 광장에서 습지초화원으로의 보행 동선이 확보되었다.

한편 기존의 뚝도 정수장은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와 체험학습장, 수도박물관으로 조성되었으며, 뚝섬 유수지는 습지초화원과 조류관찰대로 조성되었다. 기존 시설을 고려한다는 기본방향은 이처럼 설계에 반영되어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과거의 흔적을 남겼으며 동시에 공원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5〉 뚝섬유수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서울숲 습지 초화원과 조류 관찰대

그러나 서울숲 조성과정에서 기존 시설물과 흔적을 살리려는 계획이 모두 실현된 것은 아니다. 설계가는 경마장이 있었다는 흔적이 되는 기존 3층 규모의 경마장 스탠드 일부를 남겨 스탠드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관리사무실과 유스호스텔을 계획하였으나, 당선안 검토·조정과정에서 성수역 역세권 부지 범위를 조정하면서 경마장 스탠드를 모두 없애고 역세권 개발부지로 결정하면서 이 계획안

은 무산되었다. 다만, 기존의 경마장 트랙은 향후 건설될 성수역 역세권에 대한 개발구상안과 중앙의 가족마당 동선에 활용되어 그 흔적만은 남기게 되었다.

서울숲과 달리 서울광장은 대상지 자체보다는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여건에 대한 고려와 주변의 역사적인 공간들과 관계하는 장소성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했던 과제다. 이에 따른 계획안은 역사성이나 장소성에 대한 해석에 따라 그것을 담아내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안에 대해 이를 담아냈다가나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당선예정작이었던 ‘빛의 광장’ 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모습을 전통적 요소에서 찾기보다는 현대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에 다른 안들에 비해서 역사·문화적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는 대한문의 어간과 원구단 공원, 황궁우를 연결하는 축선을 따라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방법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수법으로 처리하고 있다.⁷³⁾ 덕수궁과 황궁우의 직선상



〈그림 46〉 ‘빛의 광장’ 계획안

에 볼라드를 배치하고 투시도 형식으로 보여지도록 계획하여 대한문과 1999년 10월 28일 건립된 황궁우를 살리는 디자인을 하였고, 중요한 요소는 태평로와 소공로로, 소공로의 축 방향을 따라 음악분수를 배치하여 역사성을 고려하였다.⁷⁴⁾ 이처럼 대상지가 지닌 역사적 해석을 전통에서보다 현대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정보화’라는 단어로 압축하였으나 모니터라는 소재가 깔린 광장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주변의 맥락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도 했다.⁷⁵⁾

서울광장은 계획안의 결과물과 상관없이 기본계획의 구상과 현상설계 방향을 논의하던 조성위원회 회의, 현상설계지침, 그리고 현상설계에 참여했던 계획가들 모두 시청 앞 광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상징성·장소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고려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각공원에서 예술공원으로 기본방향을 변경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건축, 미술, 조경, 디자인의 복합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알바로시자, 엠브이알디브이, 쿠마겐

73) 김정호(2003. 6), 환경과 조경 No.182

74) 서울특별시(2003. 12),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연구, 조성위원회 회의록중 당선자(서현) 당선작품 설명내용 중에서 인용

75) 변우일(2003. 6), 환경과 조경 No.182

고 등 해외의 유명 건축가들은 적은 설계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단순한 설치품이 아닌 과거 유원지로 명성을 가졌던 장소적 맥락을 고려한 공간구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최종 결과물이 과연 안양유원지의 장소적 맥락을 고려한 계획안이었는가 그 작가성과 장소성에 대해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었으나⁷⁶⁾,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건축, 조경, 도시계획, 환경디자인, 도시행정가 등의 전문가와 예술가가 협력하여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도시의 새로운 문화적 장소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림 47〉 안양예술공원 : MVRDV의 전망대



〈그림 48〉 안양예술공원 : 1평타워

76) 예술감독인 이영철 교수는 개별 작가들의 지나친 작가성으로 인한 유원지의 테마파크화와 자연파괴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참여작가들은 퇴락한 장소를 관광화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심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경제적 조건, 지리적·문화적 특성 등을 이해하면서 작업하였으며, 현장답사를 통하여 장소의 상황을 파악하고 참여의 의미를 공유하기를 원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영범 교수는 외국작가와의 교류를 통해 소통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좋고 브랜드화된 스타를 유지하는 국제화된 기획도 좋지만 ‘보여주기’의 개별화된 예술코드는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유원지 행락객을 수용하는 간이시설보다 더 작위적인 설치물, 에버랜드를 가득 메운 놀이기구의 순례자처럼 안내지도 없이는 찾아보기 힘든 지나친 작품 등은 여전히 스펙트럼형 관람에 머무르게 한다고 지적하였다.(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의 텍스트, space, 2005.12)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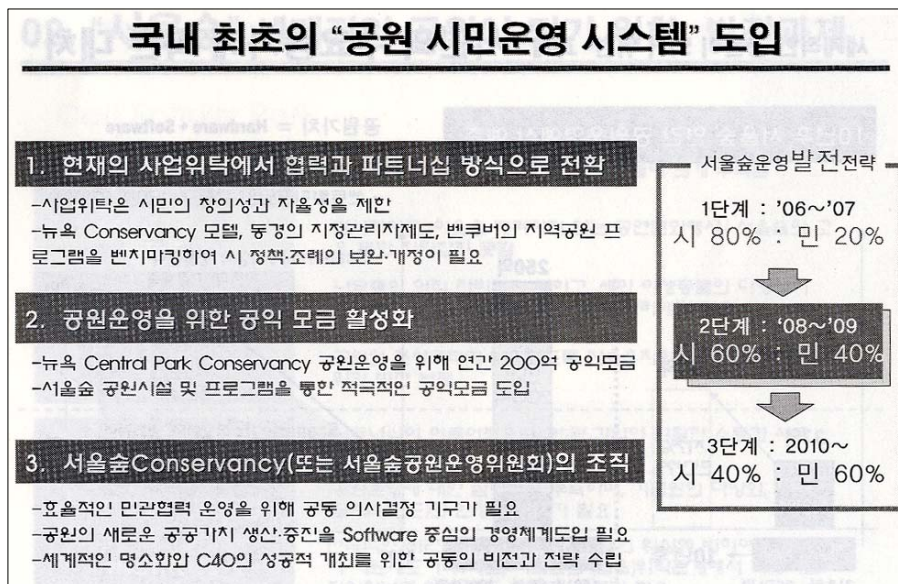
5

공간 또는 시설이 조성된 이후에 공공성을 위한 이용과 사용에 대한 관리방식 또는 운영 프로그램의 주체 및 추진현황, 특징,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이것은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공공공간 운영방식을 모색하고, 공공공간의 운영과 이용이 행정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사회자본의 활용과 다양한 커뮤니티 주체의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1) 관리·운영 체계 및 주체

서울숲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영관리에 시민참여를 도입한 공원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산하조직인 서울숲 사랑모임과 서울시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동관리하고 있다. 서울숲 사랑모임에서는 생태교육,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운영 등 창의성을 발휘하는 소프트웨어분야를 운영하며, 서울시에서는 시설물 및 재산관리 등 기본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공원관리를 담당한다. 서울시의 서울숲 공원관리사무소는 서울숲 사랑모임을 포함하여 시설 이용의 신청을 접수받아 사용승인업무를 통해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숲 사랑모임은 서울숲 개장시에 공원 관리에서의 거버넌스의



〈그림 49〉 서울숲 사랑모임과 서울시의 공원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 업무 분담율을 단계적으로 공원공동운영시스템구축(2005년-2006년), 시민 운영시스템 전환 준비(2007년-2009년), 시민이 주도하는 공원운영(2010년)을 거쳐 공원관리 업무 분담율을 20%에서 60%까지 늘리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서울숲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리·운영에서의 협의체계가 미비하여 서울숲 사랑모임은 서울시와 위탁용역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숲 사랑모임은 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한 시설사용이나 변경에 대한 권한이 제한됨으로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숲 사랑모임은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파트너십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에 효율적인 민관협력 운영을 위한 공동 의사결정 기구를 제안하고 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과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서울숲과 달리 서울광장은 서울시 단독으로 서울광장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운영을 위해 2005년 1월에 청사운영팀을 신설하였고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광장운영팀과 청사관리반 방호팀을 통합하는 내용의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청사운영팀은 잔디시설의 관리 및 교체업무를 비롯해 내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특별한 행사로 광장을 사용하고 자 할 때 이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신청을 접수받아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다⁷⁷⁾.

서울광장의 조례에 의한 운영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인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측의 입장과 서울시의 광장이용방침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청사운영팀에서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 광장의 상업화가 우려된다⁷⁸⁾. 또한 특정집단에 대해 사용제한을 가했을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⁷⁹⁾.

77) 2007년의 경우, 서울시 문화과,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경상북도 관광산업과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대한산악연맹, 성베드로학교, 동아제약 등 외부 단체 등에서 전시, 공연, 지역 행사, 캠페인, 촬영 등 170건의 사용신청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6건은 행사중복으로 불허하였으며, 3건은 취소되었다.

78) 서울시는 2006년 독일 올림픽 기간 동안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의 길거리 응원권을 민간단체에 하루 사용료 521만원에 판매하였다가 광장의 의미와 역사성 훼손 및 응원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선정된 SK 텔레콤은 광장의 독점 사용을 포기하였다.

79) 서울시는 잔디보호를 이유로 개장 이후 휠체어의 광장출입을 제한해왔다. 2007년 2월 특정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본권을 인정하여 휠체어의 잔디광장 출입을 허가하라는 결론을 내리자 서울시도 이를 수용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광장의 관리·운영은 그 주체가 다양하지 않을 경우 공공공간이 상업화되거나 독점화되어 공공공간의 공공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점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특별한 제약 없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한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격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과 달리 관리·운영을 위해 별도의 재단을 신설하여 운영⁸⁰⁾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재 안양예술공원은 공원관리팀이 관리하고 있으며 알바로시자의 전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2005년 예술공원이 개장되고 나서 많은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2006년 4월에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전담부서인 예술도시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2007년 1월에 안양 공공예술재단이 설립되었다.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흡수된 공공예술재단⁸¹⁾은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기획·조성·운영·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자원봉사 도슨트의 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도 담당하고 있다.

홍대 놀이터의 경우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주변 상인들로 구성된 홍익상인회가 공간 사용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주변의 노점상 또한 사용 권리를 주장하는 등 놀이터의 관리와 운영, 이용에 있어 여러 주체가 얽혀있는 상황이다.

마포구청 공원녹지과는 쓰레기 청소 위주로 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및 문화활동을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⁸²⁾. 또한 문화체육과는 공연·문화활동의 승인을 가지고 있으나 공원녹지과와의 마찰로 놀이터에 대한 관리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놀이터에서 이뤄지는 행사들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포구에서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공연활동 등의 실제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주체는 이 지역의 민원권리를 가지고 있는 홍익상인회이다. 현

80) 공공예술재단은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위해 특별법의 형태로 적용되어 회계법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사회를 통해 수익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프로젝트의 취지와 성격에 맞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81) 현재 집행위원회는 한 달에 1-2회, 이사회는 일 년에 1-2회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은 이사장, 이사회, 총무팀, 예술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무팀은 파견된 안양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예술팀은 감독, 팀장, 코디네이터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82) 2004년에 마포구청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프리마켓이 유명해지면서 노점상들의 증가와 주차 및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프리마켓의 불허방침을 내렸다. 서명운동 등으로 프리마켓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재 놀이터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라 할 수 있는 홍익상인회는 상업적인 이해에 따라 프리마켓의 활동 및 행사에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으며, 프리마켓이 유명해지면서 급격히 늘어난 노점상 또한 로드마켓이라는 연합을 만들어 놀이터 사용권한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002년 5월 홍대신촌문화포럼은 마포구청에 ‘홍대앞 놀이터와 관련한 홍대신촌문화포럼의 입장과 요구’라는 공문을 통해 ‘홍대앞 놀이터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상인 및 주민, 홍익대학교,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합의에 의해 공동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⁸³⁾.

이처럼 홍대앞 놀이터는 홍대지역의 복합문화 이미지 형성에 기여해 온 프리마켓을 필두로 그 밖에 주변의 노점행위, 놀이터 본연의 어린이공원 등 여러 활동과 관련 주체들이 공존하면서 그 관리·운영에서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한 상태에 있다.

서울광장과 같이 단일주체에 의한 관리·운영은 공공공간의 상업화와 독점화 등의 문제로 공공성을 증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홍대앞 놀이터의 경우와 같이 관리·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주체가 각기 다른 입장으로 관여하는 경우 공공공간의 가치와 공공성 향상에 마찬가지로 제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간 운영 프로그램

서울숲은 공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핵심 자원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다.

서울숲 사랑모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서울숲의 프로그램은 공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개념의 생태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 공익캠페인과 문화이벤트를 포함한 공공문화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생태문화체험프로그램은 핵심자원 활동가 조직인 서울숲 지킴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서관도움이, 알람이, 문화도슨트 등 새로운 자원 활동 조직이 구성되면서 프로그램의 종류와 장르가 다양해지고 있다. 공공문화프로그

83) 제한한 자치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구청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 받은 시설관리, 노점방지 및 방범활동 등 놀이터 및 주변 가로의 환경정비, 공연예술기획 및 활성화 등 공간활용 프로그램 관리였으며, 구성체계는 상인연합회와 홍대문화포럼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치위원회 산하에 시설관리, 문화프로그램 등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역할분담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었다

램은 서울숲 숲속 작은 도서관 설립 운영과 같은 공익 캠페인, 가을페스티벌과 같은 문화이벤트, 서울 그린웨이 체험걷기 등의 상설이벤트 등이 해당된다.



〈그림 50〉 숲속 작은 도서관(상설도서관)



〈그림 51〉 이동도서관 책수레 운영

서울숲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원봉사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숲 사랑모임에서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관변단체형이 아닌 새로운 인적자발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자원 활동가가 연간 200명 이상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활동가는 문화도슨트 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성되며, 문화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출된 자원활동가는 서울숲의 공공미술, 환경조형물, 다양한 공공문화프로그램과 공원문화를 해석하고 일반인에게 교육하는 공공문화해설 전문가로서 서울숲 문화기획자, 공원문화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광장의 경우 광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청사운영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으나, 평상시에는 잔디광장으로 쓰이다가 12월부터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고, 각종 단체와 기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상설 운영하고 있다.

2004년 5월 개장한 당시, 약 8개월 동안 총 149회의 크고 작은 행사 및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2007년에는 161건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2004년 개장 초기에는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행사가 전체 행사의 59%를 차지하고, 문화·예술공연이 59%를 차지하여 행사 유형과 주체별 편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⁸⁴⁾. 2007년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행사는 약 31%로 주체별 편중문제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문화·예술공연은 약 55%, 전시 16%로 행사 유형은 여전히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4) 성동규(2005), 시정 앞 서울광장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3쪽

〈표 27〉 서울광장 사용현황

구분		2004년	2007년
주체별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59%	38%
	시민단체	25%	4%
	종교단체	3%	4%
	언론기관	1%	11%
	기타	12%	43%
내용별	문화·예술공연	59%	55%
	기념행사	15%	10%
	캠페인 및 집회	12%	7%
	전시	7%	16%
	기타	7%	12%



〈그림 52〉 서울광장 공간활용 프로그램

안양예술공원에서는 현재 작품관람(가이드투어)과 시민교육프로그램이 운영중인데, 작품관람 시 10인 이상의 단체관람에 대해서는 도슨트요원(작품해설사)이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⁸⁵⁾.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 도슨트요원의 운영은 작품설명 및 해설이 필요하다는 관람객과 시민들의 요구로 시작되었다. 2006년부터 안양자원봉사자센터에서 이들을 모집하여 현재 3기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도슨트 요원에 대한 교육은 공공예술재단이 담당하고 있다⁸⁶⁾.

85) 안양예술공원과 2회 프로젝트 대상지인 신도시 일대는 관광사업이 아니고 입장료도 없기 때문에 방문자 수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의 벤치마킹 및 단체 관람객 수는 안양예술공원이 약 9,800명(2008.1.1~ 2008.10.31), 평촌신도시가 약 2,005명(2008.1.1~2008.10.31) 정도이며, 2005년 11월 개장 이후 안양예술공원과 평촌지역을 모두 합하여 약 2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86)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도슨트요원의 교육은 4주 과정의 코스로 주2회, 8번 진행되고 있다. 2006년 4월(32명 수료), 2006년 9월(36명 수료)에 모집하여 현재 예술공원에서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9월에는 APAP 2007이 평촌에서 실시되어 3차로 도슨트 모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는 도슨트요원의 운영과 함께 안양예술공원을 이용한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⁸⁷⁾.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 미술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공공미술 사례 소개,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이해 및 작품 해설 등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8〉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내용

-
- APAP 홍보 부스 설치 및 부채 그리기 행사 등 (안양예술공원, 평촌 차 없는 거리) : 약 1,600명 참가
 - APAP 여름미술학교 운영 (장소 : 범계초등학교, APAP관련 미술교육 프로그램 및 블로그 운영 등) : 약 242명참가
 - 워크숍 (APAP 관련 강의) : 약 80명 참가
 - 학교 안 교육 (APAP 작품 만들기 등, 안양예고, 성문 중학교 참여) : 약 940명 참가
 - 지역 행사 연계 프로그램 (관악실기대회, 포도 미술제 등)
 - APAP 작품과 함께하는 음악회 ('오색찬란한 하늘 아래 산책길' 아래에서 오케스트라 음악회와 미술 체험 활동이 혼합된 예술행사) : 약 150명 참가
-

다음으로 홍대앞 놀이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대표적으로 프리마켓이 있으며 각종 공연문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시발점이 되는 월드컵 기간 중 6월 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놀이터 프로젝트의 기본방향 및 컨셉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놀이터를 홍대앞 문화의 테마파크로 구성’ 하자는 것으로 공연과 전시,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까지 홍대앞 문화의 스펙트럼을 조화롭게 프로그램화해 홍대앞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테마파크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홍대앞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연결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 하자는 것으로 지역 전체의 문화축제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상호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홍대앞 문화의 네트워크이자 관문, 인포메이션’ 으로서 홍대앞에서 열리는 수많은 행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과정을 네트워크화하고 각 행사의 종합적인 관문이자 안내창구로서 놀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집을 실시했으며 총 21명이 수료하여 현재 9명이 활동 중이다.

87) 재단에서 안양시로부터 사업비 4500만원을 받아 안양시미술인협회에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9〉 놀이터 프로젝트 프로그램 구성

구분	세부프로그램	참여단체	일정	
공연	DJ Performance	클럽연대	1회/2일	5/18~19
	guerilla project	클럽연대, 인디레이블	1회/2일	5/25~26
	Performance 파티	코파스	1회/1일	6/8
	Hiphop Parade	클럽연대, 인디레이블	1회/2일	6/15~16
	Indie Rock Time	클럽연대	1회/2일	6/25~26
참여	벼룩시장	포럼, 시민경매사이트	2회/2일	5/19,6/16
	Book Fair	지역내출판사, 디자이너	1회/2일	6/8~9
	아트벼룩시장	거미전기화단, 하자센터	2회/4일	6/15~16,22~23
	MDF 제작 시연	MDF 가구점, 협회	1회/2일	6/29~30
전시	2002 홍대앞 놀이터 art project	루프, 시월네트워크, 구청 등	전기간	5/25~6/8(6/30)
안내	영상	십만원영화제	전기간	5/25~6/30
	안내	프린지네트워크	전기간	5/25~6/30

한편 놀이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프리마켓⁸⁸⁾은 작가들 룩 절차를 밟은 작가들이 ‘생활창작아티스트의 작품전시와 판매’를 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생활창작아티스트와 함께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생활창작워크숍’을 개최한다. 또한 음악, 무용, 극, 퍼포먼스 등 장르와 관계없이 다양한 창작자들이 야외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열린공간 자연무대’를 마련하고, 아티스트나 집단을 발굴하고 소개하며 프리마켓 작가들이 새로운 예술적 실험을 하는 ‘비타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벼룩시장 성격의 희망시장이 열리고 있다. 주로 마포구의 예술가,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으로 마포구 주민들이 쓰다가 필요 없어 쓰지 않는 물건, 직접 손으로 만든 물건, 마포구에 위치한 출판사의 책, 전업 및 부업작가들의 작품, 주민들의 기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 밖에 라이브클럽들이 참여하는 클럽데이와 사운드데이는 매월 1회 개최되며, 놀이터도 주요 행사장으로 공연이 이루어진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

88) 일상예술창작센터가 주최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행사가 진행된다.

생들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홍대 거리미술전에서는 즉흥 퍼포먼스 등이 놀이터에서 진행되고, 보다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을 지향하는 예술가들의 독립예술 축제인 프린지페스티벌에서도 놀이터를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에서는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고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생태체험프로그램, 작품관람 투어, 각종 문화행사 등 다양한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숲과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은 조성된 공공공간의 이용 및 운영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또는 공간에 애착을 갖게 함으로써 공간의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도슨트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은 서울숲 사랑모임, 공공예술재단, 일상창작센터 등과 같은 행정과 별도의 조직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 있어 공간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V.

건축 · 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증진 방향

1. 건축 · 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개념 요소
2. 건축 · 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증진 방향

(a u r i

건축 · 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증진 방향

1

건축 · 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개념 요소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건축 · 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 요소로 첫째, 조건적 요소로서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 둘째, 주체적 요소로서 「행정의 권한 이양과 다양한 주체의 협력」, 셋째, 실천적 요소로서 「가치공유와 합의형성 과정의 중시」 「관리운영 중시와 관리운영주체의 다양화」 「난개발 지양과 지역 · 장소의 맥락 존중」을 도출하였다.

〈표 30〉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개념 요소

구분	개념 요소	내용
조건적 요소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	공과 사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며, 공과 사의 개념은 공간의 소유주체가 아닌 공간에서의 행위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해지며 유동적인 것이다.
주체적 요소	행정의 권한 이양과 다양한 주체의 협력	행정은 주도와 관리의 역할이 아닌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 근거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실천적 요소	가치공유와 합의형성 과정의 중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를 창출한다.
	관리운영 중시와 관리운영주체의 다양화	공간의 조성이나 시설의 양적 확보 보다는 공간 조성 후의 지속적 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두며, 공간과 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주체가 관리운영에 참여한다.
	난개발 지양과 지역 · 장소의 맥락 존중	공공성을 거꾸로 훼손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 · 장소의 맥락을 고려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중시한다.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증진 방향

2

1)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

오늘날의 공공성은 공적, 공익, 공정의 개념에 공론의 개념이 더해지고 그 비중이 커지면서 공공성의 개념이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공간의 소유주체가 공(公)이나 사(私)이냐에 따라 공공성을 언급할 수 있는 대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공간에서의 행위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해져 공적·사적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사(私) 또는 공(公)이라 이름 지어진 경계를 만들기 보다는 존재하는 공간에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맞추어 영역을 형성해 나가, 행위가 개인적인 것이면 사적 영역이 되고 공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공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가 모호하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따라서 공과 사의 구분이 변화한다고 하는 공공성의 경계의 모호성을 전제로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공공성 대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은 공공성의 대상이 공공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도시공간에서 공공성을 확보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에 대한 개념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변화되고 복합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건축·도시공간에서 공간영역의 경계의 모호함은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제까지는 사적영역에 의존한 공간의 공공화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사유재산을 통한 공공화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선명하게 형성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수준 높은 다양한 옥외공간의 조성과 같이 사유공간을 통한 공공성 확보는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경계를 오히려 구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계로서의 담이라는 것이 아파트 단지과 같은 곳에서는 질이 높은 단지 내 옥외공간을 단지 외부와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의 표출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주택의 담장 허물기는 자칫 사적공간의 무차별적인 공공화로서 사적공간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그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공공이 가로공간과 같은 공공영역의 질적 향상을 통

해 사적영역 스스로 공적영역과의 경계를 허물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형성하고 증진하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2) 행정의 권한 이양과 다양한 주체의 협력

(1) 공간 창출의 주체로서의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 증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모색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면서 앞으로 지역의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사항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필수요건이 될 것이다. 지역의 공공성은 문화적 요소와 생활 습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의에 의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묶고 지역의 사회적 수요를 함께 형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주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나 일상성 회복을 통해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게 되고 이러한 인정은 지역성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커뮤니티적 공공성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성은 공공공간을 주어진 영역이 아닌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구현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주민들이 상호성과 상호관련성 인식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공공성을 형성하는 협력적 공공성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2) 주도에서 지원으로의 행정의 역할변화와 다주체간 협력관계 구축

행정관리형 공공성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행정 결정과정에서의 NGO·NPO 등 새로운 공공성의 주체의 참여와 함께 행정이 독점하고 있던 결정권한의 이양이라고 하는 열린 행정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에 있어서 지금까지 행정이 대부분의 공공을 담당하고 민간이 그것을 보완하는 과거의 관계에서 행정과 NPO/NGO, 기업 등이 대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숲의 조성에서 서울시는 서울 그린 트러스트와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숲 조성을 사업추진의 목표로 삼고,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그린트러스트 운동 협약체결을 통하여 매칭펀드로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4만8천주의 나무를 시민들이 직접 심어 공원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게 된다. 또한 서울

시의 서울숲 공원관리사무소는 시민단체인 서울숲 사랑모임과 함께 공원을 공동관리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홍대앞 놀이터에서는 장소마케팅의 일환으로 시정개발연구원과 공간문화센터가 놀이터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며, 공간문화센터, 홍익상인회, 클럽연합 등이 참여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월드컵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놀이터워크숍을 통해 놀이터 정비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합의형성을 도모하였다.

안양예술공원에서 안양시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추진이 결정된 후, 특별조례의 제정과 시의회 예산을 거쳐 조각공원 자문위원회 일부 보강된 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총괄 및 집행의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과 내에 공공예술팀을 신설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민간위탁금의 관리·감독과 함께 계약 및 서류 업무 등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행정과 NGO의 파트너십 구축은 행정만이 독점하고 있던 공공영역에 새로운 공공으로서 NGO가 참여하고 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행정과 시민단체 등이 동등한 관계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행정이 대부분의 공공을 담당하고 민간이 그것을 보완하는 소극적인 권한 이양과 관계설정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권한 이양과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원주체로서의 행정의 역할 전환과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지역전문가로서의 건축가의 역할 제고

행정주도형에서 탈피하고 지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그 도시에서 나고 자란 지역전문가의 참여와 함께 이제까지 자기중심적 가치관과 주변을 배제시키고 자신의 건물만을 차별화하려는 한정적이고 수동적인 기존의 건축가의 자세를 바꿔 공공성을 위한 역할 제고가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 건축가들이 도시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개발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때로는 시행업체와 지역주민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일상적 삶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일상 공간 안에 담긴 사회적 담론에 소통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대안공간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언어로서의 디자인을 건축가들이 수행해야 한다.

3) 가치공유와 합의형성의 중시

(1) 가치공유와 합의형성을 위한 공동의 학습과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서는 대화와 논쟁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의견과 갈등을 해소하며 공공적 담론을 형성하는 공동의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공동의 학습과정에서는 대립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토의기법이 중요하게 되며, 또한 토의·협의를 내용, 주체간의 상호관계, 의견의 대립 구조 등을 공간적으로 파악·정리하여 의향의 조정과 합의를 도모하는 기법도 필요하다 하겠다.

안양예술공원에서는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수차례의 사례견학을 통하여 공공프로젝트의 의미와 성격을 상호 이해하는 공동의 학습과정이 갈등을 극복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대앞놀이터에서는 4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구청의 일방적인 추진에 제동을 걸고, 홍대신촌문화포럼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계획안을 수정하였으나, 관과 소통을 하려고 한 시민단체의 노력이 충분히 실현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홍대신촌문화포럼의 공격적 태도와 행정의 방어적인 태도가 대립하면서 진행되었다.

결정된 계획안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계주체간의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공공적 담론을 형성하여 합의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과정이 계획 프로세스에 도입되어야 하겠다.

(2)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검토기간의 보장

서울광장에서는 현상공모 당선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재정과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당선자와 조성위원회들의 참여 없이 당선안 취소를 결정하고 ‘2004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 일정에 맞추어 임시로 잔디광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당선안의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는 시간적인 문제를 이유로 제기하였다.

홍대놀이터에서 홍대신촌문화포럼은 마포구청과 서울시청에 대해서 놀이터 정비계획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놀이터 정비 사업이 기본적인 개념조차 정리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올바른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절차상 과정들이 월드컵 행사일정에 밀려 생략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관계주체간의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방향 설정과 합의된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의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기간의 보장이 필요하며, 충분한 계획기간이 보장되어야만 단순한 참가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절차적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겠다.

4) 공간운영 중시와 관리운영 주체의 다양화

(1) 공간의 확보보다 공간의 운영을 중시하는 인식 전환

단순히 물적 시설의 공급만으로도 공공성이 향상되었다고 바라볼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공간이나 시설의 양적 공급보다는 실제적인 공간 및 시설의 이용행위가 중요시되고 있다. 물리적 공간의 확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형성된 공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지 그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공간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다. 공간 조성에서의 운영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는 공간이나 시설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으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서울숲은 서울숲 사랑모임과 서울시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숲 사랑모임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에 약속되었던 시민단체 업무 분담율의 단계적 확대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숲 사랑모임은 현재의 사업위탁 방식에서 파트너십 방식으로의 전환과 효율적인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 의사결정 기구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예술재단이 설립하여, 경직된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유로운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단은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기획/조성/운영/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자원봉사 도슨트의 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도 담당하고 있다.

커뮤니티형 공공성에 중요시되는 협력과 참여라는 상호관계는 공간을 창출하는 단계보다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서 더욱 필요하다. 행정중심의 지역 매니지먼트의 근본적인 전환과 함께 비한정적·포괄적인 운명공동체 협력관계인 파트너십을 넘어서 복수의 주체가 대등한 자격으로 구체적인 지향점을 향하는 공동창작(collaboration)의 관계구축이 요구된다.

(2) 관련 주체간의 의사소통 구조의 마련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구현에 있어 주민이나 지역전문가, 건축가 등이 공공성 향상을 위해 참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이견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한 의사결정 협의체가 필요하다.

홍대앞놀이터는 홍대앞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이지만, 놀이터의 활용을 둘러싸고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홍익상인회, 시민단체, 노점상 등 관련주체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홍대신촌문화포럼은 마포구청에 ‘홍대앞 놀이터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상인 및 주민, 홍익대학교,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합의에 의해 공동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축·도시공간의 정비에 다양한 커뮤니티 주체가 참여하고, 건축·도시공간의 운영이 커뮤니티 주체에 맡겨지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젝트나 소프트 프로그램, 그리고 나아가서는 활동 조직의 창발 또한 기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련 주체간의 신뢰 관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신뢰 관계의 구축은 관련 주체간의 의사소통구조의 마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난개발지양과 지역·장소의 맥락 존중

(1) 개발위주에서 남기고 비우는 계획으로 전환

재개발, 재건축 등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규제와 공공공간 확보를 통해 공공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시공간의 생산방식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도시에 대한 접근에서 벗어나 공공적, 문화적,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크기 측면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수록 공공성이 크다고 본다면,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 가장 크게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치유하는 것이 곧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하겠다.

서울숲 현상설계에서는 뚝도정수장, 뚝섬유수지 등 기존 시설과 부지현황을 고려한 계획을 지침으로 제시하였고,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과거의 흔적

을 남김과 동시에 공원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경마장 스탠드 일부를 남겨 관리사무실과 유스호스텔로 활용하는 계획안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제시되기도 하였다.

홍대앞 놀이터에서 홍대신촌문화포럼은 녹지의 변경과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는 등 놀이터를 채우려는 초기안에서 공간을 가급적 미니멀하게 정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로 채워가는 빈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조정되게 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토목과 조경 중심의 개발 주도적 사업이 도시전체의 경관과 풍경을 훼손하고 있는데 토목중심의 획일적인 지역개발에서 문화적 차원의 지역개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건축·도시공간의 조성에 있어서 과거의 개발의 정치화 혹은 권력화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바탕으로 토목과 조경 중심의 개발지향적이고 환경미화적인 지역개발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차원의 지역개발로의 전환을 통해 공공성을 증진하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역·장소의 맥락을 고려한 집합적 아이덴티티의 형성

새로운 공공성의 개념은 우리의 자연과 인습, 그리고 오랜 역사의 틀을 담보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도시적 맥락이나 거시적 도시 틀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논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방식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서울광장에서는 서울시의 장소성과 역사성 그리고 사회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중심공간이자 상징공간으로서, 동시에 비워진 공간으로서 조성할 것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으며, 대상지 자체보다는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와 역사적으로 형성된 장소성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안양예술공원에서는 기존의 조각 공원이 가지고 있는 예술품의 단순한 야외 전시장으로서의 한계에 대하여, 유원지의 지형과 역사적 흔적을 고려한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토탈디자인으로서 건축, 조경, 도시, 환경, 도시행정 등의 전문가와 예술가가 협력하여 공공예술을 통한 도시의 문화적 장소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홍대앞 놀이터에서는 홍대지역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자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져 온 홍대앞 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홍대지

역 장소마케팅의 일환으로 놀이터를 야외공연장으로 정비하였다.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계획에 있어서 개별 요소들은 전체적인 질서 속에서 서로 조율되고 통합되어야 하며, 지역성과 장소성의 맥락에 부합하면서 건축, 미술, 디자인, 조경 등의 다양한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요소 간 관계성을 가지면서 집합적인 아이덴티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VI.

결론 및 과제

1. 연구의 주요 결론
2. 연구의 한계
3. 향후 과제

(a u r i

결론 및 과제

1

연구의 주요 결론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연구단계인 본 연구에서는 결과 중심의 전통적 공공성 개념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현대적 공공성 개념으로의 변화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개념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공공성을 다룬 연구 및 인식 현황 파악, 공공성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프로세스 중심의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요소와 증진 방향을 도출하여 현대적 공공성의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공공성 개념 변화에 관한 이론 고찰에서는 공공성의 개념과 변화에 관한 인문학 분야의 이론적 검토를 통한 공공성의 개념 변화를 정리하였고, 근대의 국가주도형 공공성과 현대의 커뮤니티 주도형 공공성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다룬 건축·도시 관련 연구 및 전문 저널을 중심으로 연구 및 담론을 조사하여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고,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았거나 공공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사례들을 선정하여 프로세스에서의 공공성과 관련한 요소를 중심으로 사례의 조성 프로세스와 현황을 분석하여 프로세스에서의 공공성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조건적 요소로서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 주체적 요소로서 「행정의 권한 이양과 다양한 주체의 협력」,

실천적 요소로서 「가치공유와 합의형성 과정의 중시」 「관리운영 중시와 관리운영주체의 다양화」 「난개발 지양과 지역·장소의 맥락 존중」이라고 하는 건축·도시공간의 프로세스 중심의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적 요소와 증진 방향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대적 공공성 개념에서는 공적, 공익, 공정의 개념에 공론의 개념이 더해지고 그 비중이 커지면서 공론적 공공성의 주체가 새로운 공공성의 주체가 된다. 참여와 과정에 의한 현대적 공공성은 끊임없이 협의에 의해 변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보편타당한 공공선의 규정과 예측 및 고정 불가능하다. 현대의 커뮤니티 주도형 공공성의 조건으로서 개방적·가변적 공공성에서의 각 영역의 폐쇄성을 사회로 개방하는 열린 공공성, 경계의 유동성에 의한 열린 관계와 수평적 관계, 커뮤니티 중심의 협력과 참여의 공공성에서의 협력의 공공성, 참여적·과정적 공공성을 도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에 있어 공공성에 대한 연구 및 담론, 공공성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정리한 결과,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의 요소로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및 역할 제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형성 과정의 중시, 결과 중시에서 과정 중시로의 인식 변화, 공간의 관리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의 중시, 난개발 지양과 지역과 장소의 맥락 존중,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인식의 전환을 도출하였다.

프로세스 중심의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적 요소와 증진 방향으로써, 첫째는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로, 사적영역에 의존한 공간의 공공화는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선명하게 형성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로공간과 같은 공공영역의 질적향상을 통해 사적영역 스스로 공공영역과의 경계를 허물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둘째는 행정의 권한 이양과 다양한 주체의 협력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공간 창출의 주체로서의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 증대되는 점, 주도에서 지원으로의 행정의 역할변화와 다주체간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한 점, 지역의 공공성 구현 및 증진을 위한 지역전문가로서의 건축가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셋째는 가치공유와 합의형성의 중시로, 대화와 논쟁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의견과 갈등을 해소하며 공공적 담론을 형성하는 공동의 학습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관계주체간의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방향 설정과 합의된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기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넷째는 공간운영 중시와 관리운영 주체의 다양화로, 공간의 확보보다 어떻게 형성된 공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공간의 운영을 중시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관련 주체간의 신뢰 관계의 구축과 의사소통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는 난개발지양과 지역·장소의 맥락 존중으로, 난개발의 방지와 치유가 곧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개발위주에서 남기고 비우는 계획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지역성과 장소성의 맥락에 부합하면서 건축, 미술, 디자인, 조경 등의 다양한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집합적인 아이덴티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공공성 관련 연구가 다루어 온 것과 같이 조성된 공간을 공공성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프로세스와 운영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고찰하였다.

결과중심의 공공성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공공성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본 연구의 방향은 인문사회학에서의 공공성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나, 건축·도시공간이라고 하는 조성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구현에 대한 고려, 그리고 조성된 공간의 공공성과 조성 프로세스에서의 공공성과의 상관관계를 다루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다루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이 공공공간에 편중되어 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다루지 못한 점, 4가지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대상 사례의 대표성의 불확실성 또한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또한 가능한 한 대상과 관련된 모든 주체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하고자 하였으나 부서이동에 따른 담당자 파악 곤란 등으로 인해 일부 주체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로 대신한 점 또한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향후 과제 3

본 연구는 서두에서 밝혔듯이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연구단계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의 후속으로 진행될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 정립에 관한 이론적 완결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학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한 좀 더 심층적인 이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현대적 공공성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제시한 항목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성이 담보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공공으로서의 NGO와 파트너십의 구축, 주도에서 지원으로의 행정의 공공적 역할 변화에 있어서, 각 관련 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바람직한 역할을 분석하고 파트너십과 지원으로의 행정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가치공유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위한 공동의 학습과정의 도입 및 충분한 계획기간의 보장에 있어서, 주체간 합의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획 프로세스의 디자인에 대한 검토와 공동 학습을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 툴과 지원체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행정에 의한 공공의 독점에 대한 전환, 관련 주체간의 의사소통 구조의 마련에 있어서 행정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위한 메니지먼트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적 의사소통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발 위주의 계획에서 남기고 비우는 계획으로의 전환, 장소와 맥락을 고려한 집합적 아이덴티티의 형성에 있어서 특히 기획단계에서의 의사결정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개발위주의 추진방식의 문제점의 진단과 지역성·장소성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

1. 공공성 관련 연구 및 담론 목록
2. 전문가 인터뷰 회의록
3.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성 인식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4. 사례 대상지 현장조사

(a u r i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은희 외(2007), 주민참여를 통한 한평공원 만들기,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 김진애(2008), 김진애의 공간정치 읽기, 서울포럼
- 문화관광부(1995), 주민과 함께 도시경관 만들기 이렇게 하면 성공 합니다, 문화관광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2008),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한울
- 박삼철(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교재
- 생명의 숲(2008), 숲, 희망으로 날아오르다 : 숲과 나눈 생명의 숲 10년사, 생명의 숲
- 서울그린트러스트 외(2005), 서울 그린비전 2020 실천전략-그린을 통한 도시환경의 혁신
포럼자료집, 서울그린트러스트
- 안양공공예술재단(2007),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양공공예술재단
- 이무용(2003),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 논형
- 하성규 외(2000), 주택·도시·공공성, 박영사
- 坪郷 実, 新しい公共空間をつくるー市民活動の営みから , 日本評論社
- 荻原 敬, 都市計画の挑戦ー新しい公共性を求めて, 学芸出版社
- 山崎 怜, 新しい公共性と地域の再生ー持続可能な分権型社会への道, 昭和堂
- 今田 高俊, 公共哲学 (13) 都市から考える公共性, 東京大学出版会
- 青木 康容, 地方自治の社会学ー市民主体の「公共性」構築をめざして, 昭和堂

- 齋藤 純一, 公共性 (思考のフロンティア), 岩波書店
- 佐々木 毅, 公共哲学〈4〉欧米における公と私, 東京大学出版会
- 佐々木 毅, 公共哲学〈7〉中間集団が開く公共性, 東京大学出版会
- 佐々木 毅, 公共哲学〈3〉日本における公と私, 東京大学出版会

2. 연구보고서

- 김종서(1999), 방송의 공공성과 그 구현방안, 배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상조(2007),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국토연구원
- 김선기 외(2007),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문정호 외(2006),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박현주 외(1999), 국토의 계획적 이용관리 및 토지의 공공성 강화, 국토연구원
- 박현찬 외(2003),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연구, 서울특별시
- 성동규 외(2005), 시청 앞 서울광장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영수 외(2004), 홍대 문화지구 타당성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연구, 마포구청
- 임서환 외(2006),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모색, 주택도시연구원
- 임희지(200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제도의 유형별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 석(1997), 건축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기준 및 유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진영환 외(2007),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사례편, 국토연구원

3. 학위논문

구희태(2005), 자치구청사의 공공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부산시 자치구청사의 외부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김도형(1999), 을지로 제5지구 도심재개발 현상설계안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김왕식(2006),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을 반영하기 위한 건축계획 요소 연구 : 경기 지역 문화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산업대 석사학위논문

김인자(2005), 가로변 건축물의 전면 공지 이용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상업가로변 4개 지구를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김지한(2005), 서소문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을 통한 공공성 증대에 관한 연구 : 서울시청 별관 및 서울시립미술관 일대를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김진욱(2003), 도시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업참여 건축물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박병주(2003), 공개공지 공공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소재 사무소건축을 대상으로, 금오공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숙(2001), 건축외부공간의 공공공지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송영석(2004), 일반상업지역의 개발에서 공공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일곽의 1990년대의 개발 경험에 기반하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 윤지혜(2006), 실내공적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이승지(2003), 도심 복합용도 건물 내부광장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윤희(2005), 현대도시에서 공공성을 반영하는 인지지도와 이를 토대로 한 디자인에 관한 연구 : 미디어, 속도, 움직이는 신체를 반영하는 인지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2005), 방송공공성의 구조변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비(1998), 도시건축공간을 통한 도시건축 공공성 확보방안 : 서울시 서초구 사무건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유림(2004), 건축공간의 공공성 확보 기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이종욱(2003), Kevin Lynch의 이론을 통한 한국 도시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연구 :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 이창훈(2006), 「건축물의 오픈 스페이스를 통한 '공공성' 증진에 관한 연구 -건축물 주변 공개공지와 내부 공개공간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임명구(2002), 건축 외관 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임상도(2003), 공공성으로의 비움 기법을 활용한 도심지 문화 복지시설 공간구성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임상진(1997), 「 ‘건축적 공공성’ 의 구현에 관한 연구 -H.Hertzberger와 F.Maki 건축 이론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장은영(2002),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정 석(1994),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 방안 : 서울시 고층 오피스 빌딩의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정우인(2006), 도심지 획지 공동개발 계획시 공공용지 공공성 증진 방안 연구, 서울산업대 석사학위논문
- 차흥녕(2005),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층 오피스빌딩 저층부의 전이공간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최기원(2005),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구민회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최희원(2000), 설계자의 의식에 근거한 공개공지 평가지표설정 에 관한 연구 : 도시의 공공성 측면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한상운(2000), 도심형 사무소 건축의 저층부 공간분석에 따른 공공접근성과 개방감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한창희(2005), 지구단위계획 시행을 통한 주거단지에서 외부공간 계획요소의 역할 연구,

서울산업대 석사학위논문

4. 학술지논문

김은아 외(2008), 도시디자인과 공공성의 시대적 의미변화 : 도시 해석을 중심으로, 디지털 디자인학 연구 제8권 제1호 통권17호, 477~486쪽

김세용(2002. 2), 사무소건축물 공개공지의 쾌적성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제2호 통권 제160호 147~154쪽

문은미(2005), 네덜란드 도시 집합주택의 공공성과 개별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 암스테르담 부두재개발 주택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4권 2호 통권 제49호, 112~119쪽

성소미(2005), 기업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 감정평가연구 제15집 제1호, 139~165쪽

손광호 외(2005), 지역 미술관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일본 석천현 김택 21C 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4권 6호 통권 제53호, 177~184쪽

신중진(2002), 대규모 복합용도개발의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 외부공간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제5호 통권 제163호, 27~38쪽

신중진 외(2004), 초고층건축물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0권 제10호 통권 제192호, 33~42쪽

윤지혜(2005), 도시공간에서의 실내공개공지의 필요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25 n.1

윤종국(2003), 도시건축 경관의 구성요소가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4~24쪽

이규봉(2003), 도시건축 경관의 만족도 분석을 통한 공공성 평가에 관한 연구, 동의공업대학 논문집 제29집, 153~167쪽

이상호(2002), 복합용도 건물 내부광장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제6호 통권 제164호, 61~68쪽

이영철(2005), 도시개발과 공공예술 :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창립, 계원논총 제11집, 721~727쪽

이정형 외(2005), AHP분석기법을 이용한 기업참여 문화시설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1권 제1호 통권 제195호, 171~180쪽

이훈길(2003), 서울 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장성준 외(2005), 상업지역의 개발과 공공성의 원칙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 일원의 슈퍼블록의 경험에 따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1권 제2호 통권 제196호, 71~78쪽

정창구 외(2008), 조성위치에 따른 도시 고층사무소건축물 공개공지의 공공성에 대한 이용만족도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5호 통권 제235호, 201~210쪽

5. 정기간행물

- 고길섭(2000),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로지르기 :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정치, 문화과학 23호
- 김광현(2005), 건축제도와 건축의 공공성, 건축 제49권 제3호 통권310호, 2005, 25~27쪽
- 김민수(2002), 문화주의 도시건축 디자인론 : 후기근대 도시건축경관 읽기와 ‘공공성’ 논의
의를 중심으로, 공학기술연구지 제9권, 179~199쪽
- 김석환 외(2007), 공공성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도시구조의 모색, 건축가 통권225호, 8~10쪽
- 김은희 외(200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워크샵 : 한평공원, 마을만들기로 연결될 수
있는가, 견고싶은 도시 2007년 9,10월호, 31~35쪽
- 김은희 (2007), 한평과 골목길, 그리고 마을만들기 : 성서한평공원, 견고싶은 도시 2007년
1,2월호, 7~9쪽
- 박찬경 외(2008), 공공미술과 미술의 공공성, 문화과학 통권 제53호, 95~125쪽
- 박찬숙 외(2008), 공공디자인과 건축, 건축과 사회 통권 제11호, 18~129쪽
- 송유나(2005), 에너지 사회공공성, 진보평론 25호
- 신광영(2000), 노동운동과 공공성, 문화과학 23호
- 안계동 외(2003), 서울숲 조성 : 뚝섬 숲(안) 조성 설계공모, 환경과 조경, 통권 제 181호,
46~55쪽
- 이관직(2005), 지역개발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건축문화 v293,
150~157쪽

- 이승훈(2008),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도시출판 한울
- 이영범(2004), 반역을 꿈꾸는 현대건축의 시도들 : 도시 공공성 회복을 위한 현대건축의 사회적 실험, 문화예술 통권302호, 85~88쪽
- 이영범 외(2005), 조금더 깊은 의미의 2005년 한평공원, 걷고 싶은 도시 2005년 11,12월호, 10~30쪽
- 이영범(2006), 영국 도시개발에서 제도와 참여를 통한 도시 공공성 확보방안 : 영국의 공공건축, 건축과사회 통권 제6호, 31~45쪽
- 이영철 외(2005), 우리 도시의 문화정체성 : 새로운 풍경 만들기 안양아트시티, SPACE, 통권 제 457권, 98~145쪽
- 이옥경(2007), 일반 분양 및 임대아파트 주민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장소만들기, 걷고싶은 도시 2007년 1,2월호, 14~15쪽
- 이윤임(2004), 도심의 역사성, 공공성 그리고 문화성 : 서울의 도심 4대문 안, 민족예술 통권107호, 68~71쪽
- 이필훈 외(2007), 건축의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모색, 건축가 통권224호, 6~29쪽
- 임의영(2003),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 제9권 제1호
- 임옥상(2003), 공공성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문화도시를 찾아서 : 문화도시의 외국사례, 민족예술 통권97호, 62~66쪽

- 장재영(2007), 기부채납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제도 운영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 국토계획 제42권 제5호 통권158호, 145~160쪽
- 정석(1997), 건축의 공공성과 도시건축가의 역할, 건축, 39~41쪽
- 정은희, 문화와 사회운동 : 시장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공공성 운동, 문화과학 60호
- 조명래(1997), 일상,공간,라이프스타일의 정치학 :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반공공성 공간의 새로운 기획을 위하여, 문화과학 12, 76-83쪽
- 조명래(2004), 공공성 담보장치 강구해야 : 기업도시, 바람직한 추진방안은?, 나라경제 제15권 제11호 통권 제168호, 82~85쪽
- 주정준(2003), 보스턴 도시재개발과정에서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하여, 건축 제47권 제4호 통권287호, 10~13쪽
- 주대관(2003), 대건축가의 공공적 역할 : 철암 프로젝트, 건축 제47권 제4호 통권287호, 34~39쪽
- 최성용(2007), 다른 모습, 새로운 시도 2006 한평공원 만들기, 걷고싶은도시 2007년 1,2월호, 23~26쪽
- 최찬환(1996),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4 : 공공성 증진방안, 건축사 323, 30~32쪽

6. 세미나 자료

공간문화센터 외(2002), 아름다운 마을과 문화를 가꾸는 주민공동체만들기 워크숍 자료

김향자(2004), 공공성의 개념과 의료의 공공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정책학 교실 세미나 자료

녹색서울시민위원회(2007), 세계적인 공원 서울숲으로 가기 위한 발전 방안

서울그린트러스트 외(2005), 100년 앞을 내다본 도시 오픈스페이스 계획

서울그린트러스트 외(2003), 숲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외(2005), 서울그린비전 2020 실천전략연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100년 앞을 내다본 도시 오픈스페이스 계획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홍대지역 장소마케팅 방안 : 홍대지역 간담회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시청앞 광장화 방안 연구 워크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심광현(2007), 공교육 재개념화와 교육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제6회 전국참교육실천보고대회 정책마당 자료집

오건호(2006),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 확대전략 : 공공성과 한국사회의 진로, 참여사회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참여사회연구소

최태연(2008), 서양철학에서 본 공공성, 공공신학(Public Theology)세미나 자료집

현진건(2008), 공공성 논리의 허구, 제1차 정책토론회 발제문

summary

A Fundamental Study on the Contemporary Publicness of Architecture & Urban Space

Youm, Chirl Ho
Cho, Jun Bae
Sim, Kyung Mi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Recently publicness of architecture & urban spaces and the increase in its social and political interest is getting higher. Over the years, the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publicness has changed and the necessity for a new approach to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has risen.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for increasing contemporary publicness through: analysis of case studies, examination of the change in definition, reports and discussions on publicness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recognition status of professionals.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re should be a change in the definition of publicness to focus on process rather than the result.

2. Change in definition of publicness and contemporary publicness

We looked at the meanings origin, dictionary definition and various other fields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of publicness. We discovered its origins were derived from association. It also means economic and social activity which occur an area that is distributed to large numbers. According to this basic summary, the general idea and

features of contemporary publicness can be arranged as below.

The general idea of contemporary publicness is official, justice, public interest and public opinion. Its features are enlargement and undecidability. Enlargement means publicness with citizens which have so far been excluded, this means the role of government is changing from 'management to support and partner'. Also undecidability means contemporary publicness itself has the condition of undecidability.

These features show a changing subject and role, it is the conversion from publicness lead by government to cooperative publicness lead by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Firstly, publicness lead by government is conditioned on the dichotomy of public and private . It features exclusive, monolithic, monistic publicness and, conservative publicness like vertical, dependent modern administration. This influence is shown in urban planning division and its social guidance planning paradigm, which is lead by the government.

Secondly, cooperative publicness lead by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s based on horizontal, local cooperation and government has the role of supporting and dissemination. Conditions to allow Publicness need to be open and variable. It features

on open and horizontal relationship by flexibility. It also features agreement of local livelihood, establishing a governance system and cooperative public process. Influences of publicness can be seen through cooperative public planning of governance and flexible urban planning paradigm.

3. Discussion and recognition status of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Studies on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were mainly focusing on public open spaces of public buildings and office buildings, they have gradually expanded to include the lower floors and the interior spaces of office buildings and urban spaces. Based on the 'Every - Together - Open' concept of Publicness and public realm, there is research that shows that the borders between public and private realm are becoming ambiguous. Publicness evaluation has been mainly done by selecting an index to evaluate publicness and then evaluating the arranged space status from a physical perspective.

Discussions about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can be separated into: Secure publicness through opening spaces and publicizing private spaces, Secure publicness through eliminating development which is thoughtless to the environment.

Embody publicness through local participation and promote the role of professionals.
Realization of publicness from a public design perspective.

The problems with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suggested by professionals are: Firstly, conversion of recognition to a subject that creates publicness is needed. Secondly, conversion of recognition that the borders between public and private areas are becoming ambiguous is needed. Thirdly, conversion of thought is needed from focusing on the result to the process in space management and operation. Finally, when planning and developing it is important to respect and consider the contexts of the region.

4. Analysing cases of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We looked at the process of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in the Seoul Forest, Seoul Plaza, Anyang Art Park and The Free Market in Hongik University.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on, professionals and civic organization has contributed to improve publicness in the arrangement and operation process by performing various roles. However, uncooperative systems and one sided promotion of administration has confirmed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improve the publicness in space usage and management.

We confirmed that the workshop or field work was a model for making decisions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local people and administration and increase publicness in public spaces. Also we have learnt that the problem solving process between administration and professionals has operated an important process to secure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But one sided decisions which stand for public interest have decreased the value of publicness as a result.

We also confirmed that the conversion of recognition which considers local features and space is still unprepared alongside basic direction and planning contents.

Lastly, alongside management and operation, we confirmed that public & private partnership is a new management system to promote citizen's participation and make various operation programs. On the other hand, management that is one sided and centres on suppliers causes problems with commercialization and monopolization, so decreases the publicness of public space.

5. Directions to Increase contemporary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We draw the direction and idea of contemporary publicness through generalizing the

result of analysis. Firstly, various changes to border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s. We need to raise the quality of public realm and break down the borders between public and private to achieve publicness.

Secondly, through changing of rights in administration and the cooperation of various parties, the role of administration needs to be changed to support and various cooperative relationship systems are needed. Also promote the role of professionals and expand the role of local community.

Thirdly, the importance of sharing values, formatting public discussions and the formation of agreements that can solve problem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s is needed.

Fourthly, managing and operating the formatted space effectively is important along with securing the space is needed and diversity of subject is also needed.

Lastly, preventing and recovering from developments which are thoughtless to the environment and changing plans to consider local features and places are needed as way to revive publicness.

6. Conclusions

As a conclusion points of contemporary publicness and increasing direction is suggested like this: conditional point – ‘Various changes in border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 subject point – ‘Changing of rights in administration and the cooperation of various parties’, practical point – ‘Importance of sharing values and formation of agreements’, ‘Importance of management & operation and diversity of subjects’, ‘preventing and recovering from developments which are thoughtless to the environment’.

Further research is mainly in two directions. First, there should be a significant theoretical research to complete the definition of contemporary publicness. Second, detail the solutions to increase the contemporary publicness to secure the realization.

Keyword : Architecture & Urban space, Contemporary Publicness, Cooperation • Agreement, Management • Operation

부록 1.

공공성 관련 연구 및 담론 목록

1. 공공성 관련 연구 목록

공공성 관련 학술발표 및 학위논문 목록-1

시기	논문명 / 저자명 / 학위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공공성에 대한 해석
1994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 설계 접근방안 : 서울시 고층 오피스 빌딩의 공개공지를 중심으로/정석/박사논문	오피스 빌딩 외부공간 공개공지	협력적 도시설계의 접근방향 모색	통계기법을 이용한 오피스 빌딩 공개공지의 유형별 분석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 함께에 대한 건축의 태도 열림에 대한 건축의 태도
1997	‘건축적 공공성’의 구현에 관한 연구:H.Hertzberger와 F.Maki 건축 이론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임상진/석사논문	H.Hertzberger와 F.Maki의 설계 작품	공적관계의 실체적 의미의 건축화	두 건축가 설계 작품의 개념적·형태적 비교	공간을 매개로 인간의 생활과 의식이 서로 만나고 의사소통하는 관계이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과의 관계
1998	도시건축공간을 통한 도시건축 공공성 확보방안 : 서울시 서초구 사무건축을 중심으로/이은비/석사논문	오피스 빌딩 외부공간의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방안 모색	공개공지 실태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주변상황을 고려한 건축 도시공간의 조성 및 개방 가로활동의 연장
1999	건축외부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공개공지 지정형태와 이용을 중심으로/송경욱/석사논문	공개공지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건축외부공간 공공성 검토	현황조사, 실무담당자 설문조사	
2000	도심형 사무소 건축의 저층부 공간분석에 따른 공공접근성과 개방감에 관한 연구/한상운/석사논문	오피스 빌딩 1층과 지하공간	저층부 공간 설계요소 활용을 위한 자료 제시	저층부 개방사례의 공공접근성과 개방성 관련 디자인요소 분석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 함께에 대한 건축의 태도 열림에 대한 건축의 태도
2000	설계자의 의식에 근거한 공개공지 평가지표설정 관련 연구 : 도시의 공공성 측면을 중심으로/최희원/석사논문	오피스 빌딩 외부공간의 공개공지	공개공지 확보 및 활용방안 제시, 공개공지 성능 평가 지표설정	공개공지 활용에 대한 설계자 인식조사	모든 사람에게 관계된 열린 마음이나 태도로서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것
2001	건축외부공간의 공공공지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서정숙/석사논문	도시설계 구역내 공공공지	건축외부공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공공지의 효과적 관리 방안 제시	현장조사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공공공지 이용실태 분석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험을 제공하며 실체적으로 인간과 타인의 관계를 체험하게 되는 장소성

공공성 관련 학술발표 및 학위논문 목록-2

시기	논문명 / 저자명 / 학위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공공성에 대한 해석
2002	건축 외관 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임명구/박사논문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이질적, 자극적, 과잉디자인 사례 분석, 외관디자인 변경사례의 비교/평가	자신의 이익을 줄이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두레나 품앗이와 같이 서로의 가치를 나눔으로서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생산적 개념
2002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장은영/석사논문	랜드스케이프 건축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담론과 구현방식을 토대로 공공성 개념의 재해석	랜드스케이프 건축 사례의 공공성 구현을 내외부적 요소로 분석	나와 타자가 비물리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되는 연합, 개인에게 속한 내밀한 감각, 경험 등의 공유를 통한 연합
2003	사적 경계 영역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에 관한 연구/윤미선 외 1인/학술발표	인터페이스 공간	사적공간에서의 공공성 구현의 실태와 개인과 사회에 대한 작용 특성 검토	인지적 측면에서 인터페이스 공간의 공공성과 경계조절의 분석	타인과의 공간적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공의식의 발현
2003	Kevin Lynch의 이론을 통한 한국 도시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연구 :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이종욱/석사논문	이태원 도시공간	Kevin Lynch의 이론을 통한 도시의 공공성 현황파악과 공공성 확보 방안 제시	도시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요소 도출, 이태원 도시구조 분석	건축물이나 부지로의 대중의 흐름을 유도하여 포용하고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며 그 건물을 자기의 것과 같이 친근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2003	도시건축 경관의 구성요소가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윤종국 외 2인/학술발표	중심가로변	가로폭원의 인지특성 규명을 통해 경관디자인 기초 자료 제공	요인분석을 통한 경관구성요소 인지특성과 공공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시민성(사회적 접근성:참여성) 소통성(문화적 다양성:창의성) 안정성(공간적 기능성:심미성) 형평성(경제적 실행성:적응성) 연대성(시간적 연속성:지속성)
2003	초고층 건축물의 공공성 증진에 관한 연구/최남길/석사논문	초고층 건축물			주체가 일반인이고, 일반인에게 관계되는 그 무엇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단순히 제공되어지는 것을 취하는 수동적 입장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자발적 이용에 의한 능동적 행위 또한 포함된 의미
2003	공개공지 공공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소재 사무소건축을 대상으로/박병주/석사논문	오피스 빌딩 외부공간의 공개공지	바람직한 공개공지 조성을 위한 계획적 요소 제시	공개공지 조성 요소 유형화, 공개공지에 대한 이용자 평가 분석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 함께에 대한 건축의 태도 열림에 대한 건축의 태도

공공성 관련 학술발표 및 학위논문 목록-3

시기	논문명/저자명/학위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공공성에 대한 해석
2003	도시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업참여 건축물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김진옥/석사논문	기업 참여 문화시설	기업참여 문화시설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 계획적 유도수법 제안	기업참여 문화시설 현황조사와 공공성 분석	도시공간안에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소유한 사적건물의 도시와의 관계가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함
2004	건축공간의 공공성 확보 기법에 관한 연구/이유림/석사논문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디자인 기법	공공성이 확보되는 공간구성 기법 도출을 통해 설계방향 설정 지표로 제공	공공성이 확보된 건축물의 기법을 설계기법과 연계하여 건축언어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또는 보이는 공간으로서의 비운 공간 느낌이 유발되는 공간
2004	일반상업지역의 개발에서 공공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일곽의 1990년대의 개발 경험에 기반하여/송영석/석사논문	일반상업지역의 위치와 건물별 상업용도	도시개발에서의 상업지역의 역할 제시	space syntax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가로 대안제시	상업지역의 공공성은 지역 내 개별건물의 공개공지나 외부공간만이 아니라 생활권내의 상업지역의 도시계획상 역할의 충실을 포함해야 함
2004	공공성 증진을 위한 도시주거로서의 공동주택 계획기법 연구/도경미 외 2인/학술발표	공동주택 계획기법	도시적 차원에서 단지형 공동주택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계획방향 모색	사례의 공공성 증진방안을 분석하고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유형 및 계획기법 정리	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과 일체화된 도시적 차원의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2004	초고층건축물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신중진 외 3인/학술발표	서울시내 3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	초고층건축물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초고층건축물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계획방향 제안	초고층건축물의 입지유형과 분석지표간의 관계 정리	주체가 일반인이고, 일반인에게 관계되는 그 무엇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단순히 제공되어 지는 것을 취하는 수동적 입장 뿐 아니라 일반인이 자발적 이용에 의한 능동적 행위 또한 포함된 의미
2005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구민회관 사례를 중심으로/최기원/석사논문	구민회관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구현과 관계되는 건축계획요소의 도출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에 관한 사례 조사	모두에게 연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통해 집단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2005	현대도시에서 공공성을 반영하는 인지도와 이를 토대로 한 디자인에 관한 연구 : 미디어, 속도, 움직이는 신체를 반영하는 인지도체계 중심/이윤희/석사논문	광화문 가로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관계이며 공간적으로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떠나서 그들 간의 경험과 공간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형성

공공성 관련 학술발표 및 학위논문 목록-4

시기	논문명/저자명/학위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공공성에 대한 해석
2005	상업지역의 개발과 공공성의 원칙/장석준 외 1인/학술발표	상업지역 개발사례	상업지역 슈퍼블록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공공성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해 개발에 대한 원칙 제안	기존 공공성 경향을 확대된 공공성과 성취원칙으로 발전시켜 상업지역 개발사례에 적용하고 현장관찰로 평가내용 검증	공공성은 사전적으로 사회나 단체의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속하거나 관계되는 일'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눈다.' 는 의미를 지니며 사적인 것에 대립되는 것
2005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층 오피스빌딩 저층부의 전이공간에 관한 연구/차홍녕/석사논문	오피스 빌딩의 전이공간	도시생활에 활력을 주는 공공환경으로서 중요시되는 오피스 건축물의 전이공간에 대한 공공성 고찰	테헤란로 오피스빌딩 전이공간의 실태 파악과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지역 주민에 대한 개방정도 및 활동성, 도시 환경 내에서의 어메니티 향상, 인지성 및 접근성
2005	도시공간에서의 실내공개공지의 필요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윤지혜 외 1인/학술발표	실내 공개공지	도시공간속에서 실내공개공지의 공공성 기여 분석평가	내부 공공공간의 현황을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으로 분류하여 파악	사용주체가 일반인이고 일반인에게 관계되는 그 무엇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력 또한 다시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
2005	지역 미술관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손광호 외 1인/학술발표	지역 미술관 (일본)	미래지향적이며 공공성을 가진 지역 미술관디자인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미술관의 공공성 평가 및 분석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미술관의 공공성 표현을 조사	모두에게 관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현상을 통해 집단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2006	건축물의 오픈 스페이스를 통한 '공공성' 증진에 관한 연구:건축물 주변 공개공지와 내부 공개공간을 중심으로/이창훈/석사논문	도시설계지구 내 대형건축물	건축과 도시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한시민대중의 보행과 휴식을 위한 준공공공간의 확보와 연결 방안 모색	사례조사를 통해 도시공간에서 건축물 공공공간이 가지는 보행자공간의 가능성 분석	사 또는 공이라 이름 지어진 경계를 만들기 보다는 존재하는 공간에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맞추어 영역을 형성해 나가며 행위가 개인적인 것이면 사적 영역이 되고 공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공이 되어야 함
2006	아파트 색채디자인 과정에서의 공공성 적용사례 연구 /조성인/석사논문	아파트 색채디자인	실제적 지역 도시환경색체계획단계에 적용가능한 아파트 색채 디자인의공공성 검토	경기도 일산 신도시 P지구 색채계획을 가상사례로 공공성이 고려된 디자인 적용 가능성 검토	도시 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쾌적한, 즐거운 환경을 조성해주며, 다양성으로 선택의 자유를 허용해주며, 사람과 도시환경사이에 최대한의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것

공공성 관련 학술발표 및 학위논문 목록-5

시기	논문명/저자명/학위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공공성에 대한 해석
2006	실내공적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윤지혜/석사논문	대규모 건축물 저층부 실내공간	사무소 건축물의 저층부 공간 계획에 있어 공공성 구현을 위한 계획요소 제시	사무소 건축물을 중심으로 내부 공공공간의 현황 및 특성, 공공성 구현 요소분석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 함께에 대한 건축의 태도 열림에 대한 건축의 태도
2006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을 반영하기 위한 건축계획 요소 연구 : 경기 지역 문화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김왕식/석사논문	경기도내 시민회관과 문예회관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구현에 관계되는 건축계획 요소 모색	시민회관 및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공공성 관련 건축계획 요소 분석	다수의 사람을 대상 보는 또는 보이는 공간으로 서의 비운 공간 느낌이 유발되는 공간
2006	공공성을 통한 현대 오피스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한지연 외 1인/학술발표	오피스 공간의 디자인	현대사회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의미를 바탕으로 오피스 공간 디자인의 공공성 고찰	외국의 오피스 사례조사를 통해 오피스 공간 디자인의 공공성 분석	공공성에는 객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매개체가 연계되어 있음
2006	도심지 획지 공동개발 계획시 공공용지 공공성 증진 방안 연구/정우인/석사논문	아파트 공공용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공공공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기부채납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공공성 요소 측면에서 사례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의 해결방안 검토	주변상황을 고려한 건축 도시공간의 조성 및 개방 가로활동의 연장
2006	실내공적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윤지혜/석사논문	대규모 건축물 저층부 실내공간	사무소 건축물의 저층부 공간 계획에 있어 공공성 구현을 위한 계획요소 제시	사무소 건축물을 중심으로 내부 공공공간의 현황 및 특성, 공공성 구현 요소분석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 함께에 대한 건축의 태도 열림에 대한 건축의 태도
2007	공동주택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이원수/석사논문	공동주택 외부공간	공동주택 외부공간의 계획·설계과정에 있어서 공공성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사례단지의 물리적 측면의 공공성을 분석하고, 거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성 요소 및 영향요인 분석	모두에 대한 열린 마음이나 태도로써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함께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공공공간의 의미를 가지는 외부공간으로 단지 내 거주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2007	현대 박물관건축에 나타난 건축의 공공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 M.Merleau-Ponty의 시각의 현상학과 미니멀리즘의 현상학적 공간개념을 중심으로/조성춘 외1인/학술발표	현대 박물관	현대 박물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표현 방법 고찰	현상학적미니멀적 건축작품을 분석하여 현대 박물관 건축의 공간개념과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검토	건축의 공공성은 접근성과 연계성, 개방성과 쾌적성, 상징성과 투명성의 증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궁극적 목표는 체류성을 높이고 열린 공간을 만드는데 있음

공공성 관련 학술발표 및 학위논문 목록-6

시기	논문명/저자명/학위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공공성에 대한 해석
2008	지하도상가 광장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이용자 의식에 관한 연구/이효창 외 1인/학술발표	지하도상가의 광장	이용자의 의식조사를 통해 지하도상가 광장에서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공간계획의 필요사항 제시	건축적 공공성 요소에 따라 작성된 항목으로 공공성 향상을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건축공간을 통하여 공공성 유발요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하고 모두에게 건축공간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
2008	조성위치에 따른 도시 고층사무소건축물 공개공지의 공공성에 대한 이용만족도 연구/정창구 외 1인/학술발표	고층사무소 건축물	고층 사무소건물 공개공지의 계획특성을 도출하고, 공공성 확보를 통한 일반도시민의 이용활성화 방안 검토	도시 고층 사무소 건물 내 공개공지의 현황분석 및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한 공개공지 계획유형별 공공성 확보에 대한 평가	
2008	도시복합용도시시설의 건축적 '공공성' 요소에 관한 연구/박정아 외3인/학술발표	일본의 복합용도시시설	국내에 도입 가능한 일본 도시 복합용도시시설의 각 공간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 요소 분석	케빈린치의 도시이미지 요소를 바탕으로 공간 유형별 건축적 공공성 요소의 특성 분석	건축 공간 요소를 통하여 공공의 특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모두에게 건축공간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성격
2008	도시복합용도시시설의 건축적 '공공성' 특성에 관한 연구/이효창 외3인/학술발표	일본의 복합용도시시설	국내에 도입 가능한 일본 도시 복합용도시시설의 각 공간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 요소 분석	현장 및 사례조사를 통해 복합용도시시설 사례별, 공간유형별 건축적 공공성 요소의 특성 도출	건축 공간 요소를 통하여 공공의 특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모두에게 건축공간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성격
2008	복합용도건축물 실내 오픈스페이스의 체류·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축적 '공공성' 요소에 관한 연구/박정아 외3인/학술발표	복합용도 건축물 실내 오픈스페이스	복합용도건축물 내 오픈스페이스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 요소와 이용자의 오픈스페이스 체류·이용관계 파악	선행연구를 통해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고 공공성 요소에 관한 62개의 항목에 따라 사례조사	건축 공간 요소를 통하여 공공의 특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모두에게 건축공간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성격
2008	공공디자인을 통해 발현되는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박소영 외 1인/학술발표	공공디자인	건축적 체계가 바탕이 되는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강조	관련 법안이나 정책집을 통한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련 행사나 포럼자료 분석	공간을 매개로 인간의 삶과 사회의 조직이 서로 소통하고 의존하는 관계를 뜻함

2. 공공성 관련 담론 목록

공공성 관련 저널 및 신문기사 목록-1

시기	기사 제목	공공성 관련 사항
1995	주택의 공공성 / 하성규	주택의 사회적 소유권 확보와 공공성 유지
1996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4:공공성 증진방안 / 최찬환	
1997	건축의 공공성과 도시건축가의 역할 / 정석	전문가의 역할
1997	일상,공간,라이프스타일의 정치학 :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반공공성 : 공간의 새로운 기획을 위하여 / 조명래	
1999	[기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보고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2001	[파주] 출판도시 건설 초읽기	공공성에 기초를 둔 환경친화적 건축
2001	박물관과 공공성 / 김승용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2002	[아침을 열며] "환경보다 개발이익" 안될 말 / 이지순	사유지 개발에서의 공공성 고려
2002	문화주의 도시건축 디자인론 :후기근대 도시건축경관 읽기와 '공공성' 논의를 중심으로 / 김민수	
2002	서울시, 건물설계 문제 없어도 경관 해칠땐 신축不許	주변환경과의 조화, 지역 공동체의 보호
2002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 개선과 인식의 전환 필요"	주거지 정비에서의 공공성 확보
2002	[걷고싶은서울로]'시청앞 광장' 문턱낮은 만남의 장소로	공간 연계를 통한 공공성 증진
2002	[젊은이 광장] 열린 대학, 닫힌 대학	열린 대학을 통한 공공성 회복
2003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대학이 되길	대학의 역사와 문화의 간직과 공유
2003	도시공동체를 일구는 사람을 찾아서	공동체가 만드는 도시
2003	건축가의 공공적 역할 / 주대관	미학적 자율성과 계량적 공학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대의 건축가의 공공적 역할
2003	보스톤 도시재개발과정에서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하여 / 주정준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지역주민의 참여
2003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가의 공동체 디자인의 참여 / 이영범	사회적 언어로서의 디자인을 통한 공간의 사회성과 공공성 창출
2003	공공성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문화도시를 찾아서 :문화도시의 외국사례 / 임옥상	
2003	[캠퍼스] '담'없는 대학	열린 대학을 통한 공공성 회복
2003	수리산개발 갈등만 증폭	자연보전과 공공성
2003	기고/광화문일대 시민에게 돌려줘야/황평우	난개발 지양과 시민의 공공성 확보

공공성 관련 저널 및 신문기사 목록-2

시기	기사 제목	공공성 관련 사항
2004	규제개혁과 공공성/서유석	규제개혁에 의한 공공성 저하
2004	도심의 역사성, 공공성 그리고 문화성 :서울의 도심 4대 문 안/이윤임	
2004	반역을 꿈꾸는 현대건축의 시도들 :도시 공공성 회복을 위한 현대건축의 사회적 실험/이영범	
2004	주민 자긍심 살려야 복촌이 산다	전통주거지 보존과 공공성
2004	공공성 담보장치 강구해야 :기업도시, 바람직한 추진방안은?/조명래	
2004	"문화수도' 디자인 통합.관리해야"	통합 디자인을 통한 가로 디자인의 공공성 증진
2004	번드르한데 왕짜증이 난다	공공공간의 사유화
2005	[좋은도시 만들기] (8)서유럽 건축물의 공공성	사유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보
2005	서울-평양 건축 비교해보니 “도시 공공기능 극과 극”	문화시설 증대와 시대 상황 반영
2005	건축제도와 건축의 공공성/김광현	공공성에 입각한 건축사의 역할 재정립
2005	〈사람과 사람〉안양시 아트시티기획단 이정호 주사	도시경관의 한 요소로서의 건축물
2005	노원구청엔 예술향기 술~술~	공공청사의 공간활용과 개방
2005	[시론]도시의 공개공지(公開空地) /양상호	중간영역을 통한 공공성 증진
2005	[송두울칼럼] 도시의 미학	공공성을 띤 공원녹지의 확충
2005	이명박측 '김진애, 이번엔 못참아'	공공공간의 사유화
2005	거꾸로 읽는 도시, 뒤집어 보는 건축/양상현 지음	인간과 사회적 공공성의 구현
2006	‘답답한 서울’ 이유 있었다	재개발에서의 공공공간 확보
2006	제3의 공공개발방식을 기대하며 / 여흥구	공익과 사익의 성공적인 절충을 통한 제3의 공공개발 방식
2006	도심 담장 허물기사업 녹지, 휴식공간 확충된다	담장허물기로 열린공간 조성
2006	⑥공공성을 높이자	개발과 환경 보전
2006	공공기관의 '아름다운 변신'	공공청사의 공간활용과 개방
2006	을지로 하늘에 매단 진주 '하늘공원'	공개공지의 다른 해석
2006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공성 구현
2006	예술, 건축, 디자인의 공공성-도시개발에서의 한 실험/이영철	복합예술을 통한 공공성 구현

공공성 관련 저널 및 신문기사 목록-3

시기	기사 제목	공공성 관련 사항
2006	“고급 주상복합 ‘公開空地’ 일반인 접근 차단땀 제재”	공개공지의 사유화 문제
2006	영국 도시개발에서 제도와 참여를 통한 도시 공공성 확보방안 :영국의 공공건축/이영범	
2007	특집 : 건축의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필훈	
2007	건축의 공공성 / 온영태	도시공간으로서의 건축의 공공성 확대
2007	[월요인터뷰] “쾌적한 삶의 공간 만드는 게 바로 국가경쟁력” /권영걸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공성 구현
2007	포럼:공공성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도시구조의 모색/김석환 외	
2007	서울의 '심장부'를 자본의 손에 넘기려나 [열려라, 광화문광장③]시민과 문화가 주인되는 광장으로	난개발 지양과 시민의 공공성 확보
2007	[부산 꽃피다] “행정주도형서 탈피 유기적 협력 도모를”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공성 구현
2007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1)아파트공화국, 도시는 오늘도 성형수술중 /김민수	역사성과 장소성의 보전
2007	“창조도시 부산위해 공간적 전략 필요”	문화자원으로서의 건축
2007	구청장이 재개발 정비계획 세운다…사업방식 확 바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2008	[부일시론] 도시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공성 구현
2008	〈부산시, 올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원년〉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공성 구현
2008	“건축은 땅과의 감응…분배·공유 가능해야” /정기용	분배와 공유가 가능한 건축의 공공성
2008	“서울의 걷고 싶은 거리는 대부분 실패... 핵심은 양보”	공공을 위한 개인의 양보
2008	건물 앞 '공공공간' 시민에게 돌려주자	공공공간의 사유화 문제
2008	[인터뷰] 대구도시디자인위원회 김철수 위원장 “대구 정체성·아름다움 형상화 밑그림 완성” /김철수	도시디자인과 시민합의
2008	건축의 공공성,건축가의 공공성 / 강인호	건축가의 공공적 역할과 기여
2008	공공디자인, 공공역역을 디자인하라 / 조명래	디자인의 해석적·민주적 과정, 디자인 요소간의 대화와 통합, 활용을 통한 공공성의 구현의 필요성
2008	공공영역과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 이상현	공공건축, 공공디자인의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공론장의 필요성
2008	“디자인” 이라는 단어의 함정 / 김소라	공공건축이 구현해야 하는 공공성
2008	공공디자인의 정체성 탐구 / 전인호	도시경관에서 접근하는 디자인 통합화로서의 공공디자인

공공성 관련 행사

일 시	주 제	주 최
2000.12	〈한국도시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토론회〉 난개발, 해법은 없는가? :한국 도시, 건축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위한 토론회	문화연대
2003.04	〈특집기사 :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가의 역할〉 건축가의 공공적 역할 보스턴 도시재개발과정에서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하여 프랑스의 공공건축가 제도와 공공건축 사례 안양 도시 비전과 건축사의 역할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가의 공동체 디자인의 참여	대한건축학회 건축 (잡지)
2007.01	〈200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소통의 문화, 우리들의 공간 공공디자인 컨퍼런스 주체	문화관광부,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국회공공디자인문화포럼
2007.06	〈공간문화아카데미〉 6개의 주름—City and Cityscape	문화우리
2007.03~09	〈건축의 공공성 포럼〉 1차:공공성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도시구조의 모색 2차:공공기관 발주의 건축 및 도시설계 3차:도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법규 4차:도시의 공공성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	한국건축가협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12	〈공공건축 정책토론회〉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03	〈특집기사 : 공공디자인과 건축〉 공공디자인과 공공성 공공디자인과 건축 건축가들의 공공디자인 등	새건설

부록 2.

전문가 인터뷰 회의록

1. ‘담 = 경계’속에서의 공공성

-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선명한 선이 존재했음. 우리의 주거에서 담은 경계의 역할을 해왔음. 아파트단지의 담은 단지 내 내부공간의 질이 높아 공공공간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의 표출형태라 할 수 있으며 사유재산을 통한 공공화는 경계를 너무 선명하게 형성하는 결과를 야기했음, 그동안 사적영역에 의존한 공간의 공공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공공의 투자가 필요한 시기임
- ‘공공공간의 햇볕정책’ 필요함. 즉, 공공이 공공영역의 질을 높여서 담의 경계가 사라지도록 유도해야함

2. 공공성의 새로운 변화 : 중앙집중식 → 지역중심

- 또 다른 공공성 변화의 주요한 요인은 지방자치화시대라 볼 수 있음. 서울을 보면 이전에는 구차원의 지역중심활동은 없었음. 지방자치화에 따라 구행정타운이 생기면서 구청과 구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중심”이 생김. 지역 공공의 대표성이 나타나는 것도 ‘공공성’의 새로운 변화임

3. 주거지 담장 허물기에서 담을 공동체의식의 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

□ 담장 허물기는 담 때문에 마치 지역공동체가 깨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

- 주거지의 담장 허물기에서 주민의 동조는 찬성하나 무조건적인 전문가의 참여는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시 됨
- 담에 대한 오해 : 담에 의해 지역공동체가 깨진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되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지역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 것임. 담장 허물기는 마치 담에 의해 지역공동체가 깨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지 사례

-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지 설계 가이드라인은 경사지붕, 정남향으로 일조거리 이격, 담장 만들지 않기 등이었음. 정남향 이격거리 규정은 남향으로 마당을 둘 수 있어 바람직한 규정이었으나, 담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은 이웃과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보다는 마당의 내부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우리나라 주거공간에서는 주로 남향으로 거실위치를 두고 있는데 가로에서 거실과 같은 사적공간을 막아주어 이러한 주거공간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담인데, 담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담을 공동체의식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주차장은 공공과 사적공간의 buffer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임. 개인공간과 공공공간간의 현명한 처리, 정교한 장치를 생각해서 담장을 다시 만드는 형태로 나타남

4. 역할에 따라 조성방식도 달라야

- 도시에서 커뮤니티형성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 보임. 커뮤니티 형성방식도 온라인, 직장 중심 등 변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커뮤니티형성방식을 고려해야 함
- 공동체는 거주중심(개인)에서 도시공간 중심으로 변화했음. 서울시중심의 공공공간에서 지자체중심의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처럼 시와 지자체의 역할이 다르고, 이에 따라 그 조성방식도 달라져야 함

5. 사례 : 공공 토지의 사유화

□ 을지로 증권건물의 ‘하늘공원’

- 이 건물은 원래 건물이 세워질 수 없는 공간에 건물이 설립되는 과정 속에서 저층부와 상위 2개층을 시민에게 open하라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음(정기용설계)
- 저층부는 지하철과 연계되어 마치 시민에게 저층부를 상당히 할애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상층의 하늘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로비를 구성하고 있지 않음. 홍보도 부족하여 상층 하늘공원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시민들이 대체로 모르고 있음
- 이 사례는 시민의 공공공간을 개인이 점유화하고 내부공간으로 공공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음

□ 잠실 석촌호수

- 공공 토지의 사유화 사례

□ 인사동 쌈지길

- 건물의 길처럼 되어있는 공간은 100% 사유공간인데 반공공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

6. 기타

□ 공공문화시설 물량공급 문제

- 이전에는 문화시설자체가 없는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설령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나 경제적 여력이 없더라도 지역에 문화시설이 생기게 되면 자부심이 생겼음. 즉, 공공문화시설의 설치자체가 물적 균형에 의한 심리적 위안을 노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음. 예전에는 가시적 행위자체 위주였다면 현재는 이용자체가 중요시되고 있음

- 과거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근대시기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문제로만 보게 되어 들여다볼 가치자체가 없어짐. 근대의 공공성, 공공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위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임

□ 공공공간의 사회적 역할

- 근대건축물의 보존방법가운데 하나인 등록문화재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관계자들의 네트워크화 움직임이 필요하나, 실제로 문화예술단체 스스로 반대하는 경우 많음. 포괄적으로는 좋다고 하면서 개인의 문제로 오면 입장이 달라짐. 이러한 변화, 의식, 움직임의 변화 속에서 공공성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음
- 이런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 사업도 모두 잘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잘못된 사례가 있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공공미술설치의 공공화

- 단체에게 공공미술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공공간의 donation 요구, 운동추진, 공공미술 설치공간의 공공성 확보 모색 필요

□ 미국 록펠러센터

- 고층건물의 저층부 오픈사례

□ 공공공간 이미지의 변화

- 공공공간의 조성은 광장(집회, 민주항쟁의 장소)에서 공원(그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 한편으론, 무조건 공원조성이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듦. 공원만 능주의, 공공의 왜곡의 케이스, 과도기적인 상황인 듯.

□ 용산 시티타워 저층부 오픈사례

- 새로 계획하고 있는 곳에는 적용이 가능할 듯.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전파되어 기존의 저층부 공간들도 열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의 시작이라고 생각함

홍성태 (상지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자문일시 : 2008. 5. 15(목) 13:00 -

1. 들어가며

- ‘사회학자의 건축읽기’ 연재함. 이상건축 2005년 1월에 1호 연재 후 폐간됨. 건

축가협회 2005년 9월부터 1년간 연재. 1회 건축과 사회.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회에 ‘공공성’ 특집. 공공성 논의 변화, 개념 설명, 이해 방식에 대한 원고를 작성했음

- 건축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최준영은 문화시설 만들자는 의도이며, 고길선은 개념적인 논의가 아님. 둘 다 공공성에 대한 편향성이 보임
- 공공성을 공익성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노동자계급과 연결시키거나, 약자연합을 지키는 것으로 보는 것. 국가와 연관지어서 국가가 한 것을 공공성으로 보는 것. 국가주의적, 계급주의적 편향이 강함.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2. ‘공공성’개념의 혼란 발생

- 독어에는 공공성이란 말이 없음. publicness(공적인 성격), publicity(홍보, 보도)라는 말이 독어에는 없음. 전제정치 때문에 억압했기 때문에 말은 없으나 정신은 존재함. 이처럼 의미는 있으나 말이 달라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개념의 혼란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됨
- 우리나라 : 공-사. publicness ↔ privateness. ≠/ common(공공성)
- 일본 : 공공성 ↔ 사개성
- 영어 : 개인의 것이 아닌 것.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 성격
- 서양 : 좌파적 편향이 있음. 공공성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향이 가속화되고 있음. private은 감춰지는 것. 은밀한 것. 음부를 가리킴

3. ‘사’의 반대개념으로 ‘공’을 보는 것은 왜곡된 개념

- “사”는 공적인 공간과 생활 속에도 존재하는 인간의 본질임. 공과 사의 근원적인 균형이 중요하며 어떠한 의미에서 private을 전제로 ‘공’을 논의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음. 그러나 ‘재산’의 측면에서는 다름.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public함. 부동산의 사적재산은 본질적으로 모순된 것임.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사유가 공공성의 사회적 가치척도가 될 수도 있음
- 도시건축은 사회적 공동체의 구현. 사회발전정도를 볼 수 있는 대상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성이 천대받는 사회이며, 내 땅은 내 맘대로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

4. 공간의 공간성,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키고자 하는 전문가 집단 필요

- 개발이익의 측면에서, 지상·지하권 소유가 합당한 것인가? 집 중심 패러다임에서 길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함. 서구는 이용과 소유까지도 공적이며 사적이용의 양태가 공적임. 반면, 우리사회의 상황은 건축이 예술로 자리 잡기 어려움. 건축은 회화도 아니고, 예술도 아님. 건축은 기술, 공대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

고 있음

- 주변은 정신없고 어지러운데 건축가가 지은 하나의 공간만 좋게 설계되고 지어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공간의 공공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예술과 같은 건축을 하기가 어려움. 주변 피해 최소화. 라파엘 비놀리가 설계한 종로타워는 부적당함
- 공간의 공공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키고자 하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가들은 공간공공성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은 상태이고, 을의 처지에 있어서 나서서 언급을 못하고 있음. 정기용과 같은 건축가는 한명도 없음

5.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은 자연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함

- 공공성의 크기와 주체측면, 크기측면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수록 공공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자연, 공간, 물과 같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가장 크게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난개발을 방지하고 치유하는 것이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임
- 자연을 훼손하는 자신이 보는 5대 난개발 : 아파트 난개발, 도로 난개발, 송신탑·배전함 난개발, 전신주 난개발, 간판 난개발. 공공성 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편, 난개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임

6. 건축자체보다 사회구조 등 외적인 부분에 관심 필요

- 우리나라 공간이 엉망인 것은 건축문화가 선진화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선진화하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문제임. 건축가는 건축생산자가 아니라 공간을 변형하는 자임
- 따라서 공간을 다루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회하는 사람들은 공간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함. 각자의 분야에만 머물지 말고, 상호 관련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
- 우리나라 건축이 찌든 이유는 건축 외적인 부분에 더 많이 있음. 따라서 건축가들은 건축자체보다 사회나 사회구조, 그밖에 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함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

자문일시 : 2008. 5. 16(금) 15:00 -

1. 공공성 실현을 위한 방향 제시

- 공공성은 건축가 개인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체계가

중요하며, 합의된 부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공공성이라는 것은 상식의 개념에서 생각해야 함. 물리적 환경만이 아닌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함. 논의의 틀을 계획중심에서만 보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논의의 틀로 개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 행정은 행정대로 공공성의 실현에 있어서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특히 이해관계의 조절이 필요함. 공공영역은 서로가 합의하고 적응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임. 행정이 하는 것이 좋은지 민간이 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해야 함

2. 마을 만들기의 공공성

- 마을 만들기 활동을 공공성으로 본다면 공공성이 아닌 영역은 과연 무엇인가? 마을 만들기를 사업으로 보아서 그런건지 모르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보면 매우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함. 도시연대에서는 우선 막연한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가능한 지역을 찾는 작업을 함. 막연하게라도 지역의 주민들과 가치에 대한 막연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참여에서는 일종의 사회적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북촌이나 인사동 프로젝트는 공공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회적 가치는 참여의 과정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창출되는 것임. 특히 인사동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꾸준히 관계를 가지고 있던 주체들이 많고 문화업종에 대한 자부심이 많았고 지역에서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 인사동과 부평은 사안이 좀 틀린데, 인사동은 행정이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임대자인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 차 없는 거리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음. 반면 부평은 행정과 싸우면서 지역의 의견이 결집된 사례라고 하겠는데, 건물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 거리의 공공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온 주민의 존재가 있었으며 행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던 중 부산 문화의 거리를 참조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음. 거리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신활력사업에서는 [진안]을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음.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결국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부되어야 하며 각종 사업에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했으면 함
- 현재의 마을 만들기는 너무 물리적으로 접근되고 있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나아가 공간의 확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간의 운영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함. 따라서 문화연대도 공간의 확보만을 주장하지 말고 공간의 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할 것임

1. 공공에 의해 공급되고 공공이 주체가 되어 하면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 오해 존재

- 공공디자인은 공공이 만든 것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공공성이 발현되기 어려움. 공공성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려움 상황에 있음
- 관악구청에서 서울대까지 500m 거리조성에 45억이 투자되어 예산낭비가 심각했음. 이 길은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 구간이 아님. 돈만 들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 반면 삼청동과 같은 길은 오래된 도시조직에 기반을 두고 자생적으로 형성된 길임
- 삼청동이나 관악구청앞 가로 사업과 같이 컨텍스트가 배제되는 사업들이 공공디자인의 폐해를 가져오고 있음. 이러한 사업들은 공공에 의해 공급되고 공공이 주체가 되고 있는데, 공공이 하는 것은 곧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함
- 공공성은 여러 사람들의 가치공유를 통해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함. 현재와 같은 상황은 철학적 논의의 빈곤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성 논의도 정치적 상황 속에서 브랜딩으로 활용되서 그 의미가 변질되고 퇴색해버렸음

2. 풀뿌리식의 시민단체주도 사업

- 시민단체에서 해온 사업들은 결과물위주가 아니고 과정을 중시하는데, 공공성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요즘의 트렌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주도 사업들은 부각이 되지 않고 있음. 한 번에 새로운 혁신을 이루기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됨. 브랜드 만들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강조했으면 좋겠음

ex. 서울 그린 트러스트 우리숲 만들기

- 2-3억 서울시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
- 자발적 참여의 seed만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변화가 나타남
- 이러한 것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적음. 무엇인 문제인지 의문시됨. 가시적이지 않아서? 철학의 문제 같기도 함

3. 공공디자인에 대신하는 새로운 용어의 필요

- 공공성에 대한 개념의 공유가 필요하며 개념적 정의도 시급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 이상의 캠페인도 필요함. 공공디자인의 말을 바꾸기 위한 실행과 추진 필요

4. 역공간으로서 새로운 도시 공공공간

- 동대문 앞과 두타앞 광장을 대상으로 2005년에 도시문화연구의 일환으로 “소비, 장소, 이미지” 논고를 작성했었음. 상업적인 공간으로 이용하더라도 거기에 ‘공공성’이 보이면 다르게 볼 필요도 있겠음. 즉, 사적공간+공적공간 or 공공공간의 사유화도 주요 테마가 될 수 있음.
- Central Park과 Bryant Park은 민간 협력방식에 의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함

5. 사례 :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서울숲 사랑모임’

- 공공과 민간의 협의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거버넌스 방식의 대표 사례로 공무원들은 서울숲 사랑모임에 대한 인식이 적은 반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음. 공공성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임
- 서울숲 조성사업은 민간 기금모음과 공공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음. Central Park과 Bryant Park를 모델로 민-관 공동 관리방식을 취함. 민간기금모음을 위해 유한킴벌리를 필두로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설립되어 40억을 기부함. 이 금액은 전체 1,500억 사업규모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민간 기금을 투자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형성시켰다는 가치는 있으나, 문제는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자기공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 시민단체의 역할에 크게 기대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 민관 파트너십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구가 필요 없는 것인가? 공공이 너무 강하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인가? 주민들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고나면 공간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임은 진행 중에 있음. 서울숲 민-관 파트너십 운영사례, 이 사례의 주체별 인식이 우리나라 공공성에 대한 현주소일수도 있겠음

6. 사례연구 바램

- 많이 알려지고 연구된 식상한 사례보다는 덜 알려진 의미 있는 사례를 소개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혹은, 현재 진행 중인 관악로 프로젝트나 서울디자인거리사업 등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각 사례별 주민/전문가/시민단체/행정가별 인식을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 대표 활동가 : 홍대 공간문화센터 최정환 대표, 심심제작소 김병수 소장님(재래시장 하늘공원), 대구 imc 김경민 소장

1. 사적공간과 장소의 개념에서 공공성 접근이 필요

-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선명한 선이 존재했음. 담=경계
- 공간, 장소의 개념이 공공성에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라 하면 사적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음. 그러나 사적공간이 아닌 공간이 반드시 공공성을 담보하지는 않음. 공공성과 관련한 사항들이 지역민들의 삶에 과연 얼마나 접근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
-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기반이 중요한데 공공성의 개념은 퇴출시키고 상품화, 자본화, 개발주의 위주의 논리만이 대한민국 전체에 팽팽함.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운 세상에서 공공성의 개념이 제대로 먹히겠는가. 제대로 먹히려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파급이 있어야 그나마 어필이 되는 실정이라고 판단됨
-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해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음. 이중적인 면이 존재함. 환경적인 문제는 주민들이 근본적이 문제로 접근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와는 조금 다름.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관계 위주로 가지만 환경적인 점은 근원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쉽게 접근될 수 있음
-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직접민주주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임. 환경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전환은 어느 정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언론에 의해서도 환경문제는 좋은 프로도 많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임

2. 부안 자연생태공원에서 본 행정 위주 사업진행의 공공성 문제

- 자연생태공원은 부안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진행하였는데, 자연생태공원도 공공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과정 자체도 그렇고, 개인의 사적인 사업처럼 진행되어서 자연생태라는 원초적인 공공성이 왜곡된 적절한 사례임
- 갯벌을 육지화시켜 생태공원으로 만든 것을 과연 자연생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임. 대지 소유는 해양수산부로 용도 변경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목적은 시내의 홍수 방지를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됨. 그런 곳을 공원화한 것임.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성의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음. 행정 공무원의 개인적인 욕심은 아니지만, 본인이 사랑하고 가꿔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겠다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진된 것임

- 초기 습지공원으로 되면서, 습지보존이 잘된 곳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제대로 실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시됨. 습지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좋은데, 이런 공간이 개발주의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문제임. 주민들과의 합의나 동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장소를 착취하고 있음. 장소의 생태성, 역사성을 맥락 없이 착취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음

3. 생태문화활력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생태문화운동의 현황 및 문제점

- 생태문화활력소가 위치해 있는 폐교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주민문화공간으로 임대하여 이용해왔었음. 공동체의 활동거점으로 활용되어 온 곳에 생태활력소를 조성한 것임. 현재, 유기농 유통공동체, 풍물패, 놀이방 등 같이 운영하고 있음
- 학교 시설의 소유는 지역 교육청으로 1년마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임대라는 한계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들. 예를 들어, 공간을 증축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돈이 있어도 계약이 언제 끝날지 몰라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
- 교육청은 학교를 팔고 싶어 하지만 입지가 안 좋은 곳은 팔리지가 않음.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사용을 하여 왔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팔수는 없는 상황임.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답답한 면이 있음
- 처음 들어갈 때 리노베이션을 했음. 임대료는 1/100, 감평가 2억5천의 경우, 임대료는 250만원/년 정도이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음. 수익이 안되면 임대료는 입주한 4-5개 단체가 함께 분담함. 정부로부터의 활동 보조금 등은 전무한 실정임.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돈이 많이 드는데 금전적인 지원도 없고 인력 지원도 없음

김병수 (공공공작소 심심 소장)

자문일시 : 2008. 10. 16.(목) 16:00 -

1. 공공성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본 공공작업소의 활동

- 공공작업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퍼블릭한 마당에서 놀아보자는 발상에서 출발하였음. 권위적이거나 위계적이지 않고 솔직하게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였으며, 도시 문제나 지역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내가 직접 살고 있는 곳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었음
- 학생운동이나 NGO 활동에 대한 회의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잡히는 실존적인 것들이 오버랩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

음. 공공성이란 부분은 그것을 대상으로 놀기가 좋은 것이었음. 다들 관심은 있지만 선불리 다가서지 못하는 인식이 많았음. 공공성은 공공사업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경계이기도 함. 이윤을 목적으로 재미있게 공공성을 다루는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음

- NPO와 사회적 기업은 일종의 매개적 역할이라는 측면과 커뮤니티의 측면에서 동질감이 있음. 하지만 NPO는 자기에라는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기업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내부적인 지향점이 분명한 조직임
- 공공성을 하나의 마켓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출발하였으며, 공공성의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지적인 경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시장으로서의 공공성 문제와 독자적 지식을 축적시키면서 지속될 수 있는 회사 또는 조직을 지향하고 있음
-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 사업에 여러 명이 관여하면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숙련된 사람들일 경우 가능할 수도 있으나, 거꾸로 독점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나누고 쪼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내부적인 거래가 많이 필요하며, 장르나 업종, 전문 분야 등에 있어서 그렇게 높지 않지만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주체들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

2. 공공공작소와 행정과의 관계

-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행정과의 관계는 불가분한 것이며 적당한 선에서 이어가고 있음. 어떤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사업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며, 공무원의 재량보다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공직에 대한 생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됨. 특히, 네트워크와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인식이 필요하며, 현장전문가로서의 공무원이 필요한 실정임. 행정이 민간과 새로이 형성하는 관계에서 예산의 집행방식, 감사 등의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 자꾸 후퇴하고 있음

3.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공공성

- 도시/건축/공공미술 작업의 시행 주체들은 발주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 스스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기획을 가지고 스스로 발주를 해서 주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중요함. 지금까지는 공공성을 규제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해왔으며, 소수의 의견들을 공공성의 이름으로 배척하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공공성을 무기로 많이 사용했음
-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기준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슈 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공공성이 어떠한 단순한 교집합이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의 반성적 계기, 가치적 판단이 함축될 수 있는 작업 과정이 중요함

- 공공성을 흥미로운 과제로 보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공공성 추구하는 고유한 방식을 만들어내고자 함. 그러한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많이 싸우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만들어 지는 것임. 천편일률적인 변화는 지양하고 조금씩 바뀌가면서 나중에 크게 바꾸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4. 한옥체험관의 운영

- 한옥체험관의 운영은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장기간 특정업체가 되는 것, 운영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행정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 많은 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원이 아닌 자신들의 영역이 침해당하거나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듯함
- 한옥체험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관에 의존하는 사업은 지양할 생각이며 새로운 형태의 일을 구축하고자 함. 행정에게 일방적으로 기대를 하면 자칫 퇴폐적으로 될 수도 있으며 의존적으로 되기 쉬우므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5. 공공미술과 공공성

- 우리사회는 디자인에 대한 욕망과 감수성이 발달되기 힘든 사회이며, 관습보다 개성가치가 존중되기 힘들며, 창의성이 인정되기 힘든 사회라 생각됨.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들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잡아두려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할 경우,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공공이라는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더욱 복잡한 해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단지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고 해서 공공미술은 아니며, 공공미술의 작업에는 search하는 과정이 필요함. Momentum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제까지 작가주의는 폐쇄성과 상응하는 개념이었는데, 작가주의의 구현 과정에서 오픈이 되어야 공공적인 것이라 생각함. 소통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공공미술의 구현에서는 다원적인 예술이 중요하며, 건축인지 디자인인지, 기능적으로 구분이 애매한 작업들이 풍부해지고 두터워질 때 상호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함

6. 파일럿 프로젝트로서의 남부시장

- 기존의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색깔을 넣으려고 하였으며 시장 사람들도 새로이 만들어가자는 생각이었음. 시장이 왜 시장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교육일 수는 없는가, 여러 네트워크 결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고민에서 출발하였음

- 지역 개선 사업에서의 접근방식을 보면 노후도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천편 일률적인 대응이 대부분임.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파일럿 프로젝트로 남부 시장을 생각했으며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문제의식이 선명해지며, 이것을 바탕으로 장기계획이 만들어져야 함

김성홍 (서울시립대 교수)

자문일시 : 2008. 12. 19.(금) 14:00 -

1. 공공성과 공공공간의 차이

- 독일쪽에서 흔히 보여지는 피아짜나 아고라와 같은 공공공간(퍼블릭 스페이스)은 아시아에서 없다고 보고 있음
- 서양에서는 시민사회의 정립이 이전부터 되어 왔기 때문에 피아자와 같은 공공공간이 성립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라는 것이 20세기 말까지도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피아짜 같은 것을 만드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음
- 시민사회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공공공간, 복잡한 이유가 섞여 있는 공공공간이 우리나라에는 없으며 결국 우리나라는 공공공간이 매우 빈약한 나라로 보아도 될 것임

2. 정치적, 행위적 자유가 없는 곳을 공공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 공공공간의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려우나, 공공이 만들고 관리하는 공간에 대해 그것을 특정 집단이 점유하는 것을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는가? 탑골 공원의 노인점유, 미국의 쇼핑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는가? 새롭게 등장하는 공공공간 또한 찾아볼 수 있을 것임
- 단순히 쾌적성, 안정성과 같이 공간의 질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반적인 공공공간(광장, 공원 등) 보다 오히려 쇼핑몰이 더 공공공간다운 곳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결국 오히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돈을 들이는 공간들이 자유롭게 갈수 있고,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현대의 공공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임
- 아파트 단지내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부르고 있는데, 단지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이용하므로 공공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아파트의 중심 공간에 누가 일부러 가겠는가? 중세 때처럼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과연 이러한 공간을 진정한 공공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가?

3. 비 물리적인 공공공간

-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공공공간만 퍼블릭 스페이스라 할 수 있는가?
- 특히, 서울시와 같이 고밀도이면서 이동이 많은 대도시에서 퍼블릭이 가지는 의미는 첫째 물리적인 측면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사회적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social awareness)이며, 둘째 사회학적 측면에서 일체성을 느끼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것, 즉 서로 이웃을 잘 아는 공간감이 있거나 물리적으로 공간은 연속이 되지 않는데 공간을 초월한 본드들을 찾아볼 수 있는 상태를 들 수 있을 것임. 예를 들면 실제공간에서가 아니라 취미, 관계, 온라인 등으로 연결된 공간도 공공공간의 하나의 범주로 볼 수 있음
- 공공성을 물리적으로 경직되게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봄. 사유화되고 상업화 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점점공간, 지하철 공간)들까지 퍼블릭 스페이스로 봐야하지 않을까?
- 도시계획가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퍼블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건축가는 오히려 법적 의미의 퍼블릭 스페이스와 사유화/상업화된 공간과의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4. 공공성 창출을 위한 중간자적·매개적 존재로서의 전문가의 역할

- 관과 민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진정한 공공공간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다시 말해 민과 관사이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의 개입이 필요하며, 그것은 가치중립적인 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임
- 밤으로 유명한 일본의 오부세 마을의 사례는 미술의 마을로 유명함. 이곳은 한 건축가가 15년간 지역을 지키면서 꾸준히 작업을 해 온 결과이며, 지역 만들기에서 한명의 건축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큰 지를 보여주고 있음

5. 공공성 창출의 가능성

- 결국 동네에 대한 애착과 주거의 안정성이 있어야 공공공간 또는 공공성이 창출된다고 생각함. 제일 잘 사는 동네와 아주 못사는 동네에는 그러한 공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커뮤니티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커뮤니티라는 말로 설명하고 해결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복잡적이고 빠르고, 이해가치가 천차만별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bottom-up에 의한 지역 만들기, 공공성의 창출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봄

6. 홍대앞 놀이터 사례

- 홍대앞 놀이터의 성격이 변화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는 것일까? 상업적인 행위와 비상업적 행위를 사람들이 구별할까? 홍대앞이나 서울광장은 매우 다이나믹한 공간임. 다이나믹하고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야말로 오히려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고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발생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임

- 서양에는 ‘금지’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반전 운동 때 히피 중 여러 희생자가 발생한 프랑스의 인민 광장에서는 과거의 역사 때문에 히피들이 완전 점유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으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음. 이태리 피아짜와 같이 공간을 조성해 놓았는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공간도 많음. 이런 문제들은 공공공간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일상 공간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이런 점에서 홍대앞, 서울광장이 의미가 있을 것이며, 다양한 행위와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공공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과천 대공원이나 국립미술관과 같이 떨어져 있고 개별적인 공간이 아니라, 여러 줄기의 중간 지점에 물이 고이는 공간과 같은 공공공간이 필요함. 큰 공간 하나 보다는 작은 공간 여러 개가 네트워크를 가지는 공간이 필요하고 중요함. 테헤란로에서는 그러한 공간을 찾아볼 수 없음

공공성 관련 전문가 워크숍

워크숍 일시 : 2008. 12. 23.(화)- 12. 24.(수)
참석자: 안창모, 홍성태, 서중균 / 염철호, 조준배, 심경미, 차미희

1.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

□ 공공성의 의미

- 공공성에 해당하는 영어단어는 무엇인가? publicity는 공공성이라기보다는 홍보, 널리 알림의 의미를 지니며 publicness가 공공성에 가까움. 독어에는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없으나 나머지 서구에는 있음 이는.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이 만들어져 퍼졌지만, 독일에서는 절대왕정 하에서 할 수가 없던 것에 연유함
- 공사 이분법적으로 본다면 ‘공’은 국가를 ‘사’는 개인, 가정을 의미함
- 서구의 ‘public’을 그대로 우리의 ‘공공성’으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음. 한국은 공은 있으나 퍼블릭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공공성은 많은 의미를 가지지만 대체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성질’이라고 정의됨. 우리나라는 공공성의 개념정립에 식민지적 학풍자체가 혼란을 초래했다고 봄. 공공성은 성질로 정의해야 하며 어떤 것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때 정의 가능함

□ 공공성의 주체 : 계급, 시장

- 국가적, 계급적, 시민적, 시장적 공공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성이 큰 것일수록 국가가 관리했음. 국가가 소유하고 이용하는 것을 공공성이 큰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나, 절대 그렇지 않음. 국가의 사유화. 난개발을 펼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공공성이 큰 것이 제대로 공공성을 실현되고 있는가를 제대로 평가하고 감시하고 평가해야 함
- 계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하는 것은 무조건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나? 공공성은 사회형성의 주체로서의 시민계급과 필연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봄. 시민적 공공성은 결국은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시민들이 국가나 시장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에서 나타남

□ 공공성 대상

- 공공성의 의미와 주체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과정으로서의 공공성, 결과로서의 공공성을 논할 수 있을 것임
- 서구에서는 아렌트와 하버마스 이후에도 요즘의 연구자들에 의해 publicness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에서도 연구는 많으나 일본식 정리 수준. 개념정리 극복 못했음. 우리의 경우, 이론적 측면에서 제기된 것은 없지만 90년대 이후에 관련 논문이 쏟아져 나왔지만 국가적·계급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음. 이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진보 좌파쪽의 저항으로 나타남. 자기 모순적으로 나타남
- 공적영역과 공적부문(ex. 공공기관 등)의 구분이 중요함. 공적영역은 공간에 대한 용어로 공적부문은 제도화된 용어로 그 의미가 구분될 필요가 있음. 공적부분을 지키는 것이 공적영역을 지키는 것은 아니므로 영역과 부문에 대한 혼란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적 공공성에 대한 논의

□ 공공의 프라이버시

- 공공의 프라이버시가 가능할까? 아파트 담장과 주택의 담장은 다름. 아파트 단지가 담장을 철거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면서 단지주민의 프라이버시는 공개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도시부분의 공공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아파트의 공공공간은 고급스럽게 꾸미고자함.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의 것보다는 공공의 공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사례가 가져야할 성격과 특성

- 아파트단지의 담장허물기와 개인주택의 담장 허물기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

하며 사례를 선택해야 함

- 우리의 경우 국가주도의 개발이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길 원함. 이렇게 국가가 공공공간을 내놓은 경우 그것의 프로세스를 강조할 수 있을까?
- 한 예로써 당인리 발전소라는 곳을 대상으로 한전, 마포구, 문화부, 서울시가 참여하게 대립한 사례. 마포구는 싸늘이 하던가 일부만 남기고 밀어버린 후 오페라 하우스 건설을 추진함. 공공성을 내세운 자기의 치적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임. 서울시는 가만히 두어도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 수수방관했음. 여기서 서울시가 했어야 할 역할은 마포구에서 당인리발전소 이전 계획을 수용하기 위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일이었음. 그러나 서울시는 한전이 수용할 수 없는 공간을 제시하고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한전이 탐내하던 상암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쓰고자 했음. 이런 면에서 공공의 공공성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정말 없는 듯 보임. 자기주장을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에는 대통령이 결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봄. 결론은 장관이 “대체부지가 있다면 당인리발전소를 없애겠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끝났음. 이것은 없애지 않겠다는 것이었음. 이런 사례에서 공공성의 프로세스를 논할 수 있겠는가?
-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공공성이 있는 듯 보이나, 실상은 사업수로 파악하는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것들이 현재의 문제인 것 같음. 이것이 현재 일반인들이 공유하는 공공성인 듯싶음
- 안양예술공원과 같이 일상의 공간과 떨어져 있는 기념비적인 사례와 함께 담장 허물기 사례와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논의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 공공성 확보의 한 측면 : 도시 내 건축문화유산의 공공성

- 도시 속에 잔재하는 근대기에 형성된 문화유산이 여전히 배타적인 시선을 받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 강점기 문화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건축문화재 공공성 확보에 관심이 많음. 답은 없으나 법이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같은 원론적인 것만 제시한다면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으로써 사유재산 공공성이 강한 법이라는 것을 홍보해야 하지 않는가? 총 공사비의 1%를 문화예술작품(미술작품)설치에 사용하는 것을 건축 문화유산의 공공성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러한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재개발사업에서의 문화유산은 파괴와 훼손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한 법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우리의 실정에 맞는 공공성, 한국적 공공성

- 우리에게 맞지 않은 서구의 공공성을 가지고 한국적 공공성이라 한다면 한국적 민

주성이 떠올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한국적 공공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근대이후 개항-식민지-한국전쟁-경제발전-개발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편안하게 느끼는 공공성의 단편들을 끄집어 나열해 볼 수 있음. 가령 공공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은 아파트단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특성일 수도 있음. 또한 거주 안정성의 부재가 공공성의 성격을 아주 다르게 만들고 있음
- 거주가 길지 않으면 공공성도 생길 수 없음. 끊임없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는 도시의 흐름 속에서 거주의 안정성이 부재한 곳의 공공성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거주 안정성이 확보된 곳에서의 공공성은 거주의 안정성과 관련되지 않은 공공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임. 가령 성북동과 가회동의 공공성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찾아낸다면 우리의 공공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공공성이란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균형의 문제’

- 공공성이란 우리 상황에 맞는 균형을 찾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특정한 상황에 맞는 균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 퍼블릭한 것의 내용은 계속 변하는 것 같음. 비판의 여지를 퍼블릭한 것에 열어두는 것이 퍼블릭한 것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함
- 그런 점에서 참여라는 것은 비판의 측면을 열어두는 것이 옳다고 봄. 이때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참여도 사람들을 더 옳아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한 예로 시민단체도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답을 쌓고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해야 한다는 동기는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참여는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는 배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참여인건지 배제인건지 의문시됨
- 어떠한 장치가 참여를 많이 시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음
- 종합적으로 균형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좋을 것임. 비판의 여지를 많이 두는 것이 필요하며 끊임없는 비판이 필요함

□ 서구의 공공성 논의와 우리나라의 공공성

- 오늘날의 공공성은 하버마스 인용보다는 아렌트를 잘 이해하고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 아렌트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자기구현’, ‘시민주권을 되살리

자' 라는 성격을 가짐

- 하버마스는 언론에 국한해서 볼 때 유용함. 하버마스는 절대 민주주의에서 근대 민주주의로의 변화 과정의 언론형성 및 논의과정을 말하고 있음
- 아렌트의 이론 뒤에는 서구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서구민주주의는 개인이 자기주권을 행사할 때 시민이 되는 개인주의에서 시작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흐름 없이 개인주의만 나타나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 난개발 공화국이 되어버림
-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공과 사의 이분법적인 것은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하며 한국적 공공성이란 결과적인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없는 것임

□ 공공성의 양적평가 필요성과 우리의 공공성 현실

- 공공성의 질적 평가 역시 중요하지만 이전에 양적평가도 중요함. 서로 다른 질을 말하면서 양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질적인 차이를 무차별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능한가?
- 건축·도시와 관련해서는 공간이라는 모든 것이 공공성을 가지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음. 건축·도시에서 건축보다는 도시가 먼저이고 도시계획이 먼저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상황을 그렇지 못함. 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공공성은 취약함
- 1차적으로 건축과 도시와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투기를 용인하는 제도 속에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는가? 역사적 문화적 차원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한국도시의 상황 속에서 공공성을 논하기는 어려움
- 공공성 논의의 핵심은 법의 논의가 필수이므로 제도중심에서 논점을 가져야 함. 행위주체로서는 정부의 문제가 제일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이 필요함

3. 공공성 구현을 위한 기존 방식의 전환

□ 생태성, 역사성, 경제성에서부터의 공공성

-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공간의 복지를 이야기할 때, 국가의 개입은 강력할 수밖에 없음
-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사람이 권리를 갖기 위해 그동안의 경제성 위주에서 근원적으로 돌아가 역사성, 경제성, 생태성 전반에 걸친 공공성 논의가 필요함

- 생태성과 역사성이 왜 더 큰 공공성을 가지는가를 주장,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점적 접근에서 면적, 입체적 접근으로의 변화

- 주변과 환경과의 조화, 지하, 공중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세운상가 개발 시 종묘까지 고려해야 하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 뮌헨은 알프스를 보기 위해 고층개발을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현대적 접근이 아닌 역사적 접근으로의 변화
- 공간이 시공간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부족함. 공간은 역사와 시간을 담는 그릇으로 공간에 대해 외향적 물리적 이해보다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에서는 공간을 시간으로 이해해야 함. 역사가 공간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함

□ 경제적 접근에서 생태적 접근으로의 변화

- ‘도시는 사회적 집적체이다.’ 사회는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공간의 변화 없이 사회적 변화는 말이 되지 않음
- 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질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양적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함. 오늘날 일상 미학적 측면에서 보면 또한 스트레스 지수만 보더라도 질적 환경 저하는 분명함. 양적인 측면은 이러한 것을 희석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서울이라는 공간은 공공성을 보려는 것에 유용한 대상이며, 실제로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음. 객관적인 논의를 전제로 한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수에게 독점되며 다수에게 강요되기도 했음. 인사동의 경우 스스로 인정한 것조차 지키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우리의 시대상황과 현실을 반영한 공공성의 필요

- 건축은 사회를 반영하지만 그 역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님
- 우리가 식민지에서 이뤄진 급속한 경제개발 속에서 이정도로 서울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성과라 할 수 있지만 경제개발 한편에서는 많은 근현대 역사가 파괴되었음. 이처럼 파괴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우리 상황에 맞는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남한과 북한은 이데올로기 차이를 갖고 있음. 건축이 이데올로기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이념에 의한 선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유니크한 역사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임
- 이데올로기 차이가 서로 다른 도시와 건축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남과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공공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임. 사례를 주도면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공공성의 특질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행정에서의 권한의 이양

- 현실을 살펴보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은 창조가 아닌 카피를 할 것임
- 모든 것을 무조건 주민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음. 발상은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며 혁신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임
- 행정이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 이양은 의미가 없음
- 일단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언을 하는 등의 참여를 원하게 될 것임. 그리고 참여의 기회를 얻음. 이때 참여의 기회를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어디서 주는 것이 좋은가? 무엇이 바람직한가?

부록 3.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인식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전문가 설문지

KMS:2008100016

안녕하십니까?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건축·도시분야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2008년 기본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에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설문은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프로그램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진 : 염철호 연구위원(연구책임), 조준배 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원

pooh4081@embrain.com / hjpark@embrain.com
☎ 02-3406-3952, fax. 02-3406-3860

기관 명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이메일	

4. 공공성이 여전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을 두 곳 선택해주시시오.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 ◎ 2 순위 : ()

- ① 공원, 광장, 수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오픈스페이스
- ② 놀이터, 생활가로 등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생활공간
- ③ 민간건축물에 의해 조성되는 공개공지
- ④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등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건축물
- ⑤ 대규모 오피스빌딩, 주상복합건물 등과 같은 민간건축물
- ⑥ 기타 ()

5. 공공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 ◎ 2 순위 : ()

- ①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과 도서관, 문화공간 등 공공시설의 양적인 증대
- ②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개방성·접근성·쾌적성 등 질적 향상
- ③ 주민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성과정
- ④ 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시민단체와 파트너십 구축
- ⑤ 조성된 공간의 지속적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 ⑥ 적정한 규모와 위치, 필요한 기능 등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공간조성
- ⑦ 기타 ()

6. 공공성이 여전히 미약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 ◎ 2 순위 : ()

- ①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과 도서관, 문화공간 등 공공시설의 양적인 부족
- ② 공공 공간 및 공공 시설의 개방성·접근성·쾌적성 등 질적 수준 미약
- ③ 주민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미흡
- ④ 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시민단체와 파트너십 미약
- ⑤ 조성된 공간의 지속적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결여
- ⑥ 지역 수요 및 고유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천편일률적인 공간조성
- ⑦ 기타 ()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개념 전환에 관한 인식

7-1. 다음은 공공성의 개념 전환에 관한 항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알맞은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만 족 도	매 우 동 감 함	조 금 동 감 함	그 저 그 령 다 (보 통)	그 다 지 동 감 하 않 음	전 혀 동 감 하 않 음
(1) [시민주도]행정이 주도하고 관리하는 공공성에서 커뮤니티가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공공성으로 전환되어야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과정중시]결과보다는 조성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정보의 공개와 논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등)가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관리운영]공간을 확보·조성하는 것 보다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경계인식전환]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는 가변적인 것이며 경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변과의 조화] 깨끗하고 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지역과 장소의 맥락을 고려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2. 공공성 개념 전환에 관한 다음의 5가지 항목 중에서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항목 순으로 순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① 행정이 주도하고 관리하는 공공성에서 커뮤니티가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공공성으로 전환되어야 있다
- ② 조성하는 공간의 공공성 확보 보다 공간조성 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정보의 공개와 논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등)가 더욱 중요하다
- ③ 공간을 확보·조성하는 것 보다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④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는 가변적인 것이며 경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 ⑤ 깨끗하고 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지역과 장소의 맥락을 고려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③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같은 지자체 주도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 ④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뉴타운사업 등 주거환경정비 사업
- ⑤ 도심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복합공간조성 사업
- ⑥ 기타 ()

공공성 구현 사례

11. 공공성이 잘 구현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례와 선정 이유를 기입해 주십시오.

사례 ()

선정이유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D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남 (2) 여

DQ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만 20세 미만 (2) 만 20세~29세 (3) 만 30세~39세 (4) 만 40세~49세
(5) 만50세 이상

DQ3. 귀하가 현재 주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충남 (10) 충북 (11) 전남 (12) 전북 (13) 경남 (14) 경북
(15) 강원 (16) 제주

DQ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건축설계 실무 (2) 도시설계 실무 (3) 조경 및 경관설계 실무
(4) 공공디자인 실무 (5) 건축직 공무원 (6) 도시직 공무원
(7) 토목 및 공원녹지직 공무원 (8)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공무원

DQ5. 해당 분야에서 귀하의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2년 미만 (2) 2년~5년 미만 (3) 5년~10년 미만 (4) 10년 이상

부록 4.

사례 대상지 현장조사

1. 설문지

방문자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연구’**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건축·도시분야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엄철호(부연구위원), 조준배(부연구위원), 심경미(연구원)

이용현황에 관하여

1. 귀하께서는 이곳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① 처음 왔다 ② 어쩌다 한 번 ③ 한달에 한두 번
④ 일주일에 한두 번 ⑤ 주말에만 온다 ⑥ 거의 매일 온다

2. 귀하께서 이곳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계절 무관

3.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요일은 언제입니까?

- ① 주중 (월-금요일) ② 주말 (토요일, 일요일) ③ 요일 무관

4.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① 오전 ② 점심 ③ 오후 ④ 저녁 ⑤ 야간

5. 귀하께서 이곳을 이용하실 때 머무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약 30분 정도 ② 약 1시간 정도 ③ 2시간-3시간
④ 3시간-4시간 ⑤ 5시간 이상

6. 귀하께서는 이곳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십니까?

- ① 산책 및 휴식을 위해서 ② 만남이나 대화의 장소로서
③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④ 공연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⑤ 쇼핑을 위해서 ⑥ 조깅이나 건강을 위해서
⑦ 그냥 지나가다가 ⑧ 기타 _____

이용 만족도에 관하여

이곳의 이용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보기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의 문항	매 우 그 렇 다	그 렇 다	보 통	그 렇 지 않 다	매 우 그 렇 지 않 다	잘 모 르 겠 다
1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찾아오기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아름답고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활동과 시간에 제약 없이 개방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조성과정의 공개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조성과정에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주변의 도시경관이나 장소적으로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운영 프로그램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전체적인 이용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공간의 이미지에 관하여

이곳의 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보기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질의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1	산책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2	만남이나 대화를 위한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3	도시의 문화체험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4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로서의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5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6	축제 및 문화, 예술의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7	시민이 기획·참여하는 열린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8	의견 교류와 캠페인의 공론의 장	①	②	③	④	⑤	⑥
9	상업적인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10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11. 이곳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위치 ② 시설 ③ 행사 및 프로그램
④ 분위기 ⑤ 주변 환경 ⑥ 기타 _____

12. 이곳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위치 ② 시설 부족 및 불편함 ③ 행사 및 프로그램
부족, 낮은 수준
④ 분위기 ⑤ 주변 환경 ⑥ 기타 _____

13. 이곳의 시설 및 운영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가능)

- ① 시설이나 공간이 잘 관리되어야 함
- ② 시설이 보다 좋아지고 다양화되어야 함
- ③ 공연 등의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져야 함
- ④ 시민이 기획·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함
- ⑤ 이용안내 책자나 안내센터가 확충되어야 함
- ⑥ 공연 등의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가급적 줄여 좀 더 조용한 장소가 되어야 함
- ⑦ 기타_____

14. 귀하께서는 앞으로 이곳이 특히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개 선택 가능)

- ① 산책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 ② 만남이나 대화를 위한 공간
- ③ 도시의 문화체험 공간
- ④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로서의 공간
- ⑤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공간
- ⑥ 축제 및 문화, 예술의 공간
- ⑦ 시민이 기획·참여하는 열린 공간
- ⑧ 의견교류와 캠페인의 공론의 공간
- ⑨ 기타_____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만 20세 미만
- ② 만 20세~29세
- ③ 만 30세~39세
- ④ 만 40세~49세
- ⑤ 만50세 이상

3.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시 () 구

4. 귀하가 주로 활동 (근무, 학교 등) 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시 () 구

5.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영업자
- ② 영업직
- ③ 사무직
- ④ 전문직
- ⑤ 공무원
- ⑥ 주부
- ⑦ 학생
- ⑧ 문화·예술
- ⑨ 무직
- ⑩ 기타

2. 설문결과 분석

1) 서울숲 현장조사

조사대상 : 서울숲을 방문한 이용자(60명)
조사기간 : 2008년 11월 19일(수), 21일(금), 23일(일), 총 3회
조사방법 : 일대일 직접 설문

□ 서울숲의 이용현황

- 서울숲을 방문한 이용자는 처음 방문했거나(27%) 어쩌다 한번 방문했다는(38%) 비정기적 이용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했으며 서울숲공원에 거의 매일 오는 이용자도 12%를 차지하였음. 이용시기는 전체적으로는 계절에 무관하게 방문하고 있음
- 서울숲을 찾는 이용객들의 목적에 대해서는 산책이나 휴식이 전체의 58%를 차지하였고 만남이나 대화가 13%로 그 다음을 차지함

□ 이용만족도

- 서울숲은 이용편리성, 접근성, 쾌적성, 개방성의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조성과정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인 공간의 만족도는 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서울숲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긍정적인 의견이 이용편리성 78%, 접근성 68%, 쾌적성 80%, 개방성 80%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성과정이 공개적이었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3%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와는 상반적으로 보통(32%)과 잘 모르겠다는 의견(10%)이 43%를 차지함
- 조성과정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58%), 운영 프로그램(52%),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45%)에 대한 의견은 보통이나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른 질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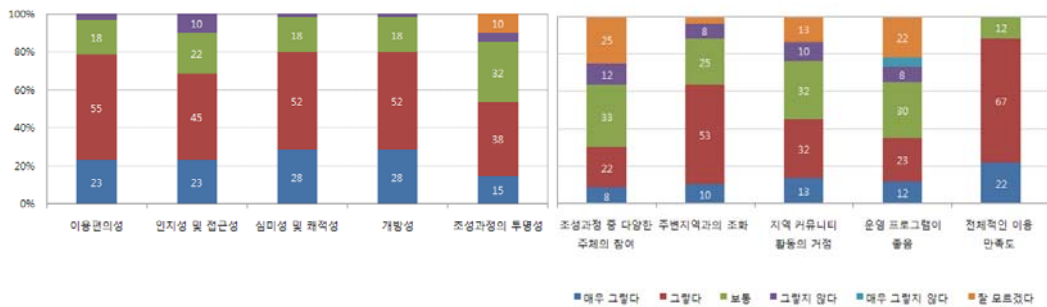
□ 공간이미지

- 서울숲 이용자는 서울숲에서 ‘공원의 분위기’를 가장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설부족에 따른 불편함, 행사 및 프로그램의 부족’을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숲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산책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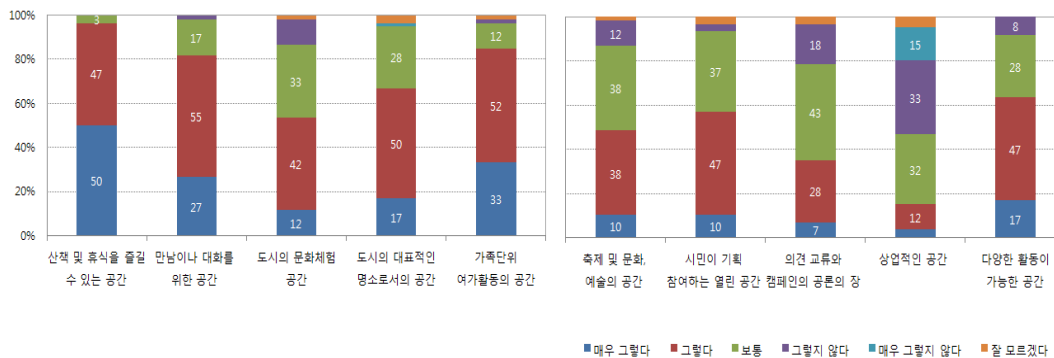
견이 97%로 제일 높았으며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공간, 만남이나 대화를 위한 공간,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로서의 공간의 이미지가 그 다음을 차지함

- 축제 및 문화, 예술의 공간과 의견교류의 이미지는 48%, 캠페인의 공론의 장으로서의 이미지는 35%로 나타남
- 서울숲의 이용자들은 공원의 긍정적인 이미지 요소로 분위기를(37%), 그 뒤로 주변환경, 위치 및 시설을 꼽았고 부정적인 이미지 요소로는 시설부족 및 불편함과 행사 및 프로그램의 부족을 응답
- 서울숲 이용자는 서울숲은 지금과 같이 산책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되고 유지되기를 바랐으며 이밖에도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함
- 앞으로 공원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으면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7%가 산책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람. 이밖에도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는 의견이(12%) 다음으로 제시됨

서울숲 이용만족도



서울숲 공간이미지



2) 서울광장 현장조사

조사대상 : 서울광장을 방문한 이용자(78명)

조사기간 : 2008년 11월 18일(화), 19일(수), 22일(토), 총 3회

조사방법 : 일대일 직접 설문

□ 서울광장의 이용현황

- 서울광장은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계절에 상관없이 광장을 이용하지만 다른 계절보다 특히 스케이트장을 개장하는 겨울에 주로 이용하고 있음
- 주요 활동지역이 시청 주변인 사람들은 요일에 상관없이 방문하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주로 주말에 광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거나 만남이나 대화의 장소로 광장을 사용하며 30분 정도 광장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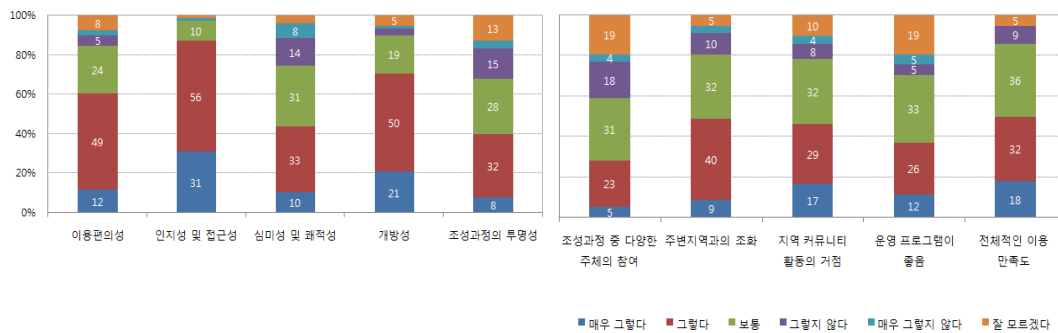
- 서울광장은 서울의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 개방성, 이용편리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얻었지만 조성과정 중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았음. 전체적으로 50%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 서울광장은 접근성의 만족도(8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방성(71%), 이용편리성(61%)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함
- 조성과정이 공개적이었는가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가 40%, ‘아니다’가 32%를 차지해 상반된 결과를 얻었으며 조성과정 중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관해 41%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서울광장이 주변의 도시경관과 어울리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9%그렇다로 응답

□ 공간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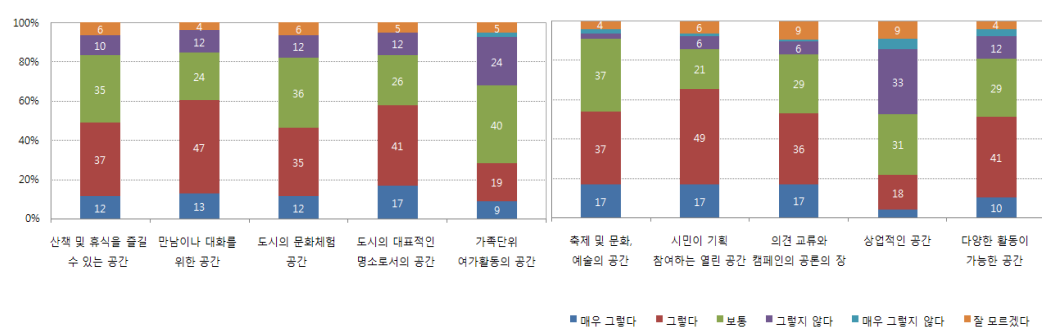
- 이용자들에게 현재 서울광장은 시민이 기획, 참여하는 열린 공간의 이미지가 가장 높았으며, 광장의 긍정적인 요소는 행사 및 프로그램, 부정적인 요소는 시설 부족 및 불편함을 들며 아이들이나 가족단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함
- 서울광장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광장을 시민이 기획,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만남이나 대화를 위한 공간(60%),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로서의 공간(57%), 의견교류를 위한 공론의 장(53%)으로서의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음

- 광장이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 요소는 행사 및 프로그램이 32%, 위치가 27%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인 이미지 요소는 시설부족 및 불편함이 33%로 제일 높았으며 주변 환경이 26%를 차지함
- 응답자들은 현재의 시설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광장이 산책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축제 및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원함
- 서울광장의 이용자들은 현재 시설의 개선(35%)과 시설이나 공간의 관리(18%)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앞으로 광장이 축제 및 문화, 예술의 공간(18%), 산책이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18%), 만남이나 대화를 위한 공간(17%)이 되기를 원함

서울광장 이용만족도



서울광장 공간이미지



3) 안양예술공원 현장조사

조사대상 : 안양예술공원을 방문한 이용자(58명)

조사기간 : 2008년 11월 16일(일), 17일(월), 18일(화), 23일(일), 총 4회

조사방법 : 일대일 직접 설문

□ 안양예술공원의 이용현황

- 안양예술공원은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 보다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들은 계절에 무관하게 예술공원을 찾고 있음. 주중보다는 주말에, 점심과 오후시간에 산책 및 휴식의 목적을 가지고 2~3시간정도 공원을 이용함
- 안양예술공원은 방문하는 목적으로는 가장 많은 이용자가 산책 및 휴식(53%)이라고 답했으며 이 밖에도 조깅이나 건강(19%), 시설을 이용하기 위함(9%)을 방문 목적으로 답함

□ 이용만족도

- 이용자는 안양예술공원의 개방성, 접근성, 이용편리성, 쾌적성의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운영 프로그램이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21%만이 그렇다고 답해 현재 다수의 유명작가의 건축물이나 작품이 안양 예술공원에 전시되어 있지만 운영프로그램은 취약하다는 인식이 대부분임
- 안양예술공원에 대하여 이용편리성(62%), 접근성(64%), 개방성(81%), 쾌적성(61%)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의견을 제시함
- 조성과정의 공개적이었나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3%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조성과정 중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관한 질문에는 5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38%만이 안양 예술공원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함
- 이용자들이 안양예술공원의 아쉬운 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인 운영프로그램 측면은 21%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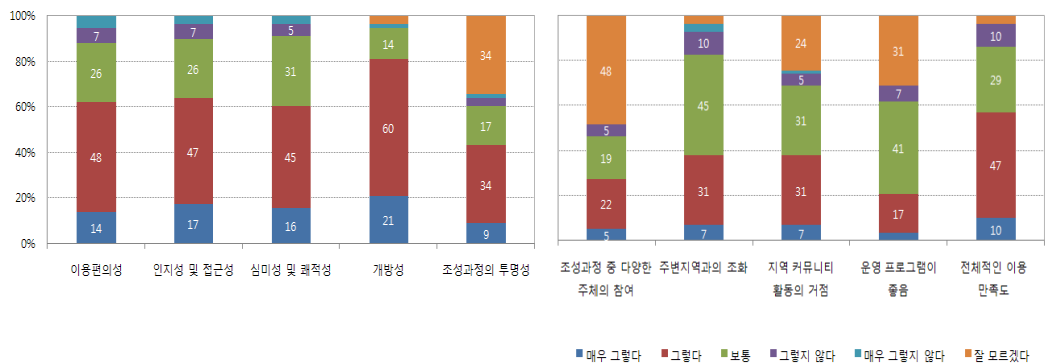
□ 공간이미지

- 안양예술공원 이용자들은 공원의 긍정적인 이미지 요소로 주변환경(41%), 위치(24%), 분위기(19%)를 꼽았으며 부정적인 이미지 요소로는 시설부족으로 인한 불편함(26%), 행사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수준이 낮은 것(21%)을 꼽음
- 안양예술공원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산책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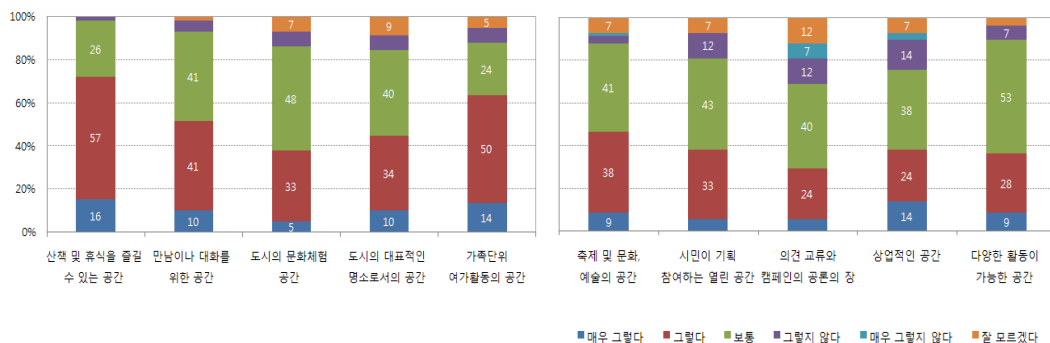
73%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의 공간(64%), 만남이나 대화를 위한 공간(51%)이라는 의견이 그 다음을 차지함

- 안양예술공원이 시민이 기획 참여하는 열린 공간(38%), 의견교류와 공론의 장(29%),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37%)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냄
- 축제 및 문화, 예술의 공간의 측면에서는 47%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나 실제로 응답자와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작품전시 이외에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예술공원의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이야기 함
- 이용자들은 앞으로 안양예술공원이 산책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도시의 문화체험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됨

안양예술공원 이용만족도



안양예술공원 공간이미지



4) 홍대앞 놀이터 현장조사

조사대상 : 홍대앞 놀이터를 방문한 이용자(51명)
조사기간 : 2008년 11월 17일(월), 19일(수), 22일(토), 총 3회
조사방법 : 일대일 직접 설문

□ 홍대앞 놀이터의 이용현황

- 홍대앞 놀이터 이용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로 주중보다는 주말에, 하루 중 오후시간에, 산책이나 휴식, 만남이나 대화, 쇼핑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고 있음
- 요일별로는 프리마켓, 희망시장이 열리는 주말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요일에 무관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41%를 차지함. 이용시간대는 오후와 저녁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여 약30분 정도(59%)에서 약 1시간 정도(27%)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 홍대앞 놀이터의 이용목적은 산책이나 휴식이 27%, 만남이나 대화를 위해서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쇼핑을 위해서는 10%로 낮게 나타남⁸⁹⁾

□ 이용만족도

- 홍대앞 놀이터는 접근성, 개방성에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편리성과 쾌적성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전체적인 이용만족도는 47%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 홍대앞 놀이터에 대하여 접근성(69%), 개방성(86%)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용편리성은 67%, 쾌적성은 89%로 보통이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남
- 조성과정이 공개적이었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5%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와는 상반적으로 보통(39%)과 잘 모르겠다는 의견(16%)이 55%를 차지함
- 조성과정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20%), 운영 프로그램(24%)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낮았던 반면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의 역할을 하는지(65%), 주변의 장소와 어울리는지(49%)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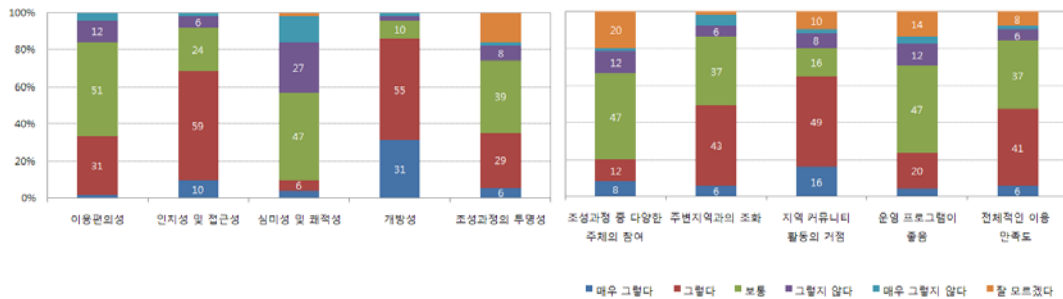
□ 공간이미지

- 홍대앞 놀이터의 주된 이미지는 만남이나 대화를 위한 공간, 축제 및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이 장소의 분위기를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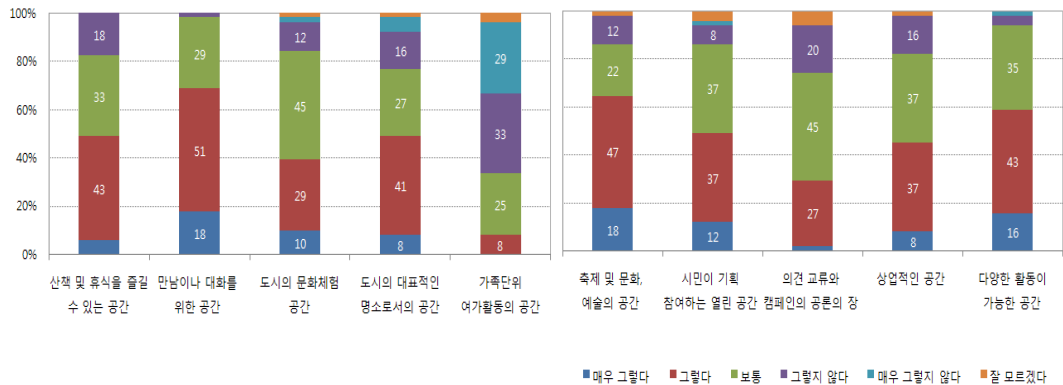
89) 설문의 전체 응답자 51명 중 주중에 35명, 주말에 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프리마켓, 희망시장을 위해 방문한 사람의 비율이 낮아 쇼핑을 목적으로

- 홍대앞 놀이터는 만남이나 대화를 위한 공간의 이미지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밖에도 축제 및 문화, 예술의 공간(65%), 산책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49%),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로서의 공간(49%)의 이미지의 순서로 나타났음
-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는 8%, 의견 교류와 캠페인의 공론의 장으로서의 이미지는 29%로 낮게 나타남
- 홍대앞 놀이터가 가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분위기가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사 및 프로그램, 위치 등이 뒤를 이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는 시설부족 및 불편함(39%), 주변환경(31%) 등의 의견을 보임
- 이용자는 현재 시설 및 공간의 관리와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앞으로 산책 및 휴식의 공간이자 축제 및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원함
- 이용자들은 홍대앞 놀이터가 현재 시설 및 공간의 관리(47%)와 시설의 개선(27%)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앞으로 산책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29%), 축제 및 문화, 예술의 공간(20%)으로 발전하기를 원했음

홍대앞 놀이터 이용만족도



홍대앞 놀이터 공간이미지



3. 현장일지

1) 서울숲 공원

① 2008년 11월 19일, 수요일, 14:00~15:30

울 겨울, 가장 추운 날에 첫 조사를 나갔다. 평일에 서울숲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었고, 이런 추위에 공원에 놀러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하며 갔는데, 역시나 사람이 거의 없었다.

14시. 서울숲에 도착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방문자센터를 지나 서울숲 중앙으로 가는 동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밖에 보지 못했다. 방문자센터에 있는 편의점에도 손님이 없었다. 서울숲 중앙의 롯데리아에도 손님이 한명밖에 없었다. 롯데리아 바깥에 있는 벤치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14시 30분. 조깅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지만 설문에 응해주지 않았다. 운동하는 도중에 설문에 응하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찾기 힘들었지만 공원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같은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계셔서 그분들께라도 질문을 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서울숲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일하러 매일 오는 거야.”

“아, 그럼 놀러 오시지는 않는 거예요?”

“집이 이 근처라서, 그냥 할 일 없을 때 와서 쪽 돌다가 가지.”

“이용하실 때 불편한 점 같은 것은 없으세요?”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말썽피우는 게 제일 골치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은 좋아. 선생님이 이거 치워라 하면 다 치우고 얌전히 있다 간다고. 중고등학생들은 뭐 먹고 나서 그 자리에 그냥 버리고 가면 그래도 좋은데, 발로 차서 다 흐트러뜨리고 어디 가서 담배피고. 선생은 그런 애들 말리지도 않아. 요새 애들이 무섭잖아. 애들은 이런데 나오면 호기가 생겨서 더 그런다고. 나도 무서워서 말리지도 못하겠어”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설문조사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 김에 평소에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지 여쭙어보았다. 일주일전만해도 수천여명이 나와 공원을 산책하거나 운동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여가를 즐기곤 하였는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지금처럼 사람이 없어진 것이라고 하셨다.

15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갑자기 많이 지나갔다. 학교가 파하고 공원 반대쪽에 있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추워서인지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단지로 빠져나갔다.



② 2008년 11월 21일, 금요일, 14:00~18:00

첫날보다 날이 많이 풀려서 사람이 더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설문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할 정도로 사람이 별로 없었다.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놀러 나온 학생들이나 커플, 가족단위의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진을 찍으러 친구들끼리 나온 사람도 있었다. 설문을 하면서 많이들은 질문이 “오늘이 처음 방문한 건데요.” 라는 말이었다. 평일인데도 시간을 내서 서울숲을 찾아온 것이다. 친구들끼리 방문한 학생처럼 보이는 몇몇 사람들에게서는 “서울사람 아닌데도 되느냐.” 라는 질문을 들었다. 서울숲이 주민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명소이기도 한 것 같았다.

서울숲에 도착했을 때 입구 쪽에 있는 운동장에서 의경들이 150명 정도 대열을 갖추고 있었는데 나올 때 보니, 여러 명이 그룹을 지어 서울숲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10명 정도의 의경들은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기로 하였다.

13시 30분. 평소에 사람이 많은 사슴우리 쪽으로 갔지만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여름에는 사슴을 보러오는 가족이 많았는데 추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설문을 하러 다닐 때 만난 어머니 두 분도 애들이 추워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설문에 응해주시지 않으셨다. 자전거 운동복을 입은 할아버지 사진을 찍어드리고 설문을 부탁드렸지만 글자가 잘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 인터뷰를 시도했다. 할아버지는 70대 정도로 보였는데 굉장히 정정하셨다. 덕성여대 쪽에 사시는데 서울숲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고 한다. 서울숲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한강 자전거도로 쪽으로는 가지지 않고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셨다.

15시. 첫날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귀가하는 모습이 보였다. 엄청나게 추웠던 그날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농구장에서 농구도 하면서 공원에 머물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정구를 하시고 유치원생 아이들도 어린이 축구수업을 받고 있었다.

16시. 운동을 하시다가 쉬는 50대 부부께 인터뷰를 하였다.

“설문? 서울숲은 0점짜리야. 0점인데 뭘 설문을 해.”

“그런 의견도 연구에 도움이 되니까요.”

“서울숲. 위치 좋고 가깝고. 사실 도시에 이만한 공원 있기도 힘들지. 근데 여기 한강에서 건너오는 게 너무 불편해. 이거 다리를 건너게 해줘야지 그게 안 돼.”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서울숲을 돌아다녔다. 수요일과는 다르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였다. 혼자 오신 대학생이나 할아버지도 카메라를 들고 계셨고, 세분이 같이 오신 아저씨 모임도 있었다. 예전에 따듯했을 때는 20명 정도의 단체가 사진을 찍으러 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날은 보통 세 명 이하의 남자 분들만 사진을 찍고 계셨다.

17시. 방문자들이 별로 없어서 서울숲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서울숲 입구 쪽에 모여서 서울숲 관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서울숲에는 처음 오셨다고 했다. 개인단위의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두세 명 정도의 그룹이 있었고, 5명 이상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림잡아 봤을 때 서울숲을 방문한 사람들보다 봉사활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아 보였다.



③ 2008년 11월 23일, 일요일, 10:00~14:00

10시. 날이 많이 따뜻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많았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커플도 많았다. 평일에 비해서 서울숲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느긋했다.

11시 30분. 점심시간이 되어 가면서 매점 쪽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다. 롯데리아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과 매점에서 컵라면을 먹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직접 싸온 도시락을 먹는 사람은 거의 가족단위였다. 추운 날에 매점 바깥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날은 따뜻해서 많이들 점심을 차려놓고 먹고 있었다. 평일 오후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휴일 오전에는 운동하는 사람보다는 가족끼리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12시. 산책로와 벤치가 있는 곳에 앉아 계시는 아저씨께 설문조사를 하면서 불편한 점을 여쭙어 보았다. 아저씨께서는 서울숲 자체는 가깝고 이용에도 편리하지만 사슴이 있는 곳과 광장이 있는 쪽이 차도로 분절되어 있어서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하셨다. 어른들은 다니기에 괜찮지만 어린아이가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도로가 너무 커서 다리를 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신다며 지하를 파던지 해서 서울숲을 하나로 연결하고 한강까지 연계하는 게 좋겠다는 등의 말씀을 하셨다.

1시. 20명 정도의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이 천천히 돌아다니고 계셨는데 산책이나 놀러온 차림새가 아니라 서울숲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 같았다.

2시. 학생들 5명 정도가 사진을 찍고 놀고 있는 곳에 갔다. 사진을 찍어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들은 숙제를 하기위해 서울숲에 왔다고 하였다. 거의 강제적으로 온 것이지만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면서 2시간 정도 즐겁게 놀았다고 하였다.



2) 서울광장

① 11월 18일 화요일, 13:30 ~ 16:30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하니 을씨년스러운 날씨 탓인지 바빠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밖에 눈에 띄지 않았다. 또한 잔디로 채워져 있던 시청 앞 광장은 12월에 개장할 스케이트장 공사 때문에 더욱 더 행해 보였다.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나오기 시작할 즈음인 오후 두 시경에 설문을 시작하였다. 시청역 앞에서 약속시간을 기다리는 40대 중년남성들이 첫 설문 대상이었다. 설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시청 앞 광장의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었다. “자기네들이 뽑아 놓고 이제 와서 광장에 모여 시끄럽게 해대고 또 광장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좀 아니지.” 그 중 가장 적극적으로 답해 주신 한 아저씨가 촛불집회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셨다.

첫 시작은 순조로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광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설문조사를 상당히 어렵게 하였다. 설문을 부탁해도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요.” “나 지금 바빠.” 라는 짧은 대답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개중에는 먼저 나서서 설문에 관심을 표해주시는 분들과 흔쾌히 설문지를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별별 뉘그러면서도 설문을 계속할 수 있었다.

설문을 하다가 공무원이라고 하시던 일행 분들은 시청 앞 광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다. 잔디 깔린 광장은 들어갈 수도 없고 면적도 어중간한 이런 공간이 따로 뉘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에 개설될 스케이트장에 대하여는 호의적이었다. 값싼 이용료와 편리한 접근성이라는 특징이 스케이트장의 인기를 높아지게 하는 원인인 듯하였다.

의정부에서 오신 어떤 공무원 분은 의정부에서도 이런 설문조사를 많이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설문을 해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설문지 한부를 얻어가셨다. 시청 앞 광장 시설 팀장님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다가와 전화번호를 넘기시며 우리의 설문 결과를 보내줄 수 없겠냐며 우리가 실시하는 설문에 관심을 표하셨다. 이러한 분들 때문에 우리는 설문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② 11월 19일, 수요일, 12:00 ~ 2:00

어제 보다 날씨가 더 추워졌다. 뉴스에서는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했다. 장갑과 목도리를 챙기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청역으로 향했다. 5번 출구로 나가니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나타났다. 어제는 광장 한 편에 전기 오토바이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는데, 오늘은 김치 박람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천막을 치던 아저씨들께도 설문을 부탁드렸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알겠냐며 머쓱해 하시기에 우리들이 설문문항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며 응답을 받아내었다.

오늘은 두 번째이고 하니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좀 생겼다. 광장 주변은 플라자 호텔, 프레지던트 호텔, 코리어나 호텔 등 커다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광장 한 쪽의 도로로는 청와대도 보인다. 확실히 중심지라는 분위기가 난다. 하지만 다른 쪽은 높이도 서로 다르고 용도도 불분명한 건물들이 모여 있는 등 하나로 통합된 분위기는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러 가거나 식사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분위기였다. 광장이 아니라, 지나치는 사람들을 위한 가로 같다. 공사 중인 시청이나, 시청 앞의 행한 공간에 눈길을 주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 중에 한 일행은 가이드와 일본사람이었다. 가이드가 설문에 응하는 중 외국인들이 보는 시청 앞 광장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니 딱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지금은 시청도 공사 중이고, 광장도 광장이라기엔 황량하여 확실히 여기가 서울의 시청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하였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확실히 그랬다.



③ 11월 22일 토요일, 10:30 ~ 14:00

주말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연인,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많았다. 페이스페인팅을 한 꼬마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시는 분에게 여쭙보니 청계천 걷기대회를 끝내고 오는 길이라고 하셨다. 커플들은 시청역에서 나와 덕수궁, 명동을 가기 위해 시청 앞 광장을 지나쳐 걸었다. 오늘따라 외국인도 눈에 많이 띄었다. 확실히 주말은 평일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오늘은 한 편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3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어제부터 시작된 모양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사진전을 보고 있어서 설문하기가 한결 쉬웠다. 이곳에서 관람을 하고 있던 한 주부에게 설문도중 시청의 이미지를 여쭙보았더니, 광장이라고 해놓고서는 막상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하셨다. 이름만 광장이지 앉아서 쉴 곳도 없고 휴식을 목적으로 하기엔 너무 개방적인 공간이다. 응답자 중 한분은 시청 앞 광장에서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에 “취객”이라고 적었는데, 부랑자들이나 취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주셨다.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안 좋은 시각을 갖고 계신분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공간이 문화나 축제적 분위기가 되길 원하면서 시끄러운 공간은 되지 말았으면 한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덕수궁이 시청 앞 광장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광장의 분위기 구성에 덕수궁의 역할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았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될 때에는 청와대 쪽 도로에서부터 전통의복을 입은 사람들의 행렬이 광장을 지나 덕수궁 앞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멈춰서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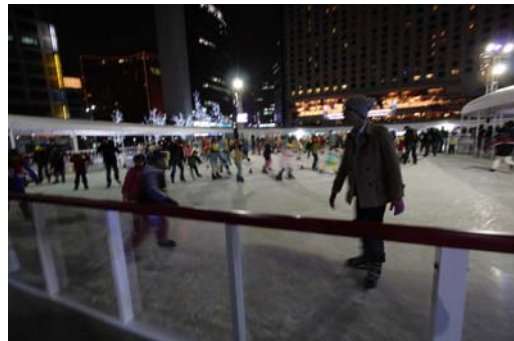
④ 12월 12일 금요일. 20:00 ~ 21:00

지하철역을 통해 시청 앞 광장으로 나오자 11월에 왔었을 때와는 달리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 특히 스케이트장 개장에 맞춰 크리스마스트리와 plaza 호텔 앞 장식들이 저번의 스산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매표소에서부터 길게 늘어진 사람들의 행렬이었는데, 스케이트장 개장일이라 그런지 기나긴 줄에도 불구하고 광장 전체가 활기찬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외국인들도 종종 눈에 띄었고, 교복 입은 학생들도 볼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도 있었지만, 저녁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연인이나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던 것 같다. 스케이트장 주변에 설치되어있는 난로 주위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개장기념 행사로 6시에 있었던 공연이 끝나고 한켠에 있는 무대를 치우고 있는 사람들도 보였다.

plaza 호텔 정면으로 둥글게 가설 매표소, 대여소, 휴게실, 화장실이 차례로 세워져 있었다. 매표소보다 대여소 앞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줄이 훨씬 더 길었다.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니 스케이트를 갈아 신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휴게실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고 다른 스케이트장에 비해 시설이 나빠서 지금보다 사람이 많아지면 불편할 것으로 보였다.

스케이트장 이용객 중 한명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이용객의 말로는 오후가 되니 빙판의 질이 너무 안 좋고 대여 스케이트도 그리 좋은 것이 아니어서 스케이트를 타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하였다. 스케이트장의 크기도 이용객의 수에 비해 작은 것 같아 보였다. 스케이트장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작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들이 주로 타는 구역이 되었다.



⑤ 12월 13일 토요일, 15:00 ~ 16:00

낮 시간이라 그런지 광장에는 어제와는 달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연인, 친구 단위의 이용객도 많았지만 휴일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듯 했다. 링크 주변에 희망의 빛 이라하는 기둥을 세우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와 연말에 하는 빛 축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 매표소에는 어제보다 더 긴 줄이 형성 되어 시끌벅적 했다. 밤에 보았던 것보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더 거대해 보였고 그 주위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구세군 자선냄비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보니 연말 분위기가 한껏 느껴졌다.

링크 안에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다. 안전모를 쓰고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며 천천히 스케이트를 탔다. 또 아이들만큼 커플 단위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한 쪽에선 시청 앞 광장 스케이트장을 찍고 있는 방송국 카메라도 보였다. 시청 앞 광장은 매년 매스컴을 통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나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 보도가 되고 있다. 썬 이용료와 도심에 있다는 장점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어제 예상했던 대로 스케이트장이나 시설이 사람들의 수보다 턱없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사람들이 많아 위험해 보이는 데도 안전 요원이나 안전 시설이 상당히 부족해 보였다. 이용한 적이 있는 한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했다. 친구가 작년 이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 같지도 않았고 고생만 하다 갔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저렴한 이용료와 편리한 접근성은 시청 앞 아이스링크장의 장점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 문제나 스케이트장 시설 자체가 좀 더 좋아졌으면 한다.



3) 안양 예술공원

① 2008년 11월 16일, 일요일, 15:00 ~ 20:00

15:00 ~ 15:30 관악역 도착, 관악역부터 삼성천을 따라 안양예술공원을 찾아 들어감. 안양예술공원을 가는 길에 표지판이 없어서 처음에 약간 헤맸다. 삼성천을 따라 등산객들이 많이 보였다.

15:30 ~ 17:30 입구부터 놀이터까지 조사. 가족단위로 많이 발견되었다. 곳곳의 놀이터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과 벤치에 그 부모들이 앉아있다. 날씨도 좋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안양예술공원을 찾는다는 것이 느껴졌다. 삼성천을 따라 도로에는 자동차가 꽂히질 않았다.

17:30 ~ 18:30 MVRDV의 전망대 근처에서 조사. 해가 저물자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방문객도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언덕 위에 있는 MVRDV의 전망대에서 야경을 보려는 이용객이 많다. MVRDV의 전망대는 그 자체로는 특이하고 재밌지만 어두운 언덕길에 줄이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없는 것이 흠이다. 이곳에서 인터뷰를 한 아주머니는 안양예술공원이 아이들에게 대형 조각품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조사결과 : 주말 오후시간대에는 나들이 나오는 가족단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근처의 식당이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다른 공원에 비해 너무 상업시설이 즐비하다는 지적과 정작 공원내의 시설관리가 잘 안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았다.



오징어 전망대를 이용하고 있는 가족(좌)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상업시설들(우)

②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14:00 ~ 16:30

14:00 ~ 15:20 공원의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주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 하지만 주말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평일이라 그런지 연인들, 회사원, 학생들은 찾아보기 거의 힘들었다. 이용객은 거의 등산객들, 산책을 나오신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었다. 기온도 뚝 떨어지는 바람에 설문조사에 거의 응해주지 않았다. 산을 따라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도 손이 시리다고 했다. 간혹 가다가 설문조사에는 응해주지 않지만 자기 의견을 얘기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전날과 같은 상업시설이 많다는 얘기였다. 그 밖의 의견에는 화장실이 너무 적다,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15:20 ~ 16:30 Alvaro Siza가 설계한 전시관 근처에서 조사. 여전히 이용객 수는 적었지만 하교하는 학생, 그리고 근처 대학생과 연인들이 간혹 가다가 눈에 띄었다.



텅빈 공원, 이용자가 거의 없다

③ 2008년 11월 18일, 화요일, 15:30 ~ 17:00

15:30 ~ 17:00 예상했던 대로 어제(17일 월)의 분위기와 별 다르지 않았다.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설문지 조사결과 평일에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50대 이상의 중년층이었으며, 주로 주부 또는 자영업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 기간중 알바로시자가 설계한 전시관에서 앤디워홀의 작품이 전시되어있었다. 그 전시를 보고 온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었다. 전시회 관람을 마친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전시 또는 이벤트가 좀더 적극적이고 활성화 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④ 2008년 11월 23일, 일요일, 10:30 ~ 15:30

10:30 ~ 12:30 주말 오전시간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눈에 띄었다. 일요일 아침에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주된 이용자였으며, 평일에 많이 보이지 않았던 젊은층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기온이 포근하여 전망대에 저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며, 저번 주말에 방문했을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양예술공원을 찾았고, 비어있던 정원까지 어린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있었다. D구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각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날씨가 포근해 점심으로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점심을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3:30 ~ 15:30 지금까지 안양예술공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한번도 들르지 않았던 곳에서 설문조사. 설문지 조사 도중 어떤 아주머니께서는 안양예술공원이 자연을 배경으로 여러 조각품들을 전시해 놓은 것은 좋지만, 그 외의 문화프로그램이 취약하고, 안양시 내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으셨다. 또 다른 어떤 분은 건축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유명한 건축가인 알바로 시자, MVRDV 등의 건축물과 많은 조각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자체의 시설이 부족하고 유명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어주셨다. 이 의견은 그 전에도 나왔던 의견이어서 이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의문이 들은 점은 예술공원에 안내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공원 입구나 공원 중심에 있을만한 공간에 안내소가 없어서 뭔가 정비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4) 홍대앞 놀이터

①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15:00~17:00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매우 추워서 인지, 인적이 드문 한적한 분위기였다. 그런 가운데 한사람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개인 공연을 펼치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주로 담배를 태우러 오거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다. 대개 10분 내외를 머물다 가거나 아예 지나쳐 가는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간혹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사결과, 흡연실로 사용되는 분위기의 놀이터 모습이었다.

② 2008년 11월 19일, 수요일, 14:00~18:00

11월 넷째주 중 가장 날씨가 추운 날이었다. 첫날 보다 인적이 더 드물었으나 조사 구간을 넓혀서 살펴보는 바람에 여러 사람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중에는 놀이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조사 대상에서 몇 명 제외하기도 했다. 혼자 또는 둘이서 길을 지나쳤으며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주변 주민이거나, 인근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많았다. 정작 놀이터 내부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조사대상들 중 몇은 -대개 홍대 학생- 그곳을 공연 장소나 프리마켓으로 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사결과 :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놀이터에 대해 잘 활용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평소 지나치는 통로로 여겼던 사람들은 매우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③ 2008년 11월 22일, 토요일, 15:00~17:00

프리마켓이 열려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일본인들도 보였다.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아 조사대상에서 몇 명 제외하기도 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프리마켓을 위해 이곳에 들렀다고 하기보다 지나가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활기차 보여 이곳에 들르게 됐다고 했다.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도 주말을 이용해 명동, 홍대, 신촌 등지에 나들이 차 왔다가 잠시 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프리마켓을 위해 이곳에 들렀다고는 보기 어려웠다. 사람들의 흐름이 매우 복잡했고, 분위기는 전 조사 기간에 비해 매우 활기찼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놀이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파는 물건들이 주로 귀걸이, 거울, 직접 만든 물건들이어서 여자나 연인들이 장시간 머무르며 구경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잘 진행 되고 있었다.

④ 2008년 11월 23일, 일요일, 10:00~11:00

활기찬 주말 프리마켓의 모습과 함께 주말에 놀이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전시간에 맞추어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을 준비하기 위해 판매자들의 짐들이 놀이터 내부에 빼곡히 들어 차 있었고 그것의 주인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밖에는 주중과 다름없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들른 사람들이 있었다. 가족단위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 역시 주중과 다를 바 없었다. 주중의 분위기 위에 프리마켓을 준비하기 위한 긴장감이 조금 더해진 분위기로 평소와 다름없이 한적했다.